

표지면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개선방안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및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 적합성』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박애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변은지(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초빙연구원: 전효관(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센터장)

위촉연구원: 김령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발 간 사

최근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노동환경 또한 열악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안과 함께 수도권 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주거 불안이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 등 미래계획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청소년층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괜찮은 일자리, 안정된 주거는 청소년의 미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포함)은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이는 당시 구로공단 근로청소년의 복지후생을 증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기관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로공단의 변화와 함께 당초 목적인 바를 실현하는데 기능상 한계와 위치상 부적합성을 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고 서울시 청소년들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기관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및 임대아파트 이용자 여러분과 집단 인터뷰에 참여해 진솔한 의견을 전해주시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자문에 응해주신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리며,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재도약과 서울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화시설로서 자리매김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9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

Contents

I 서론 _ 0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8
제4절 연구의 추진체계	12

II 청소년의 근로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_ 13

제1절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15
제2절 청소년의 근로 및 고용환경의 문제	19
1. 청소년의 근로 현황 및 실태	19
2. 청소년의 고용환경을 둘러싼 제 문제	21
제3절 청소년 근로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	32
1. 청소년 고용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32
2. 청소년 복지지원정책 고찰 및 한계-주거지원을 중심으로	43

Ⅲ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 및 기능 적합성 검토 _ 61

제1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적합성 검토 논의배경	63
1. 서울시 근로청소년 현황	63
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복지관 內 임대아파트 포함) 적합성 검토 논의배경	66
제2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 적합성 검토	68
1. 이용 접근성	68
2. 지리적 적합성	73
3. 소결	75
제3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기능 적합성 검토	77
1. 복지관 운영목적과 사업 내용의 부합성	77
2. 수요자 욕구의 수용성	82
3. 소결	91

Ⅳ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 적합성 검토 _ 95

제1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	97
제2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적합성 검토	104
1. 이동의 편리성	104
2. 주거지역의 안전성	106
3. 주변 편의시설 접근성	107
4. 소결	108

제3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기능 적합성 검토 110

1. 시설 및 환경의 편의성 110

2. 주거자립욕구의 부합성 115

3.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공동체 형성 119

4. 소결 123

V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개선
방향 _ 129

제1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 및 기능재설계 방향 131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 개선방향 131

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기능 개선방향 134

제2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재설계 방향 147

1.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변화요소 147

2.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재설계 방향 153

3.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기능 재설계 방향 153

제3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임대아파트 통합설계 안 159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및 결론 163

참고문헌 _ 165

부 록 _ 169

Table Contents

표 목차

표 1	복지관 비이용자 면접조사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9
표 2	면접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입주자 총 6명)	10
표 3	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의 법적 정의	18
표 4	연령대별 청년 경제활동상태	23
표 5	청년층 취업자의 직장 규모, 종사상 지위, 주당 근로시간	28
표 6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현 직장 임금	29
표 7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경험	30
표 8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청년) 진로지원 및 자립지원 정책	34
표 9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고용지원정책	38
표 10	서울시 청소년 고용(진로·취업) 지원시설 현황	40
표 11	주거 빈곤 규모	47
표 12	서울시 연령, 성별 구분에 따른 직종의 월 평균 임금	52
표 13	성별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수준 (추정치)	54
표 14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하는 신규 임대주택 유형	56
표 15	서울시 근로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58
표 16	총인구와 청소년(9~24세)인구	63
표 17	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64
표 18	서울시 일반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비중	65
표 19	복지관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	68
표 20	복지관 이용자의 연령 분포	70
표 21	연령별·거주지별 이용자 분포	70
표 22	대상별·거주지별 복지관 이용자 분포	71
표 23	근로청소년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	72
표 24	학교연계 프로그램 이용학교와 복지관 간 이동거리	73
표 25	복지관 이용 청소년의 학교 재학 여부	73
표 26	근로청소년복지관 및 서울시내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간의 운영여건 비교	74
표 27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주요 사업 및 특성 변화	78
표 28	이용자 유형별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현황	80
표 29	복지관 이용목적	81
표 30	청소년의 근로실태 인터뷰조사 결과 요약	85
표 31	청소년의 고용지원 욕구 인터뷰조사 결과 요약	87
표 32	진로직업 프로그램 활동 성격	87

표 33	참여하고 싶은 진로직업 프로그램	88
표 34	진로직업 프로그램에서 강조할 내용	89
표 35	희망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장소	90
표 36	청소년 일 관련 국가의 우선 지원 희망 분야	91
표 37	입주자 직장 소재지	100
표 38	4년 거주 후 주거지 마련준비 여부	116
표 39	주거지 마련준비 항목	117
표 40	미래에 대한 투자	118
표 41	임대아파트 입주자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118
표 42	입주자 활동 사업(8개 프로그램)	121
표 43	향후 임대아파트 이용의향	122
표 44	리모델링 시 가장 고려했으면 하는 점	122
표 45	입주자 선정 시 가장 고려했으면 하는 점	123
표 46	서울시 자치구 별 수요와 공급도	133
표 47	청소년 고용지원센터 및 유사 기능 수행 서울시 기관 비교	146
표 48	주거지 환경을 고려한 변화요소	148
표 49	주거조건과 아파트 관리 행태 및 시설환경에 따른 변화요소	151
표 50	주거의 안전성 및 자립여건에 따른 변화요소	152
표 51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기본 방향	154
표 52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통합설계 안	162
표 53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기관 연혁	171
표 54	배치 현황	172
표 55	주요사업 현황	175
표 56	청소년 지원 및 주요 프로그램명	176
표 57	문화생활	177
표 58	생활지원	177
표 59	상담실	177
표 60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78
표 61	입주자 선정 순위	179
표 62	입주자 프로그램 현황	180

그림 목차

그림 1	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와 기능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구성요소	6
그림 2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와 기능의 적합성 검토 구성요소	7
그림 3	교육수준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추이	24
그림 4	교육수준별 청년층(15-29세) 고용률 추이	25
그림 5	학력별 첫 일자리 이행 기간	27
그림 6	청년층 직업훈련 참여자의 학력별 특성	30
그림 7	개인 상황별 고용서비스 이용 흐름도	37
그림 8	서울시 연령별 거주형태 구성(1985~2005)	48
그림 9	서울시 1인가구의 연령별 점유 현황	49
그림 10	서울지역 청소년 인구 추이	64
그림 11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65
그림 12	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자 거주지 분포 현황	69
그림 13	광명청소년수련관 개요 및 위치	75
그림 14	입주자 연령 분포	98
그림 15	입주자 직종현황	98
그림 16	입주자 거주기간	99
그림 17	입주자 월 소득 분포	99
그림 18	임대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른 소득 분포	100
그림 19	입주 전 주거지역	101
그림 20	입주 전 주거형태	102
그림 21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102
그림 22	입주 동기	103
그림 23	출퇴근 시 교통수단	104
그림 24	출퇴근 시 왕복 소요시간	104
그림 25	출퇴근 시 교통수단	105
그림 26	현 직장의 위치	105
그림 27	출퇴근 시 이동의 편리성	106
그림 28	서울시내 접근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106
그림 29	임대아파트 주거환경의 안전성	107
그림 30	주변 편의시설의 위치 접근성	108
그림 31	주거지역으로서의 적절성	109

■ 그림 32 ■ 시설 이용 만족도	111
■ 그림 33 ■ 아파트 입주기준에 대한 의견	114
■ 그림 34 ■ 임대아파트 입주자 복지관 이용 경험	119
■ 그림 35 ■ 아파트 행사 참여 정도	121
■ 그림 36 ■ 청소년 원스톱 종합고용지원 시스템 운영모델 안	141

연구요약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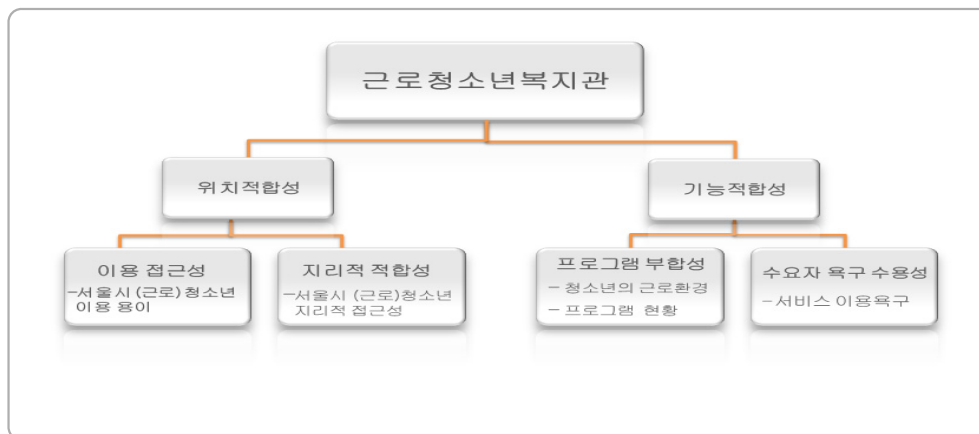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산업화시대 구로공단의 조성역사와 함께 함. 구로공단 근로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1982년 12월 근로자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었고, 여성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1986년과 1988년에 걸쳐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450세대가 설립되었음.
- 현재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주요 이용 대상과 프로그램은 취약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근로청소년 지원을 위한 설립목적과 배치되는 사업대상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주요 타겟집단 또한 모호해져 기관 정체성이 불명확함. 또한 환경변화와 함께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임대아파트 사업대상이 점차 변화하였고, 현재는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 청소년 특화시설로서의 지리적 적합성에 한계를 노정함. 과거 설립당시와는 달리 기관의 위치가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명시로 편입되면서 현재 광명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 주민의 다수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복지관 내 임대아파트 포함)은 산업 시대 필요에 의해 설립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정확한 사회적·환경적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리적 위치와 기능적 필요성에 기반 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와 기능 적합성 검토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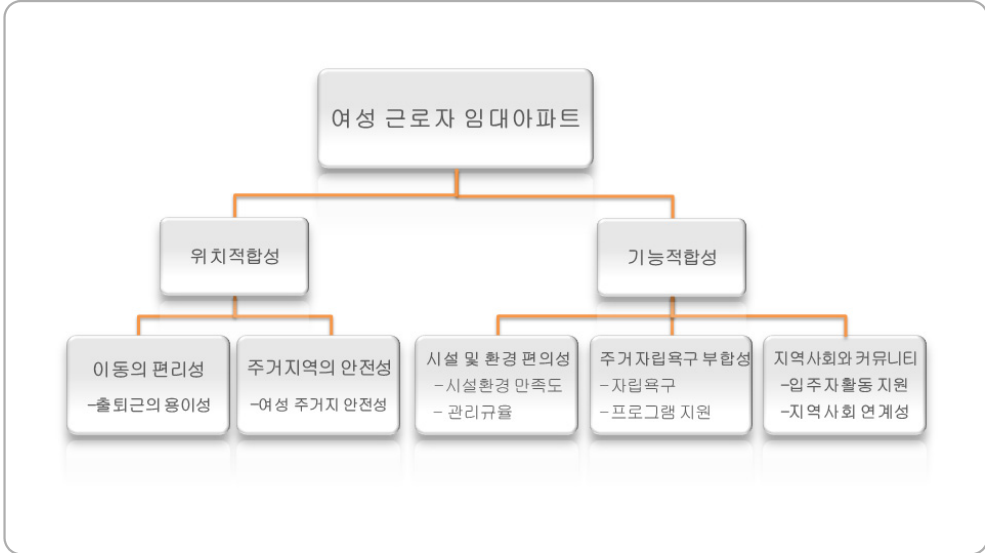
- 현재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 서울시 청소년들의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서울과 경기도 거주 이용자 분포를 파악하여 서울시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시설로서 현재의 위치가 적절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기관의 운영 목적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여 특화된 시설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파악하고자 함.



■ 그림 요약 1 ■ 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와 기능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구성요소

○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위치와 기능의 적합성 검토 구성요소

- 임대아파트 주변의 지역 환경이 주거지로서 여성이 살기에 안전한 곳인지 입주자들을 통해 살펴보고, 특히 서울과 광명시 출퇴근이 용이한지와 원거리 이동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함.
- 주거 빈곤에서 나타나는 성별 특성을 소득과 주거비 등을 통해 살펴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연령 등의 입주 기준 및 주거 시설 환경과 관리에 있어 입주자들의 인식 및 욕구를 살펴보고자 함.



【그림 요약 2】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와 기능의 적합성 검토 구성요소

- 둘째, 최근의 근로청소년의 특성 및 현황을 살펴봄. 취학청소년과 비취학·비진학청소년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주의 일하는 청소년의 유형 및 실태를 파악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직업 세계 및 고용시장에 대한 이들 청소년의 요구를 살펴보고, 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함. 이와 함께, 후기 청소년 및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주거 불평등 문제가 결과한 주거 빈곤 문제에 주목함. 특히 최근의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주거 환경에 있어 성별 특성이 존재하는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살펴봄.
- 셋째,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위치 및 기능 적합성 검토와 함께 청소년지원 정책 분석을 토대로 정책 환경 및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개선방안을 제시함.

3. 연구 방법

<표 요약 1> 조사방법 개요

구분	내용
문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근로 및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 청소년의 근로 및 고용환경의 문제 - 청소년의 근로지원 정책의 현황 및 한계 - 주거복지와 청소년 주거빈곤 실태 -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및 한계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 청소년 500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양적 실태조사 - 조사내용: 복지관 이용 청소년들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진로 및 직업 수요 등 ○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임대아파트 입주자 267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주거경험 일반, 이동편리성, 주거환경 및 안전성, 주거비용, 지역사회와 주거자립 등
인터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비이용자 면접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일하는 청소년 (19-24세) - 조사방법: 개방형 질문지에 의한 그룹 면접조사 - 조사내용: 고졸 취업 및 아르바이트 경험, 근로환경 및 노동실태, 진로 및 직업 선택, 정책 체감도 및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면접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임대아파트 입주자 6명 - 조사방법: 개방형 질문지에 의한 그룹 면접조사 - 조사내용: 아파트 이용 실태, 거주자 특성과 임금실태, 주택이동경로, 자립계획, 심리사회적 안전망 등
기관 내부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역사자료, 사업계획서,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보고서, 시설평가 결과 ○ 이용자 현황(2013년 6월 한 달간 복지관 이용자 데이터)

Ⅱ 청소년의 근로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청소년의 연령범주를 10대를 포함해 20대 중후반까지 연장시켜 고려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청소년의 연령범주를 “9세 이상~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에서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청년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생애단계에 따른 이행이 다선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후기청소년, 청년, 과도적 성인기 등의 개념이 등장함. 각 용어의 명확한 개념정의는 다소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음을 지적함.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가 20대 중후반까지 연장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청소년 연령을 포괄적으로 범주화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기초해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범위에 있는 자”로 포괄하며, 근로기준법 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근로가능 연령인 10대 청소년을 포함해서 약 15세에서 24세 범위에 있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청소년으로 규정함.

2. 청소년의 근로 및 고용환경의 문제

1) 청소년의 근로 현황 및 실태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조금주, 2012).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1만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비율은 21%였고, 고용노동부의 2001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9.1%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겪는 부당 노동의 경험 또한 초저임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휴식 없는 고강도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조금주, 2012).
- (2) 학업중단 및 비진학 청소년 근로실태
 -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이 집단의 증가는 근로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64%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중·고등학생의 20%에 비해 상당히 높음(임영식 외, 2011).
 - 학업중단 및 비진학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법적 노동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43%의 청소년들이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등 매우 부당하고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있음(임영식 외, 2011)

2) 청소년의 고용환경을 둘러싼 제 문제

- (1)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현실적 고민 청소년층 증대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1년 이내에 진학이나 취업 등 명확한 진로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한 해에만 36,460명이나 발생(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 2012)하고 있음.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은 대학생도 예외는 아님. 2011년 기준 서울시 소재 대학의 평균 중도탈락 학생비율은 4년제 대학이 5.4%, 전문대학 8%로 나타남(대학정보공시센터, 2012 자료).
 -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탐색의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경향이 약하며, 직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자기주도성이 약함(김기현·맹영임, 2011).
- (2) 20대 초반 및 저학력 청소년의 취업 기회 부족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 추세를 주도하는 계층이 바로 고졸자인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 취업자 중 고졸 학력자의 비중이 2000년 45.6%에서 2011년 17.9%로 대폭 감소한 반면, 2011년

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56.1%에 육박하였음(이승렬 외, 2012).

- 그러나 청년층 고용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청년실업의 증가 원인은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둘째, 취약한 노동시장의 문제, 마지막으로 기업규모의 불균형으로 중간역할을 해주어야 할 중견기업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학력화 된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도 청년실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김태완 외, 2012).
- (3) 저학력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낮은 근로조건에의 입직
 - 특히 저학력 청소년일수록 졸업 후 일자리를 늦게 잡고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로 입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졸 이하 청년층은 졸업 후 2년 이상 취업을 못하는 비중이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전주용 외, 2012).
 - 저학력 청년은 진로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의 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에 비해 직업교육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현재 청년층 인구 중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비율은 15.3%로, 대졸 이상(32.4%), 전문대졸(22.5%), 고졸(19.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채창균 외, 2012).

3. 청소년의 근로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

1) 청소년 고용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1) 중앙정부의 청소년 일 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역시 청소년의 경제활동 여건 강화를 위한 자립 지원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여성청년,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자립이 시급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 및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내용은 부족한 현실임.

- 청소년의 일을 단순한 용돈벌이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적성 발굴 및 잠재력 발현의 기회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성숙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에 적합한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고용부의 청소년 일 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 고용부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부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실업대책에 불과하며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양호경, 2012).
 - 현재 고용부의 청소년 고용지원정책은 대체로 고졸 이하 청년층 대상보다는 주로 실업계고, 대학교 재학생 등 재학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 중심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학교 외 고용센터의 경우 역시 저소득층, 실업자, 구직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은 많지 않음(정연순, 2013).
- (3) 서울시의 청소년 일 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관련 고용지원정책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민간기업 고졸인턴 채용), 청년 구직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G-벨리 대학생 인턴(대학 졸업자 인턴십 지원), 창업교육 지원(잡 크리에이션) 등이 있으나, 청년 고용과 관련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서울시내 청소년 고용 관련 인프라들은 주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프라는 서울시 일자리플러스 센터에 불과함.
- (4) 청소년 고용지원정책의 쟁점
 - 정책대상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만 제시될 뿐 이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음.

-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진로 미성숙, 저학력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큰 근로청소년들 역시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 정책 내용의 확대 필요성

- 장기적으로 관찮은 일자리로의 이동, 근속기간의 장기화, 부당노동의 개선 등을 위한 지원 필요함.
- 학교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취업준비 청소년들이나 취업 중이지만 진로미성숙으로 잦은 이직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사후관리 등을 단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필요성

- 개인의 기본정보와 고용이력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에 맞춤형 취업지원 설계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책 주체의 확대 필요성

- 현재의 청소년 고용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하에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공시제를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구체화하기도 하는데, 특히 20대 청소년층의 고용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역노동시장이라는 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의 복지 지원정책 고찰 및 한계 - 청소년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 청소년의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주거 빈곤의 관계성 논의를 통해 일하는 청소년에게 주거복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음.

- 주거복지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거 요구(housing needs)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이 없이 공동체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김영태, 2006, pp. 129).

(1) 청소년 주거지원의 필요성

○ 주거비의 상승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적절한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확대되고 있어 무주택 가구는 50.3%에 다다르고 있음(손낙구, 2008).

- 주거환경 및 주거 빈곤이 청년 세대에 주는 과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음. 첫째는 주거비 상승은 결혼비용의 증가를 가져왔고 따라서 청년층은 결혼시기를 늦추고, 이에 따라 출산을 역시 낮아지고 있음(안선영 외, 2010). 둘째는 서울에서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좀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을 가져와 청년 세대에 미래의 소득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임(이대원, 2010).
- (2) 청소년 주거 빈곤의 실태 및 문제점
 - 권지웅·이은진(2013)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한 청년(20~29세) 주거 빈곤 규모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거 빈곤층의 약 23%를 차지하는 비율로 주거 빈곤자 10명 중 2.3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남. 주거 빈곤 청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명 중 3.6명이 주거 빈곤자로 나타남.
 -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가 서울 거주지 임대대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실태조사’(2010)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평균97.7만원)에서 주거비(약43.6만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4.9%였음. 생활비의 약 절반이 주거비로 지출되고 있는 형국임.
 - 한국여성노동자회(2010)가 만 18세~33세 청년층 여성 구직자와 취업자의 주거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취업자의 45%가 한 달 월급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50% 내외라고 응답하였고, 100만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여성 가운데 약 13%가 주거비로 인해 빚을 지고 있다고 응답했음.
 - 청년층 여성에 있어 월 소득에서 주거비가 높게 차지하는 것은 주거지를 선택할 시 치안이 중요한 고려요인이기 때문임(김재민 외, 2012;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2012). 치안에 필요한 방범시설들이 추가가격으로 매겨져 거래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 Income Ratio)을 통해 보면, 연령(19~30세)이 낮을수록 RIR 비율이 높아져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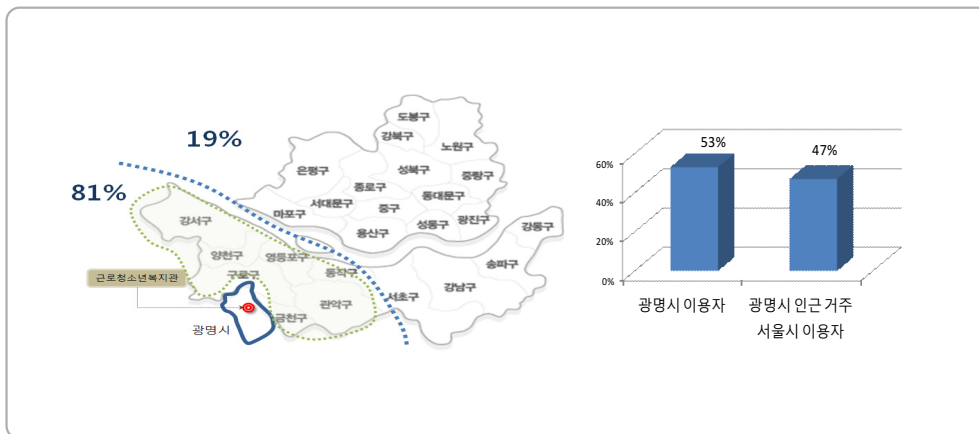
다.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및 한계

- 서울시는 ‘원순씨의 희망등지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청년층과 독신여성을 위한 공공원룸주택과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을 신규 유형으로 공급 하고 있음.
 - 공공원룸주택의 주 공급대상은 서울시 거주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1인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임.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택정책은 1986년도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종합계획’따라 총 1,160억 2,000만원을 들여 83개 지역에 8,35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 사례가 있음.
 - 서울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아파트는 3곳 중 한 곳이 광명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임.
- 주거지원정책의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수에 비해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의 수가 매우 적음(권지웅·이은진, 2013). 둘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정책이 매우 소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아직까지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수준임. 셋째, 청년계층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대책이 보강되어야 함.

Ⅲ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 및 기능 적합성 검토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 적합성 검토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복지관 내부자료)을 통해 복지관의 이용 접근성과 지리적 적합성을 분석하였음.
-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복지관 이용자의 거주지를 살펴본 결과 광명시민과 광명시 인근 서울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이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광명시와 서울시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광명시민이 53%로 광명시 인근 거주 서울 시민(47%)보다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 분석(복지관 내부 자료)

■ 그림 요약 3 ■ 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자 거주지 분포 현황

- 청소년특화시설인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이용연령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8세 이하 1.3%, 9~24세 45.3%, 25세 이상 53.4%), 특히 기대했던 청소년보다는 성인 및 유아 이용 비율이 높았음. 이는 근로청소년

년복지관에서 성인, 일반청소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성이 큼. 또한 복지관의 주요 대상인 근로청소년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 중 13.2%에 불과하며, 특히 서울시 근로청소년은 전체 이용자의 2.2%에 불과함. 서울시 거주 근로청소년 생활환경(직장, 거주지)과 근로청소년복지관의 거리가 멀어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최근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관들과 복지관 간의 거리는 평균 16.2km로 나타남. 이는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평균 33.3분 소요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거리로, 참가기관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인 점을 감안할 때 단체 버스 등을 이용한 원거리 이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 청소년의 개별적, 자발적 이용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서울시 거주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비중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지가가 비싼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운영상의 이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됨. 또한 광명시내 청소년수련관 신설은 근로청소년복지관 운영의 안정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상과 같은 서울 시민·서울시 청소년·근로청소년의 이용률 저조, 광명시 위치의 우위성 입증 한계, 광명시내 청소년수련관 신설에 따른 근로복지관 운영의 안정성 위협 등의 문제들은 모두 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에 있어 접근성에 큰 제약을 가한다는 근거로 볼 수 있음. 이에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를 서울시립 특화시설에 맞게 광명시가 아닌 서울시내로 이전하여, 서울시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유관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며 장기적 차원에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기능 적합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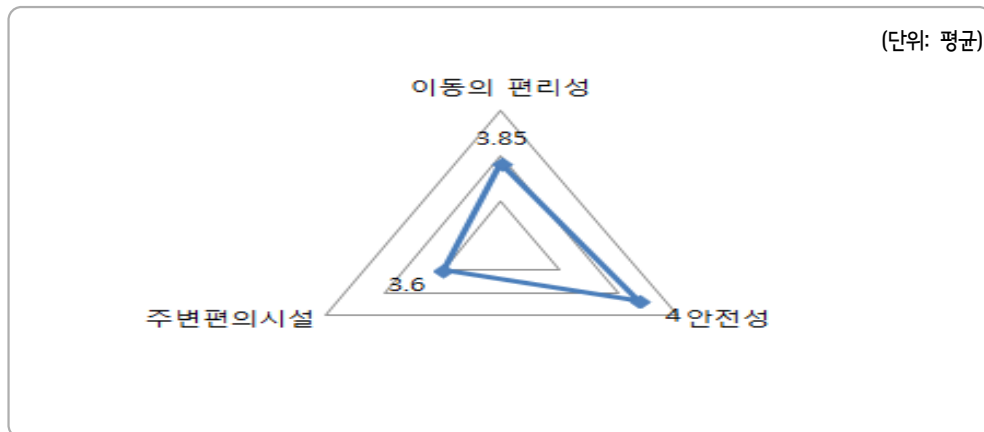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복지관 내부자료)와 본 연구가 실시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고졸 취업 및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관 비이용자 19~24세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 적합성을 분석하였음.
- 1982년 개관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구로공단의 산업지형과 이용대상자 변화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 학교연계사업(진로·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기관,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상담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주로 교양강좌와 자격증 교실, 상담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근로청소년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주민센터 등과 많은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학교유형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은 학교를 통한 정규직 취업이 많으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개별 구직을 통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취업하는 경향을 보임. 인문계 고등학교가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보다 대학진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진로준비 미흡으로 쉽게 이직하는 경향을 보임. 절차가 복잡한 신고체계로 불안정한 계약과 부당처우 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향 높음. 취업지원 프로그램 체감도 낮고 공적 구직사이트 보다 민간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높음.
- 청소년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경험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 직업체험 기회로 비교적 접하기 쉬운 아르바이트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근로 청소년들은 청소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자격증 종류 및 교육정보 제공, 직업상담 및 장기 직업훈련 기회 제공, 학력보다 능력·경력을 중심으로 하는 채용구조 개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체계 구축 등을 기대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절반이 넘는 51.6%가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이 적합한 기관으로 '진로·직업 전문 지원기관'을 선택함. 이에 따라 일반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기관,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상담센터로서 모호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고용과 근로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특화할 필요 있음.
- 구체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진로·직업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의 51.2%가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했고, 그 다음으로 기업체, 대학방문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40.1%), 적성, 흥미검사 등 진로·직업 검사(37.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직접 일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근로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시립근로청소년수련관을 진로·직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특화하여 위의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필요 있음.

IV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 적합성 검토

1.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적합성 검토

-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267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통해 입주자의 출퇴근 시 이동의 편리성과 1인 여성이 살기에 주거지역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임대아파트의 위치 적합성을 분석하였음.
- 현 임대아파트의 위치가 주거지역으로 적절한지 이동의 편리성, 주거지역으로서의 안전성, 주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종합해 본 결과, 안전성의 측면에서 입주자들이 가장 높은 점수¹⁾를 주고 있으며, 출퇴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점과 주변 편의시설 접근성 면에서도 보통 이상의 점수를 주고 있어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임대아파트의 현 위치는 주거하기에 적절한 위치라고 할 수 있음.



■ 그림 요약 4 ■ 주거지역으로서의 적절성

1) 입주자들의 인식 및 의견과 만족도 등에 5점 척도를 사용해 측정함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기능 적합성 검토

- 입주자 온라인 설문 조사와 입주자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거환경, 관리형태 및 주거지원 서비스 측면에서 임대아파트 기능 적합성을 검토하였음.
- 임대아파트 입주자 조사를 통해 입주자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본 결과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평균적으로 25~27세 월 소득 100~150만원 사이의 소득자들로 주로 강남과 구로·금천 지역 직장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들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임대아파트는 20대 중·후반의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의향을 연령별로 비교해 봤을 때, 전 연령계층(20~30세)에서 높은 이용의사가 있으나,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용의사가 높아져 이 연령층에 대한 임대아파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임대아파트가 지리적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주거 환경이 안전하며, 주변 생활편의 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지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입주자들은 주거 환경이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음.
- 임대아파트의 기능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의 안전과 자립여건,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후기청소년(post-adolescence)은 생애주기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과업들의 실현이 요구되며, 이 중에는 주거자립이 포함되어 있음(정민우·이나영, 2011).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고용구조의 불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후기청소년의 주거 자립은 쉽지 않은 상태임. 특히 중산층 이하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후기청소년의 경우 고시원과 같은 하위 주거트랙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며, 여성의 경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주거환경과 공적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 등으로 이 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후기청소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는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안정적 독립과 사회 안착의 기반이 되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됨.

- 여성1인 가구의 주거비 상승요인 중 가장 큰 것으로 “안전”에 따른 비용증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자들 역시 임대아파트의 선택 이유로 “저렴한 주거비와 안전한 주거생활보장”을 우선적으로 꼽았음.
- 보람채 입주 대상자들은 개인의 수준으로는 주거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주거빈곤층으로, 주거에 관련된 공공적 개입을 적극 수용하게 되는 계층으로 볼 수 있음. 조사 대상자들은 아파트의 이미지 개선과 통금시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나, 저렴한 주거비와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해 임대아파트가 제시한 규율을 수용하는 일방적인 수혜자로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었음. 이는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의 복지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공적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이에 대한 일방적인 수혜라는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필요를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보람채에 살기 위해서는 엄격한 행동관리가 요구됨. 출입통제, 출입증 검사 및 어머니만 하루 숙박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음. 또한 정문 통금시간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근무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엄격한 규율에 의한 입주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무시된,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주거 조건은 보람채가 대외적으로 갖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 복지아파트 또는 여자 기숙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입주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로부터의 낙인감과 소외감을 갖고 사는데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임.
- 2년의 입주기간은 후기청소년의 생활과 거주 안정성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게다가 입주하였더라도 입주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소(나이, 실업, 소득의 변화)가 항상 존재함. 20대 초반 뿐만 아니라 중후반의 연령대에서 주거지원 프로그램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대부분 보람채 퇴거 후 보다 나은 양질의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보증금 마련의 수단으로서 임대아파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입주시기가 지난 후 다시 거주 불안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냄. 이는 후기청소년의 거주문제가 여전히 개인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

음을 의미함.

-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외부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생활의 편의와 지역사회에서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강조함

V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개선방안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 및 기능재설계 방안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 재설계 안

- 청소년 고용지원 관련 수요 및 공급현황 고려 시, 강서구·양천구·은평구·송파구 등을 이전 후보지로 제안 가능함. 이들 안에서 고졸 미취업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밀집도, 고용지원 총 공급량 및 취업지원 공급량 순으로 고려하여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이전 위치 1순위 후보지로 강서구와 양천구를 제안하며, 2순위 후보지로 은평구와 송파구를 제안하고자 함.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우 근로청소년과 고졸 미취업 청소년이 밀집된 지역이면서 고용지원 서비스 공급은 매우 적으며 특히 취업지원 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1순위 후보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래의 표는 이러한 청소년 고용지원 관련 수요 및 공급 현황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임. 청소년 고용지원 관련 수요지표로는 청소년의 수, 근로청소년 수, 고졸 미취업 청소년 수로 보았으며, 유사 조건의 자치구 간 경쟁이 있을 경우 고졸 미취업 청소년 수, 근로청소년 수. 청소년 수순으로 지표 간 우선순위를 둬. 청소년 고용지원 관련 공급 지표로는 총 공급기관 수, 진로지원 기관 수 및 취업지원 기관수를 고려함. 청소년 고용지원 공급지표 간에는 총 공급기관수, 취업지원 기관 수, 진로지원 기관 수 순으로 고려하였음.

【 표 요약 2 】 서울시 자치구 별 수요와 공급도

구분	청소년 고용지원 수요			청소년 고용지원 공급		
	청소년수	근로 청소년수 ¹⁾	고졸미취업 청소년수 ²⁾	진로지원 기관수 ³⁾	취업지원 기관수 ⁴⁾	총계
서울시 전체	1,830,496	140,042	36,460	117	16	133
강남구	113,105	5,272	3,557	8	1*	9
강동구	91,322	6,964	1,641	4	2	6
강북구	57,426	5,255	613	3	0	3
강서구	101,441	8,730	2,478	5	0	5
관악구	82,720	9,116	1,124	4	0	4
광진구	68,433	6,032	1,275	3	0	3
구로구	68,859	6,372	1,236	4	1*	5
금천구	41,794	4,495	642	5	0	5
노원구	125,523	6,936	3,085	5	4*	9
도봉구	68,259	5,417	1,167	6	0	6
동대문구	61,348	5,156	956	3	0	3
동작구	67,537	5,453	963	6	0	6
마포구	63,309	4,857	651	5	2*	7
마포구	63,309	4,857	651	5	2*	7
서대문구	55,934	4,250	623	6	0	6
서초구	82,078	3,751	2,358	5	1*	6
성동구	50,415	4,361	560	5	0	5
성북구	83,471	6,363	1,301	5	0	5
송파구	128,437	8,159	2,631	3	1*	4
양천구	108,115	6,291	2,411	4	0	4
영등포구	61,925	5,345	995	5	1*	6
용산구	37,612	2,755	979	5	2	7
은평구	87,718	7,048	1,561	5	0	5
종로구	29,213	2,163	1,713	3	0	3
중구	20,121	2,018	884	7	3*	10
중랑구	74,381	7,483	1,056	4	0	4
자치구 평균	73,220	5,602	1,458	4.7	0.6	5.3

주1) 서울시 15~24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주2) 고등학교 졸업자 중 당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무직자)(교육통계서비스)

주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청소년특화시설, Wee센터 등

주4) 고용센터, 시립직업훈련기관 등

자료: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서울시 및 각 자치구청 내부자료

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기능 재설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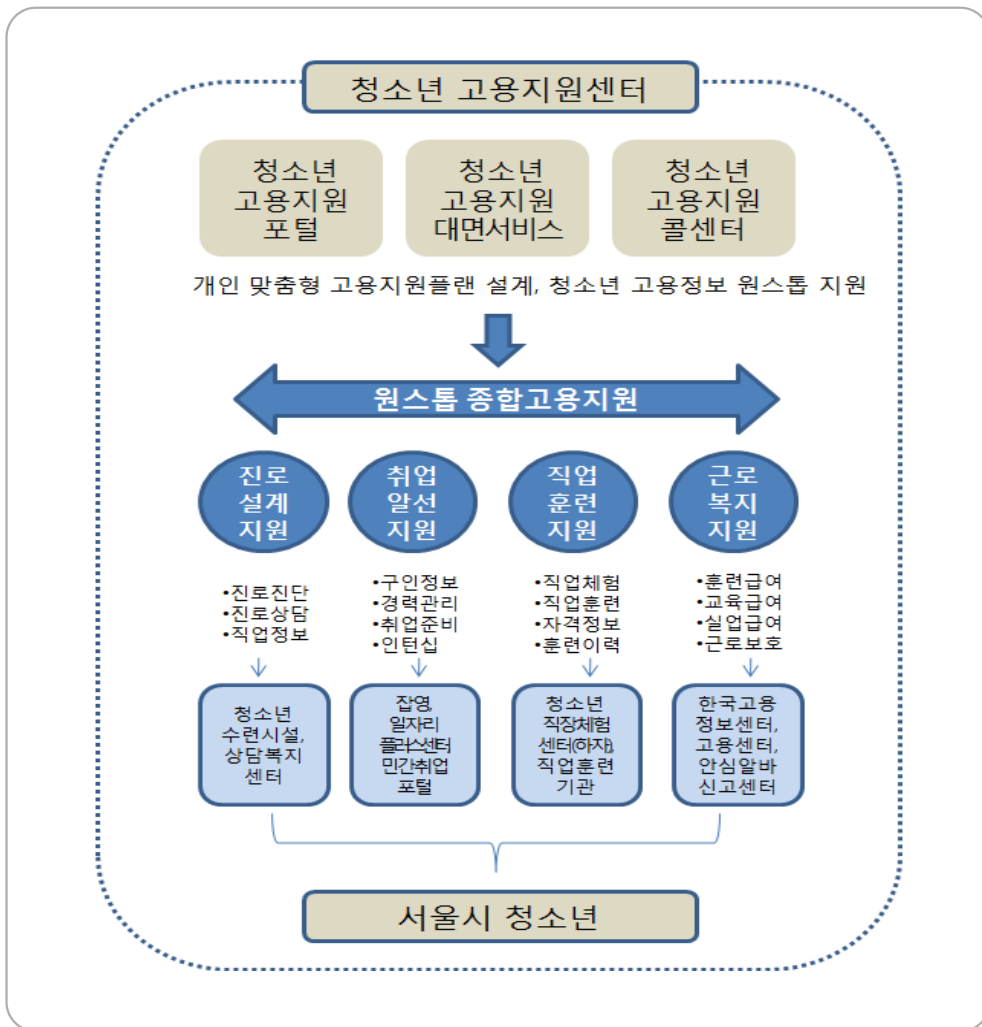
-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새로운 기능개선 방향으로 청소년 고용지원을 제안하고자 함.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최근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욕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청소년 고용 관련 종합지원 인프라가 부재함. 또한 기존 청소년 고용지원정책들이 학교라는 전달체계(특히 대학과 실업계고)를 중심으로 강화됨으로써 학교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특히 저학력 청소년(인문계고 졸업 비진학 청소년, 학교밖 위기청소년, 대학 중퇴 청소년 등)의 정책 배제 문제가 심각함. 이와 더불어 고용서비스들의 분산 및 연계성 부족으로 고용지원정책이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청소년에게 종합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이로써 서울시에 청소년 고용지원의 특화된, 전문적 전담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제안함.

가. 청소년 원스톱 종합고용지원 시스템 운영 모델안

-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로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근로자 복지지원 등을 연계하여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하는 종합고용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 중이지만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에 의뢰하면 개별 청소년에 맞는 고용지원플랜을 설계하고 서울시내 고용지원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용, 훈련, 복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관련 사업들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들이 유기적인 연계 하에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허브기관이 필요함(유길상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고용지원센터」가 서울시 청소년 고용지원네트워크의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청소년 수요자 입장에서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모델로 청소년 원스톱 종합고용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을 제안함.

- 그림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근로복지를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함.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공공 고용지원체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이용 경험이 있더라도 지원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난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전달기구의 필요성을 피력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고용 전담 기구로서 인식시키고 필요한 지원들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이로써, 청소년이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서비스 지원을 의뢰하게 되면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근로복지 등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것임.
- 또한 본 모델에서 주목하는 것은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는 직접 서비스보다는 연계 서비스에 더 큰 초점을 둔다는 것임. 서울시의 청소년 고용 전담 인프라로서 직접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가능하면 고용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서울시내에 이미 활발히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 고용서비스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앞서 지적된 고용서비스의 분산 및 중복 문제를 완화하고 각자 전문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존 기관들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청소년 고용지원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지원의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음. 진로설계 지원은 진로진단, 진로상담, 직업정보 제공 등이 주를 이루며, 수요자의 거주지 혹은 직장 근처에서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함. 직업훈련 지원에는 직업체험,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자격정도, 훈련이력 관리 등이 포함됨. 이는 자격정보나 훈련이력은 센터 포털에서 온라인 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이나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자 함. 취업알선 지원에는 구인정보(일자리 정보) 제공, 경력관리, 취업준비,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되며, 기존의 청년 특화 고용정보망인 잡영과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 민간 취업포털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근로복지 지원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따른 수당, 구직급여, 실업급여, 근로자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금 연계와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연계 및 노동권교육 등을 아우르며, 한국고용정보센터, 고용센터, 안심알바신고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그림 요약 5】 청소년 원스톱 종합고용지원 시스템 운영모델 안

2.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재설계 방안

1)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재설계 안

- 임대아파트의 장점이면서 긍정적인 측면인, 편리한 교통과 여성이 살아가기에 안전한 주거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시설을 현 위치에 두면서 근로 청소년들의 새로운 욕구를 고려해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기능 재설계 안

가. 가교와 연대를 통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 본 연구가 제시하는 임대아파트 운영정책의 큰 틀은 첫째,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에 따른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 안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임. 시설 환경의 개선은 외부인 출입 관리를 포함한 성범죄로부터 보호, 여성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및 거주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물리적·환경적 설계가 동시에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1인 1가구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원룸 형 가구를 시도해볼 수 있으며, 입주자 조사에서 세대당 입주인원으로 2명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큰 불만이 없는 점과 자매 거주자를 배려해 1가구 2인 거주 형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생애주기 상 후기청소년으로서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물리적·관계적 안전망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 이러한 입주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 2년 후 퇴거 시 주거 자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 대상자의 입주목적인 안전하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거주지 확보를 담보하고 퇴거 후 자립을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이 요구됨. 사회주택의 공급 수요 확대뿐만 아니라 주거자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셋째, 공공임대주택을 주변지역과 융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요구되고, 이를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관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후기청소년의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관리대상자, 정책 수혜자로 위치시키기 보다는 이들의 주거가 사회문제로서 공공의 영역임을 인식시키는 능동성이 요구되며, 연대 방식을 통한 여성 1인가구로서의 생활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표 요약 3 】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기본 방향

임대아파트 위치	임대아파트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으로서 안전성과 출퇴근 용이성에 근거 현 위치 존치(存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리모델링/재건축) ○ 2차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프로그램 (교육과 서비스) · 안정적인 주거단계로 이동을 돕는 가교역할 ○ 3차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연대강화와 환경의 오픈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 생활자치 권한 강화

나. 임대아파트 운영의 기본 내용

- 입주 대상자 및 자격요건
- 기존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유지
 - 여성전용 거주지가 주는 거주 안전을 확보하고 성범죄 포함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을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안전을 담보해야함.
 - 여성의 안전한 주거지로 기능하기 위해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주거환경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함.
- 대상자 선정 및 자격 요건
 - 임대아파트 리모델링/재건축 시 기존 입주자의 입주 계약 기간을 보장해줘야 할 것임.
 - 입주자 선정 대상 및 우선순위 기준 검토가 필요함. 우선순위는 근로자, 연

령, 월 소득, 학력, 출신지역을 포함한 기본 기준과 함께, 근로를 준비하는 구직자, 창업자, 직업전문학교 학생 등 입직을 준비하는 지원자를 위한 주거 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수 있음.

□ 입주기간

-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입주기간을 6년으로 제한을 두거나(김영태, 2006) 최근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나타나듯이 일정한 입주계약 기간(보통 2년) 이후 기간 연장에 대한 확실적인 제한을 두기 보다는 추가 부담비와 같은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주거지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거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자립 기반을 돕는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의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강해졌기 때문임(김영태, 2006).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기능적으로는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주자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운영형태를 가져가는 추세임. 따라서, 임대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거주 기간의 제한을 유연하게 가져가되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복지외존성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함.

□ 운영주체 및 프로그램

- 공공임대주택 논의에서 입주자의 경제적인 역량 강화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이 시장에서 스스로 적정한 수준의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인데서 기인함(서종균·김현옥, 2011). 따라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입주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해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자기실현을 돕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사회 사례관리 담당자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거점화 해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재원을 연결해주거나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상담사를 연결해 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전망 요소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코디네이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음. 이를 통

해 시설과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운영 및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3.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임대아파트 통합설계 안

- 정책 활용도 측면에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통합 설계에 관한 3가지 안을 제시함. 1안으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분리하여 복지관만 서울로 이전하는 안과 2안으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모두 서울로 통합 이전하는 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현 위치에 통합 존치(存置)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각각의 안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를 통해 서울시가 현 시점에서 가능한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았음.
- 1안에 따라 복지관만 서울로 이전하고 임대아파트를 현 위치에 존치할 시에 고려해 볼 점은 다음과 같음.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복지관을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해 서울로 이전한다면, 무엇보다도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시대적으로 요구받는 청소년을 위한 기능이 탑재된 기관으로의 변모와 위치 전환을 통해 복지관은 서울시 대표 특화시설로서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임. 또한 서울 중심에 위치한 많은 고용지원 서비스와 시설을 연계해 기능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그 서비스의 효과는 물론 재정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복지관을 서울로 이전할 시에 갖는 많은 장점 뒤에 근로청소년들의 주거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시설과 분리됨으로 인해 근로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거지원의 부재가 불가피함.
- 2안에 따라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매매를 통한 통합 이전 시 고려해 볼 점은 다음과 같음. 임대아파트가 서울로 이전함으로써 저렴한 주거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주거지의 이전에 따른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물리적 환경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본 연구가 제시한 입주자의 특성에 따른 심리적·관계적 주거안전망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서울시 근로 청소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특히 복지관과 임대아파트가 통합 이전함

에 따라 고용 및 주거 지원이 함께 제공될 수 있어 주거 안정을 통한 경제 자립 가속화는 물론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그러나 통합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현 복지관과 임대아파트의 부지를 합치면 약 2만평에 달하고 있어 규모의 부동산 매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매매가 되더라도 서울시 내 부지선정의 어려움과 함께 서울시 내 고가의 부동산 매입을 통한 신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됨.

- 3안에 따라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경기도 광명시 현 위치에 통합 존치 시 고려해 볼 점은 다음과 같음.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현 위치에 존치함에 따른 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노화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으로 추가 비용 발생 여지는 여전히 존재함. 또한 2014년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의 신설에 따라 이용자 경쟁에서 열위가 예측되어 복지관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복지관은 기능 전환이 아니고서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근접 유사 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연구의 한계 및 결론

-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이용자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분석 위주로 전문 인력 및 시설 운영 등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복지관과 임대 아파트의 위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내용 전개로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 배치와 공간적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음.
- 6월 한 달간의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이용자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을 분석한 것으로 연간 운영 현황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복지관이 제시한 2013년 1~4월간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도 위에서 제시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 2013년 상반기 운영현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청소년 주거문제와 관련해 기존 연구가 많지 않고 활용 가능한 2차 자료를 찾지 못해 현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중심으로 수집한 결과만을 제시해 임대아파

트 밖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주거 빈곤층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음.

- 본 연구가 실시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위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검토 결과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근로청소년을 위한 선도 기관으로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재도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I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추진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산업화 시대 구로공단의 조성역사와 함께 함. 당시 경제성장의 주체였던 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정 개선 및 복지문화를 위해 1982년 12월 구로공단 여성근로자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종합복지관이 건립됨. 또한, 공단 내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불량주택이 밀집하게 되고, 벌집형 주거형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여성근로자들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1986년과 1988년에 걸쳐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450세대를 설립함. 현재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소속 기관이나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해 있으며 동일한 위탁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구로공단 산업지형도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설립당시 주요 대상이었던 구로공단 근로청소년이 사라지고, 기관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환경에 봉착함. 현재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주요 이용 대상과 프로그램은 취약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근로청소년 지원을 위한 설립목적과 배치되는 사업대상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주요 타겟집단 또한 모호해져 기관 정체성이 불명확함.

- 서울시 청소년 특화시설로서의 지리적 적합성에 한계를 노정함. 과거 설립당 시와는 달리 기관의 위치가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명시로 편입되면서 현재 광명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 주민의 다수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청소년 특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 등을 통해 이용자 연계를 받아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 거주 일반학생이 대부분이나, 이용자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지리적 접근에 한계가 있음.
- 설립초기에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의 문화·복지서비스 사업과 임대아파트의 주거안정성 제공 사업 모두 구로공단의 근로 여성청소년이라는 공통된 대상을 위해 운영됨으로써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임대아파트 사업 간의 강한 연계 필요성이 있었음. 그러나 환경변화와 함께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임대아파트 사업대상이 점차 변화하였고, 현재는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아파트가 30년 된 오래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여성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거환경의 적합성과 운영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복지관 내 임대아파트 포함)은 산업 시대 필요에 의해 설립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정확한 사회적·환경적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리적 위치와 기능적 필요성에 기반 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정책 환경 및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구성함.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와 기능의 적합성 검토 구성요소

- 현재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 서울시 청소년들의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서울시에서 연간 17억 정도(2013년 보조금 약 13억)의 자원(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도 거주 이용자 분포를 파악하여 서울시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시설로서 현재의 위치가 적절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기관의 운영 목적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여 특화된 시설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함. 사업 운영의 방향이 설립당시와는 달라진 변화하는 근로청소년들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있으며, 이용자 욕구가 반영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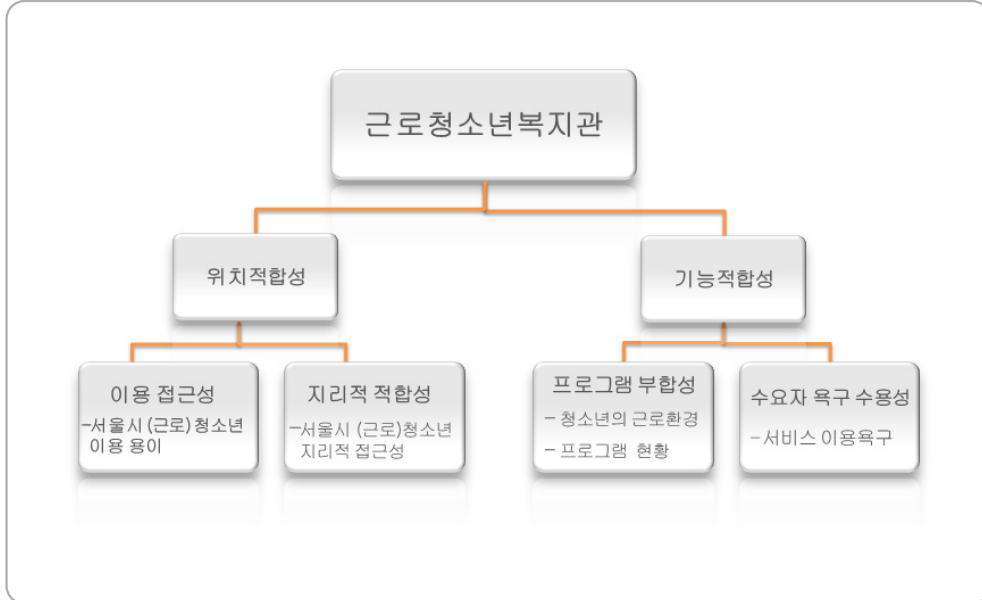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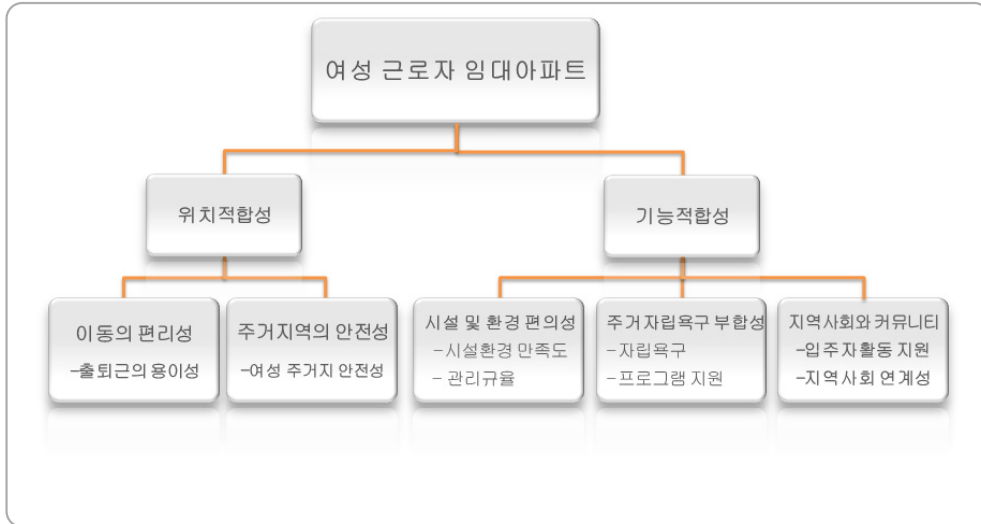


그림 1 | 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와 기능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구성요소

○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위치와 기능의 적합성 검토 구성요소

-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근로청소년복지관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여성근로자 전용 임대아파트로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26세 미만의 여성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함. 임대아파트 주변의 지역 환경이 주거 지로서 여성이 살기에 안전한 곳인지 입주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특히 서울 과 광명시 출퇴근이 용이한지 혹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함.
- 임대아파트는 ‘근로 청소년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이라는 운영 목적에 기초함.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후기청소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좀 더 안정적인 주거 트랙으로의 이동을 돕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주거 빈곤에서 나타나는 성별 특성을 소득과 주거비 등을 통해 살펴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연령 등의 입주 기준 및 주거 시설 환경과 관리에 있어 입주자들의 인식 및 욕구를 살펴보고자 함.



■ 그림 2 ■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와 기능의 적합성 검토 구성요소

- 둘째, 최근의 근로청소년의 특성 및 현황을 살펴봄. 취학청소년과 비취학·비진학청소년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주의 일하는 청소년의 유형 및 실태를 파악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직업 세계 및 고용시장에 대한 이들 청소년의 요구를 살펴보고, 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함. 이와 함께, 후기 청소년 및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주거 불평등 문제가 결과한 주거 빈곤 문제에 주목함. 특히 최근의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주거 환경에 있어 성별 특성이 존재하는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살펴봄.
- 셋째,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위치 및 기능 적합성 검토와 함께 청소년지원 정책 분석을 토대로 정책 환경 및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3절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는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실시됨. 첫째는 일하는 청소년의 현황 및 청소년 정책 현황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문헌을 리뷰하고, 청소년의 근로환경 및 진로직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함.
- 둘째로, 후기 청소년들의 주거 빈곤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함. 또한 청년 주거복지를 포함한 주거복지 정책동향을 검토함.

2. 설문조사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목적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 경험 및 진로·직업 수요조사
- 조사대상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 청소년 500명
 - 일반청소년(학교방문프로그램, 복지관 방문프로그램 이용자)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양적실태조사
- 조사내용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 청소년들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수요 파악 등

2) 임대아파트 입주자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임대아파트 입주자 267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주거경험 일반, 이동편리성, 주거환경 및 주거지역 안전성, 주거비용, 지역사회와 주거자립 등

3) 면접조사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비이용자 면접조사

- 조사목적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의 접근성, 일과 고용 지원 욕구 등
- 조사대상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졸 미취업자(아르바이트) 4명, 고졸취업자 3명)
 - 서울거주자
 - 연령은 19~24세 미만 청소년

【 표 11 】 복지관 비이용자 면접조사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련 번호	이름	거주구	나이	직업	성별	근무형태	월수입
1	박○○	영등포구	21	바리스타 인턴	남	시간제	120만원미만
2	김○○	강북구	21	미용실보조	남	전일제	120만원이상
3	박○○	금천구	19	단기 아르바이트	여	시간제	80만원미만
4	박○○	동작구	21	단기 아르바이트	남	시간제	80만원미만
5	박○○	은평구	22	회사원(운송업)	여	전일제	120만원이상
6	김○○	노원구	20	바리스타	여	전일제	120만원이상
7	정○○	강서구	22	단기 아르바이트	남	시간제	80만원미만

○ 조사내용

- 고졸 취업 및 아르바이트경험, 근로환경 및 노동실태, 진로 및 직업 선택
- 정책 체감도 및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2) 여성청소년 임대아파트 이용 실태 및 리모델링을 위한 면접조사

○ 조사대상 : 현 임대아파트 이용자 6명

【 표 2 】 면접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입주자 총 6명)

번호	성명	연령	직업유형	근무형태	학력	급여
1	가	21	의료직	시간제	고졸	110만원 이상
2	나	24	기타	전일제	전문대졸	90~110만원 미만
3	다	20	사무직	전일제	고졸	110만원 이상
4	라	20	사무직	전일제	고졸	110만원 이상
5	마	26	전문직	전일제	대졸	90만원 미만
6	바	27	전문직	전일제	대졸	110만원 이상

○ 조사방법

- 사전조사지를 통한 조사 참여 대상자 선정 : 후기청소년 연령에 맞는 20~26세 이용자를 선정하고 현 임대아파트가 30세까지 이용자가 있는 것을 감안해 청년세대 거주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26세 이상 이용자 포함.
- 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90-110만원 소득인 여성 포함.
- 직장의 근무형태는 서비스, 사무직, 의료 등 다양하게 분포하여 대상자 선정함.

○ 조사내용 : 임대아파트 이용자를 중심으로 여성1인가구의 거주 및 임금실태, 주택이동경로, 라이프스타일, 자립계획, 심리적 안전망 등에 대해 조사함.

4) 기관 내부자료 분석

- 본 연구에서는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임대아파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 서면으로 된 내부자료 검토함.
- 주요 분석내용은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현황임.
- 분석대상 자료목록은 다음과 같음.

- | | |
|--------------------|--|
| 1. 기관 역사자료 | 5. 임대아파트 현황 |
| 2. 사업계획서, 중장기 발전계획 | 6. 이용자 현황 (2013년 6월 한 달간
복지관 이용자 데이터) |
| 3. 사업보고서(최근3년) | |
| 4. 시설평가결과(최근 3년) | |

제4절 연구의 추진체계

단 계		주요 내용	
연구 설계 및 계획 단계	문 헌 연 구	▶ 근로청소년 현황 및 청소년지원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일하는 청소년 개념화 및 현황 파악 -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따른 취업 및 진로 관련 지원정책 현황 파악
		▶ 주거 빈곤 및 주거 지원정책자료 분석	- 후기청소년을 포함한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 원인 - 주거문제에서 나타나는 성별특성 - 주거지원 정책 현황
연구 수행 단계	기 관 자 료 분 석	▶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분석	- 복지관 및 임대아파트 위치 -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 서비스 이용자 현황 등
	조 사 연 구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자 설문조사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비이용자 인터뷰조사	- 복지관 이용 경험,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한 수요 파악 등 - 근로 경험 및 실태, 정책 체감도 및 프로그램 욕구 등
		▶ 임대아파트 입주자 온라인 설문조사 ▶ 임대아파트 입주자 인터뷰조사	- 임대아파트 이용 실태 및 주거만족도, 주거자립계획,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인식 - 임대아파트 주거지역 안전성, 이동의 편리성, 주거비용, 주거지원 욕구 등
		▶ 기관 내부자료 검토	-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현황 등
정책 방안 도출 단계	정 책 제 언	▶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개선을 위한 방향성 도출	- 조사 결과 및 정책분석을 통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개선안 도출 - 결과보고서 작성

II

청소년의 근로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제2절 청소년의 근로 및 고용환경의 문제

제3절 청소년의 근로지원 정책의 현황 및 한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청소년의 근로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 국가마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범위를 다양하게 규정짓고 있음. UN과 월드뱅크는 청소년 연령대를 “5세부터 24세”로 보고 있고, EU 청소년 보고서는 청소년 연령 대상을 “15세부터 29세”까지 포괄함(European Commission, 2009).
-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청소년의 연령범주를 10대를 포함해 20대 중후반까지 연장시켜 고려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청소년의 연령범주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제2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아동복지법(제3조)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로 명시하고 있음.
- 경제적·사회적 자립이 20대 초반에 이루어진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진학 및 취업의 어려움에 따른 독립된 성인으로서 이행시기가 지연되면서, 청소년을 20대 중반까지 규정해 ‘후기 청소년’으로 정의하기도 함(최훈·진영재, 2010).
- 청소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의로서 20대 후반 (~29세)까지를 포함하며 청년으로 범주화하기도 함(박기현, 201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에서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청년 연령의 상한을 29세로 보는 것은 대다수의 남성이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전 세계적으로 청년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졸업과 취업, 부모로부터의 분가, 결혼, 부모됨과 같은 이행이 더 이상 단선적으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지 않게 됨. 다양한 이행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순서가 뒤바뀌면서 다선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과도적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는 새로운 발달단계가 주목받고 있음(Arnett, 2001).
- 과도적 성인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관찰됨(Arnett, 2001).
 - 졸업이후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준비생의 신분으로 청년기를 보내는 시기가 길어지며, 진학을 통해서 교육기간을 연장시킴. 또한 결혼이나 부모됨의 역할이 지연되거나 결혼 이후에도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이전세대처럼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사회적 경로가 다차원적으로 변화하면서 탈 표준화되었으며(Bruckner and Mayer, 2005), 더 이상 “보편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생애단계나 사건, 발달과업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음(Billari and Liefbroer, 2010). 즉,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 학업이고, 이를 마친 후 취업을 한다고 할 수 없게 됨.
- 청소년의 근로는 ‘과도적 성인기’ 개념에서 설명하듯이 탈 표준화된 생애과정 현상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Zimmer-Gembeck and Mortimer, 2006).
 - 산업화 이전 아동과 청소년은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되었고, 그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 및 임금은 가구의 자산으로 간주되었음.
 - 1900년대 초부터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였고, 의무교육의 확대와 함께 미성년자의 근로가 법적으로 규제되었음.
 - 그러나 최근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인식이 다시 변화하고 있음. 부모나 교사 이외에 근로에 대한 역할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실제’ 일에 노출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함.

-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에서 근로청소년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소년 고용은 청소년기의 삶과 통합적인 것으로 고려되며, 성인기 노동경력의 필수적 준비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생애단계에 따른 이행이 다선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후기청소년, 청년, 과도적 성인기 등의 개념이 등장함. 각 용어의 명확한 개념정의는 다소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음을 지적함. 더불어 연장된 청소년기 동안 학업과 근로의 병행이 보편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 근로청소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일차적으로 찾아볼 수 있음.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 소지자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후견인 등의 동의서가 있을 시 고용이 가능하도록 함.
 - 민법에서 만20세가 되지 않는 자에 대한 계약 등 미성년자보호제도를 두고 있어 20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해 둬.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가 20대 중후반까지 연장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청소년 연령을 포괄적으로 범주화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기초해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범위에 있는 자”로 포괄하며, 근로기준법 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근로가능 연령인 10대 청소년을 포함해서 약 15세에서 24세 범위에 있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청소년으로 규정함.

【 표 3 】 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의 법적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정의)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동시행령 제31조 제1항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이상 15세 미만의 자이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민법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 등 법률행위에서 미성년자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제2절 청소년의 근로 및 고용환경의 문제

1. 청소년의 근로 현황 및 실태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조금주, 2012).
 - 2003년 노동부가 조사한 전국 중·고등학생 3만 6천 825명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22.1%인 7천 969명이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7년 청소년 1만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해서도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비율은 21%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자는 29.1%로 나타났고, 전교조가 2011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37.4%로 나타남.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겪는 부당 노동의 경험 또한 초저임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휴식 없는 고강도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조금주, 2012).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기준으로 15~19세 청소년 중 6.5%인 21만 3천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청소년 가운데 63.7%인 12만 3천명이 법정최저임금 시급 4천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시간당 4천원대의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매달리거나 야간 노동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들은 근무처에서 휴식 없는 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 주로 서비스업, 소매업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손님이 없을 때에도 앉아 있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하며, 인력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도중 폭언 및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가 2010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중에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응답자의 4.8%로 나타남.
 - 전교조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도중 성희롱이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30.9%에 이르렀음.
 - 고용노동부의 2011년 조사에서는 폭언 등 인격모독을 경험한 비율이 40.2%로 나타났음.
- 그 외에도 청소년들은 위험한 노동이나 노동재해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 2011년 전교조의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을 경험한 학생의 11.9%가 사고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고용노동부의 2011년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27.7%로 더욱 높았음.

2) 학업중단 및 비진학 청소년 근로실태

-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이 집단의 증가는 근로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학업중단 청소년을 2~3% 정도로 추산할 때, 대략 해마다 5만명에서 7만명의 청소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학업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임(조성연·이미리·박은미, 2009).
 - 이들은 다시 학업을 계속해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음(이경상·조혜영, 2005).
 -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64%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일반 중·고등학생의 20%에 비해 상당히 높음(임영식·정경은·김윤나, 2011).
- 학업중단 및 비진학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임영식 외, 2011).
 - 이들은 법적 노동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43%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카운터

- 및 서빙, 전단지 돌리기, 건설 공장 노동, 주유소 주유원, 배달 순으로 나타남.
- 이들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율은 52%로 낮음. 그리고, 40%의 청소년이 연장근로를 요구받았으나 57.1%가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중 부당경험을 겪은 청소년은 조사대상 가운데 41.7%로 나타났으나, 그에 대한 대처로는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의 수동적 대처방안이 73%로 매우 높았음. 그럼에도 향후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는 78.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
- 학업중단을 경험한 고졸 미만 저학력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매우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있음(이승렬·강병식·반정호·손혜경·홍영표, 2012).
-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응답자의 59.1%가 취업자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62.8%), 일용직(15.7%)이 대부분을 차지했음.
 - 고용상태별로는 정규직 취업자가 19.6%에 불과한 반면, 계약직 7.8%, 파견용역직 13.7%, 아르바이트 58.8%로 취업자의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의 주된 직무 내용은 주유원, 주방보조, 음식점 서빙(배달), 전단지 배포 등으로 직무를 통해서 경력형성이 기대되기 어려운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저학력 청소년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은 근속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특징으로 나타남. 이는 다시 낮은 임금수준으로 이어지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청소년의 고용환경을 둘러싼 제 문제

1)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현실적 고민 청소년층 증대

- 2012년 서울시 청소년의 고교 졸업 후 현황을 보면, 서울시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해에 55.8%는 진학, 31%는 무직, 7.6%는 취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남(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 2012). 2012년 기준 고교 졸업생 117,682명 가운데 비진학, 미취업의 무직 청소년은 36,46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무직’에는 재수생, 취업준비생,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으며(입대자는 제외), 이들 모두 특성상 삶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1년 이내에 진학이나 취업 등 명확한 진로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한 해에만 36,460명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불안감을 안고 미래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층이 두터움을 의미함.

-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은 대학생도 예외는 아님. 2011년 기준 서울시 소재 대학의 평균 중도탈락 학생비율은 4년제 대학이 5.4%, 전문대학 8%로 나타남(대학정보공시센터, 2012 자료).²⁾ 이를 2011년 서울시 대학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 2011년 한 해에만 서울시 소재 대학 중퇴자가 16,359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대학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불안해하고 현재의 학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무직, 중퇴 등의 현상은 청소년들이 고졸 이후 혹은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채 직업을 가져야 하는 성인기로 진입하게 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의 결과로 이해됨.
-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탐색의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경향이 약하며, 직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자기주도성이 약함(김기현·맹영임,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혹은 대학 졸업 이후 직면하게 되는 취업에 대한 압박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로 혹은 직업에 대한 고민을 가중시키고, 진로준비가 안된 청소년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큼.
- 이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이 겪게 될 이러한 불안과 혼란은 그들의 미래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현재의 상황이 보여주듯,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진로와 관련된 고민은 시기의 문제일 뿐 동일하게 다가옴. 그러한 와중에 발생하는 불확실한

2)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 알리미)의 통계마당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중도탈락 학생비율을 계산한 것임. 중도탈락 학생수/재적 학생수*100 (<http://www.academyinfo.go.kr>)

진로에 대한 고민의 해소는 비단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함.

2) 20대 초반 및 저학력 청소년의 취업 기회 부족

-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만성적 청년 실업이라는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초반 및 특히 저학력 청소년의 취업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연령대별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10대 청소년들은 대부분 재학 중인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실업자 규모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1/10에 불과함. 그러나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는 20대의 경우, 초·중·후반 모두 10만명 이상 씩의 실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박기현, 2013). 특히 20대 초반의 경우 대학 재학생이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47.1%로 20대 내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실업률은 1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20대 초반의 후기 청소년들은 다른 20대보다 경제활동을 하려는 비중은 적지만 경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취업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냄. 특히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해야 하는 저학력 청소년들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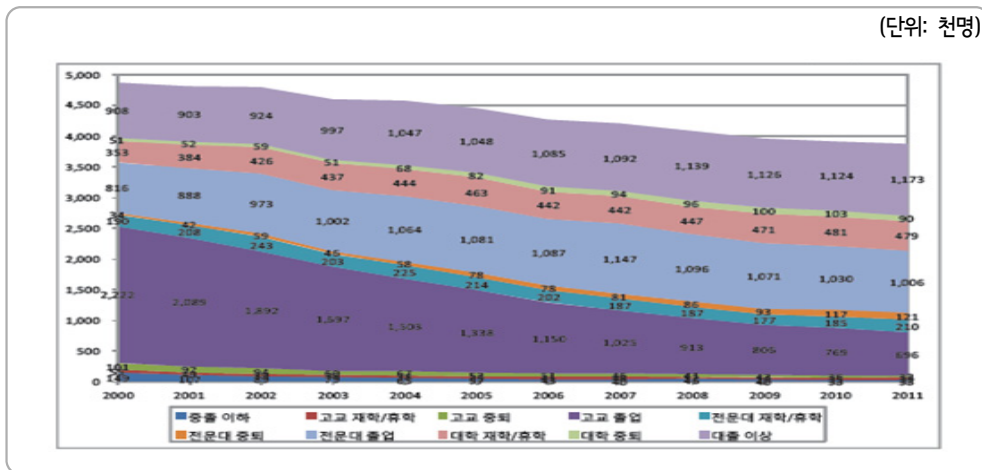
표 4 | 연령대별 청년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총인구(천명)(A)				비경제 활동 인구	(%)		
	계	경제활동인구(B)		경활률 (B/A)		고용률 (C/A)	실업률 (D/B)	
		계	취업자 (C)					실업자 (D)
15~19	3,302	244	230	14	3,058	7.4	7.0	5.7
20~23	2,171	1,022	920	102	1,149	47.1	42.4	10.0
24~26	1,843	1,247	1,139	108	596	67.7	61.8	8.7
27~29	2,194	1,739	1,622	116	456	79.2	73.9	6.7
고졸	9,510	4,251	3,911	340	5,259	44.7	41.1	8.0

출처: 박기현(2013).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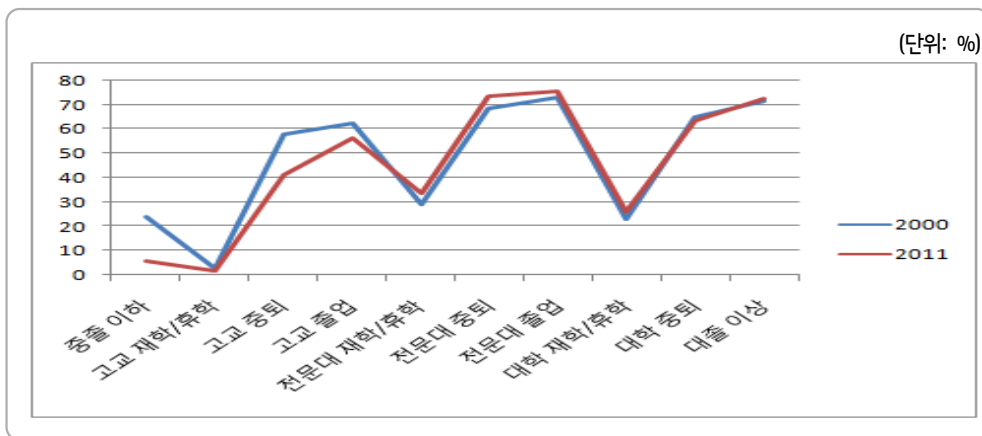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 추세를 주도하는 계층이 바로 고졸자인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 취업자 중 고졸 학력자의 비중이 2000년 45.6%에서 2011년 17.9%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는 반면, 청년층 취업자 중 고학력자의 비중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1년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56.1%에 육박하였음(이승렬 외, 2012).
- 저학력 청년의 취업난은 고용률에서도 드러남. 교육수준별 청년층 고용률 추이에서 보면, 2000년에 비해 2011년에 전문대생 이상의 고학력자의 고용률은 비슷하거나 다소 상승한 수준을 보이나,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낮아짐을 보임(이승렬 외, 2012). 그만큼 저학력자의 취업이 과거에 비해 힘들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이승렬 외(2012)

그림 3 | 교육수준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추이

- 청년층 고용률은 2009년 기준으로 40.5%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의 고용률은 가파르게 하락하였음(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2010). 수치상으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한 취업애로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자료: 이승렬 외(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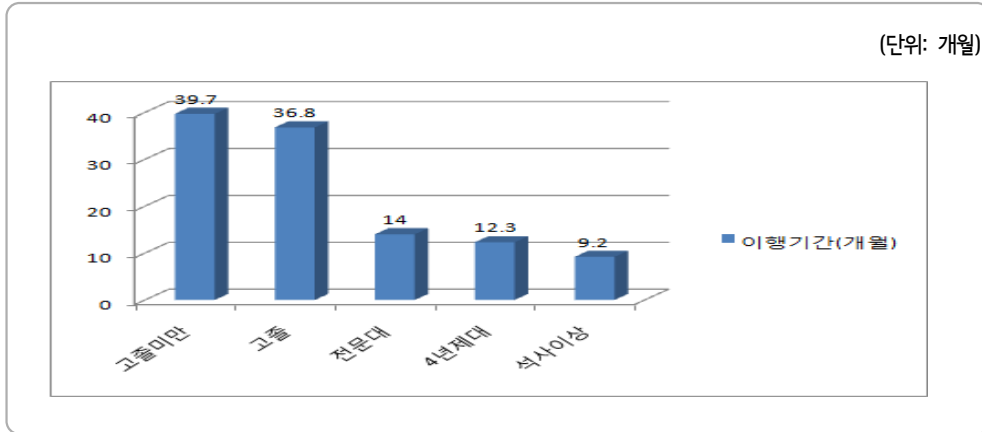
■ 그림 4 ■ 교육수준별 청년층(15-29세) 고용률 추이

- 이와 같이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임. 최종학교의 전공과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높으며(37.5%),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학력별 수급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둘째, 우리나라의 취약한 노동시장 문제를 들 수 있음.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고학력자, 경력자,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와 고용서비스 제공이 매우 미약한 상황임. 셋째, 기업규모의 불균형으로 중간역할을 해주어야 할 중견기업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견기업간의 임금격차 발생으로 고학력화 된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도 청년 실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김태완·김문길·정진욱·강성호·윤상용·

이주미·정희선, 2012).

3) 저학력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낮은 근로조건에의 입직

- 청년층은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 및 낮은 처우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있음. 특히 저학력 청소년일수록 졸업 후 일자리를 늦게 잡고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로 입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졸 학력 이하 청년은 졸업 후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37~40개월로 전문대졸 이상에 비해 3~4배 긴 것으로 나타나며, 고졸 이하 청년층은 졸업 후 2년 이상 취업을 못하는 비중이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전주용·민주홍·김미란·남기곤·강순희, 2012). 이는 저학력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며, 경력부족, 학력부족, 기술부족으로 인해 저학력 청년들의 직업, 직장 선택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이해됨.
- 이행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보다 신중한 직장 탐색을 통해 자신의 학력이나 적성에 맞는 직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 그러나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일치가 심하고 직업훈련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 혹은 구직의사를 포기하게 되는 NEET 청년층의 양산을 가져올 수 있음. 실제로 저학력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을 함께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저학력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함(박진희, 2012).



자료: 전주용 외(2012).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그림 5】 학력별 첫 일자리 이행 기간

- 상대적으로 고졸 비진학 청년은 고학력 청년에 비해 높은 고용불안 및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음
 - 고졸 청년 취업실태 분석 연구(윤형한·신동준, 2012)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별 취업상태의 경우, 고졸 청년취업자는 상용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중이 고학력 청년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 규모로 봐도 고졸 저학력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규모가 클수록 임금 및 근로조건이 나음을 고려할 때 고졸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큼. 실제로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고졸자가 가장 낮은 가운데, 고졸 청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학력 취업자보다 77.3% ~ 92.0%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학력별 근로조건 차이는 입직시부터 나타나는 현상임. 첫 입직연도에 받은 월급은 고졸 미만자 104.1만원, 고졸자 130.1만원, 전문대졸자 141.3만원, 4년제대졸자 168.5만원으로 나타남. 대졸자 임금을 100으로 두었을 때, 고졸자 임금은 6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근로조건에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청년층 취업자의 직장 규모, 종사상 지위, 주당 근로시간

(단위: 천명, 시간)

구 분	청년층 전체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졸 전체	일반계	특성화계				
전체	5,148 (100.0)	1,081 (100.0)	314 (100.0)	500 (100.0)	1,180 (100.0)	1,330 (100.0)		
직장의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370 (65.5)	778 (71.9)	234 (74.5)	348 (69.6)	731 (61.9)	646 (48.6)	
	30~100인 미만	811 (15.8)	162 (15.0)	52 (16.6)	68 (13.7)	215 (18.2)	286 (21.5)	
	100~300인 미만	466 (9.0)	74 (6.8)	13 (4.1)	42 (8.4)	116 (9.9)	172 (12.9)	
	300인 이상	501 (9.7)	69 (6.3)	15 (4.9)	41 (8.3)	118 (10.0)	226 (17.0)	
종사상 지위	임 금 근 로 자	계	4,774 (92.7)	989 (91.5)	287 (91.3)	464 (92.9)	1,129 (95.6)	1,240 (93.3)
		상용	2,320 (45.1)	462 (42.8)	111 (35.2)	238 (47.7)	782 (66.3)	917 (69.0)
		임시	1,706 (33.1)	423 (39.1)	137 (43.6)	186 (37.2)	316 (26.8)	295 (22.2)
		일용	748 (14.5)	103 (9.6)	39 (12.5)	40 (8.0)	31 (2.6)	28 (2.1)
	비임금 근로자	374 (7.3)	92 (8.5)	27 (8.7)	36 (7.1)	51 (4.4)	90 (6.7)	
주당 근로시간 (표준편차)	2011	39.5 (14.3)	45.0 (13.0)	45.2 (12.8)	45.7 (12.9)	41.7 (11.7)	37.2 (13.4)	
	2007	41.6 (15.2)	46.2 (14.1)	47.1 (14.5)	46.1 (14.0)	43.2 (12.8)	37.1 (15.4)	

주: 주당 근로시간은 주업 기준임.

출처: 윤형한·신동준(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이슈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표 6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현 직장 임금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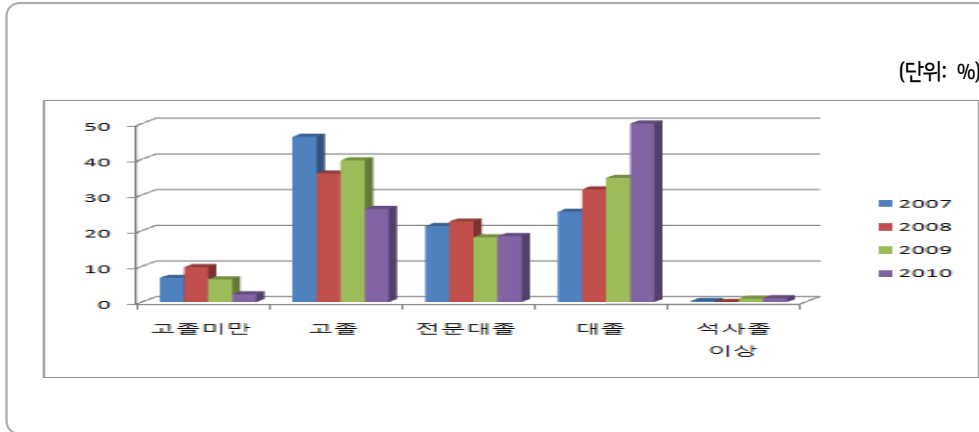
구 분	2011(평균)		2012(평균)	
	15세 이상 인구	청년층 인구	15세 이상 인구	청년층 인구
전체	203.2 (144.8)	149.8 (71.7)	174.5 (119.2)	133.5 (63.2)
고졸	고졸 전체	178.0 (104.6)	155.4 (92.0)	126.6 (48.5)
	인문계	171.8 (102.4)	150.9 (90.4)	125.5 (45.6)
	특성화계	182.2 (106.7)	146.1 (53.0)	157.9 (93.4)
전문대졸	201.6 (105.5)	158.2 (54.4)	169.8 (84.6)	139.4 (49.9)
대졸이상	291.7 (180.9)	188.2 (75.3)	258.2 (145.8)	169.4 (68.2)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출처: 윤형한·신동준(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이슈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저학력 청년은 진로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의 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에 비해 직업교육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청년층 인구 중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비율은 15.3%로, 대졸 이상(32.4%), 전문대졸(22.5%), 고졸(19.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채창균 외, 2012).
-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고졸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감소한 반면, 대졸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전주용 외, 2012). 고졸자의 직업훈련 기회와 대졸자의 직업훈련 기회 간에 대체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업교육 및 훈련 정책이 과거 고졸자 중심에서 고학력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자료: 전주용 외(2012).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그림 6 청년층 직업훈련 참여자의 학력별 특성

표 7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경험

(단위: 천명, %)

구 분	청년층 전체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졸 전체	일반계	특성화계		
전체	9,614 (100.0)	1,510 (100.0)	525 (100.0)	646 (100.0)	1,377 (100.0)	1,667 (100.0)
경험 있음	1,467 (15.3)	286 (19.0)	93 (17.8)	109 (16.8)	310 (22.5)	540 (32.4)

출처: 채창균 외(2012). 주요 청년고용 정책 이슈 분석

- 결국 청소년 고용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의 배제와 불안정한 통합으로 정리될 수 있음. 2009년을 기준으로 15세~29세 청소년 980만명 중 무려 400만명이 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들은 ‘배제된 청소년(youth left behind)’과 ‘부실하게 통합된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poorly-integrated new entrants)’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 160만명, 24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전병유, 2010).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고용위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무엇보다 20대 저학력 청소년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대 청년층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취업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등 고용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청년층의 고용상황 악화에는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및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기업의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 경향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안선영·Hernan Cuervo·Johanna Wyn·김지희, 2010), 저학력 청소년(특히 20대 초반)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저학력 청소년들은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의 경험이 낮아, 고용구조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배제된 층으로 간주될 수 있음.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은 청소년의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을 초래하여 지연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듦(이상우·정권택, 2003). 또한 오랜 실업상태와 질 낮은 환경에서의 근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감 상실, 자괴감 증대를 일으켜 근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함(이소희·도미향·정익중·김민정·변미희, 2012). 이에 근로를 희망하는 청소년, 특히 고용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20대 저학력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적자본을 유지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직업훈련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보와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청소년의 근로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

1. 청소년 고용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1) 중앙정부의 청소년 일 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 중앙정부의 청소년 고용지원정책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합동 5개년 국가기본계획임. 최근 청소년 인구의 감소 및 고학력화,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 및 고용 불안정성 증대 등 청소년의 고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을 돕는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임.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역시 청소년의 경제활동여건 강화를 위한 자립 지원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새롭게 강화된 청소년(청년) 진로지원 및 자립지원 정책은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여성청년,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청소년의 일과 관련된 직접적인 취업지원보다는 진로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 반면, 자립이 시급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 및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부족한 현실임.
- 청소년의 일을 단순한 용돈벌이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적성 발굴 및 잠재력 발현의 기회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성숙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에 적합한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변화 >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08~2012)

-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 기반 확충
-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확대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CYS-Net)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제도 개선 및 치료 지원 강화
→ 한계: 청소년의 경제활동 및 결혼 연령 지연 등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망 미흡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보완 방향

-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의 필수 역량 함양” 최우선 과제 설정
-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과제 보완 및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영역 부각
- 청소년(청년)의 경제활동여건 강화를 위해 청소년(청년)의 진로와 자립과제 보완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

-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및 자립 지원 강화됨(Fair Up)

자료: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 표 8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청년) 진로지원 및 자립지원 정책

세부 사업	대상	주요 내용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청소년	◦ 직업체험주간, 청소년기관-기업 연계 등 (여가부, 교과부, 고용부)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진학 청소년, 여대생	◦ 학교 진로교육 강화(교과부) ◦ 여대생 진로컨설팅활성화(여가부)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청소년	◦ 직업체험 특화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건립(여가부) ◦ 수련시설의 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여가부) ◦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여가부, 법무부) ◦ 청소년 대상 진로상담 서비스확대(교육청, 청소년상담지원 센터, 고용지원센터)
청소년(청년) 창업·취업 지원	대학생, 청년, 청년여성	◦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고용부, 교과부) ◦ 지역기업정보 제공, 청년-중소기업 채용박람회(고용부, 중기청)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인프라 확대 ◦ 청년 창업 교육과정 개설 및 확대 운영(중기청): 청소년 비즈니스쿨 및 청년창직·창업 인턴제 등
청소년(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 대학생	◦ 공공임대주택 마련, 취약계층 우선 제공(국토부)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국토부) ◦ 대학생 공동 기숙사 추진(교과부, 국토부)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 청소년세대-기성세대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고용부, 복지부)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청소년 (청년)	◦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고도화(고용부) ◦ 훈련이력 조회 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 ◦ 청소년(청년)의 미래 직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교과부, 중기청) ◦ 미래 직업세계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자료: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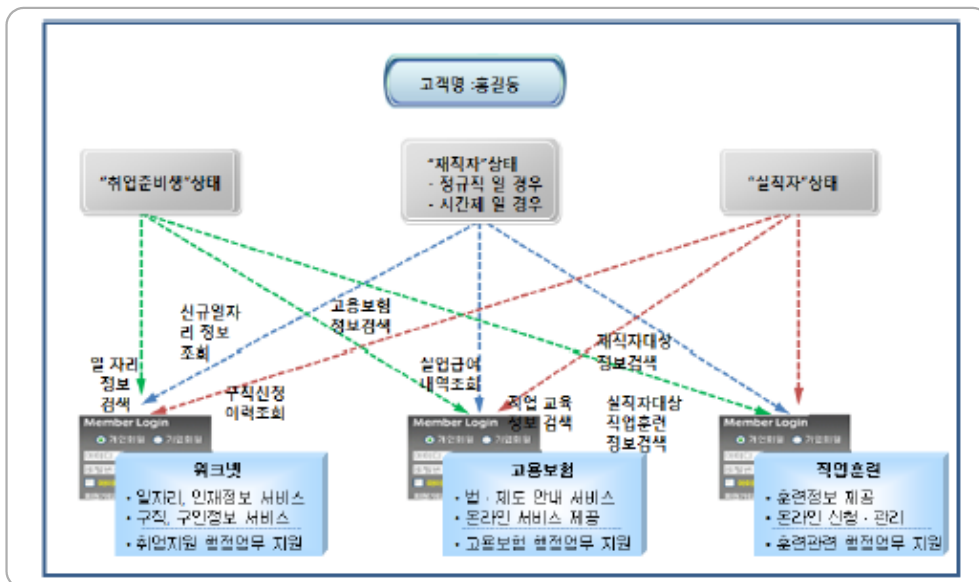
2) 고용부의 청소년 일 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 고용부에서는 과거 청소년 실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지원,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청소년 종합실업대책」(2001)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종합대책 성격의 청년실업대책을 수차례 발표하였음(김유선·이명규·이정봉, 2012). 2010년부터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고용지원서비스 사이트에 대졸 취업준비생 전용 사이트인 잡영(Job Young)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진로지원, 취업성공패키지(구 YES 프로젝트) 지원 등 고용부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실업대책에 불과하며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양호경, 2012).
 - 김유선 외(2012)의 연구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청년실업대책을 분석함. 분석 결과, 대책별로 유사한 원인진단을 하고 직업훈련, 연수 및 인턴사업 등 노동시장 공급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며, 대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족으로 차별성 부족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중복되어 시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또한 청년 취업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은 늘었으나 대부분 단기성에 그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효과성 담보가 어려웠다는 비판도 제기됨(김유선 외, 2012). 실제로 인턴이나 연수사업의 경우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업무준비 등이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하여 참여자들의 취업능력을 높이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이 확인됨(김유선 외, 2012).
 -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촉진 사업 역시 중소기업의 낮은 근로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시행되어 실제 고용창출 효과는 작았으며(김유선 외, 2012), 청년 창업 지원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창출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창업 후 다시 구직이라는 악순환 초래함(양호경, 2012).

- 현재 고용부의 청소년 고용지원정책은 대체로 고졸 이하 청년층 대상보다는 주로 실업계고, 대학교 재학생 등 재학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 중심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학교 외 고용센터의 경우 역시 저소득층, 실업자, 구직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은 많지 않음(정연순, 2013).
 - 무엇보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고졸 미취업자, 고교 혹은 대학 중퇴자 등)은 체계적인 진로모색이나 취업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관련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규모가 턱없이 적고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다뤄지고 있어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달리 졸업 혹은 중퇴로 인해 취업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압력과 함께 대학 비진학에 대한 아쉬움과 불안, 학력에 대한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아 정체성의 혼란, 자아확립의 불안, 진로 미성숙의 결과가 초래되어 취업을 하더라도 잦은 이직을 경험함(이소희 외, 2012). 이에 이미 성인이 된 이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학력 청소년들은 교육·진로·취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인 만큼, 근로를 준비하거나 이미 근로 중인 저학력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청소년 맞춤형 취업알선, 정보 제공, 상담 지원은 물론, 취업 이전 단계 청소년을 위한 현장성이 강화된 진로지원과 직업훈련교육과 취업 청소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신속한 구제 지원 등이 함께 지원될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의 분산, 고용서비스 연계 부족 역시 문제로 지적됨(지승현, 2011).
 -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방식이며(김성한, 2009), 최근 선진국에서는 임금보조방식과 더불어 공공고용 지원서비스에 주목하는 추세임(정인수, 2009).
 - 우리나라는 고용정보전산망(WORKNET), 고용보험(EI-NET), 직업훈련(HRD-NET) 등 고용지원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고용보험,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이 분산되어 개인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을 받고 있음(지승현, 2011). 또한 시스템마다 고객별 고용관련 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 고용상태 등 개인 상황을 고려한 개인화된 종합고용서비스 지원도 어려운 상황임(지승현, 2011).

- 고용정보전산망(워크넷) 내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와 우수 중소기업 분석 정보 제공, 직업탐색을 위한 검사 및 직업정보 제공 등을 하는 청년 취업준비생 전용 잡영(Job Young)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 역시 여러 정보와 서비스들이 분산되어 제공되어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용자의 검색 역량에 따라 이용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출처: 지승현(2011). '3대 고용DB 통합'을 통한 Targeting 고용서비스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창립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한국고용정보원.

■ 그림 7 ■ 개인 상황별 고용서비스 이용 흐름도

표 9 |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고용지원정책

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관
취업 성공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 대상 개인별 대상 단계별·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 지급하여 취업 및 빈곤탈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층 미취업자 (15~29세)로, 최종학교 졸업학기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고졸 비진학미취업자는 졸업직후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참여수당 지원 훈련비 지원 취업성공수당 지원 	고용센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등의 인턴기회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 (만15~29세)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5세까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취업 청년 고용 기업에 인턴지원금 지원 제조업 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 취업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지원 	고용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 제공,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진로설계능력 제고, 이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4개월 이내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 및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 참여자에게 참여수당 지원 연수(기업)기관에 기업연수 지원경비 지원 	고용부, 고용센터
청년취업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제공, 현장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전문대포함) 졸업 예정자(수료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 졸업생(29세이하, 군필자는 31세이하) * '13년 진학이 아닌 취업선택 일반고 3학년 학생에게 시범 실시 계획 * 창조적 역량의 경우 대학(전문대포함) 재학생 또는 고교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지원 - 지역특화, 신성장동력인재양성, 인문사회특화, 대·중소기업협력, 창조적역량등 5대특화모델 발굴·육성 - 기업·사업주단체가 주도하여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 및 취업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커리큘럼구성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지원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특성화고등에 취업전문인력 채용 지원, 각 학교실정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4년제, 전문대학), 특성화고교, 산업정보학교, 마이스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학교에 채용된 취업지원관 인건비지원 - 대학은 40% 매칭펀드적용, 고교는 전액지원 	대학교, 특성화고교

<p>대학 청년 고용 센터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내 청년고용센터 설치, 인지도 높은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전문성 활용하여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 수탁기관 :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에게 컨설턴트 인건비 - 대학은 40% 매칭펀드적용, 운영경비, 취업프로그램비 지급 - 대학은 청년고용센터 설치 공간·시설 제공, 수탁기관은 민간컨설턴트 채용·배치하여 고용센터 운영 	<p>대학교, 민간 컨설팅 기관</p>
<p>취업 사관 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5~24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과정의 무료 직업훈련 실시 - 자립장려금 월30만원 지원 (훈련비 및 기숙비 무료) - 인성교육 및 직업진로지도, 학업지원 등 개별적 맞춤 서비스 지원 ※ 12년 4개 기관 130명 지원 (서울 지원 50명) 	<p>한국산업 인력공단, 훈련기관 (직업훈련 기관, 대안 학교)</p>
<p>글로벌 취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구인수요에 적합한 어학 및 직무연수 과정 운영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과 해외 구인업체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구직자알선을 통해 국내 인력의 해외노동시장 진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연수 대상자 : 15-29세청년(다만, 경력등이 필요한 경우 30% 범위내에서 연령 초과 가능하며, 맞춤형 연수과정은 연령 제한 없음) · 취업애로취약 계층 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차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연수 지원 -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직무관련 연수(국내연수기관에서 1~12개월간 연수) · 해외취업알선 - 해외구인업체 발굴 및 해외취업 희망자와 구인업체간의 취업알선 · 취업애로 취약계층지원 -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애로청년층에게 해외취업 소요 비용 일부 지원 · 민간위탁취업지원 - 국내·외 민간인프라 활용, 우량 구인처 발굴 및 해외취업연계 	<p>한국산업 인력공단</p>
<p>워크넷-잡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청년특화 종합고용서비스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 정확한 연령대 명시는 없으나, 대졸취업준비생 전용으로 시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서비스 · 채용지원서비스 · 고용동향서비스 · 우수중소기업DB 제공 · 직업훈련·집단상담 프로그램 정보제공 	<p>한국고용 정보원</p>

자료: 고용노동부(2013). <http://www.moel.go.kr/>

3) 서울시의 청소년 일 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관련 고용지원정책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민간기업 고졸인턴 채용), 청년 구직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G-벨리 대학생 인턴(대학 졸업자 인턴십 지원), 창업교육 지원(잡 크리에이션) 등이 있으나, 청년 고용과 관련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서울시내 청소년 고용 관련 인프라들은 주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프라는 서울시 일자리플러스 센터와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불과함. 이들 기관은 각각 일반시민과 실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내 청소년 대상 고용종합지원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에 의존해 취업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고 있음.

【 표 10 】 서울시 청소년 고용(진로취업) 지원시설 현황

기관유형	대상	목적	활동내용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및 일반시민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화된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들의 능력개발, 직업교육 등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의활동 사업, 대안교육활동 등 • 기타 기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미디어센터, 문화교류센터 등에서도 진로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21세기 바람직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청소년 사업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 청소년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시설에서 청소년 직업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드림센터	위기 청소년	‘활동’과 ‘치유’를 통해 수요자인 청소년이 스스로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진로를 개척’하는 주도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치료사업, 활동진로사업, 교육훈련사업, 보호지원사업, 성문화교육사업

		활동 중심의 위기청소년 특화 서비스 제공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정규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대안교육, 진로교육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 청소년 조기 발견, 상담·보호지원, 자립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쉼터	9-24세 가출 청소년	가출청소년에게 상담, 주거, 학업 등 일시보호서비스 제공으로 가출을 장기화 방지, 탈선예방, 가정·학교사회로의 조귀복귀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 운영(12개소), 가출청소년 조기발견/보호, 가출예방 거리상담, 보호서비스,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두드림존	15-24세 위기 청소년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자립과 학업을 돕기 위한 종합 자립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와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원 • 자립동기부여, 진로탐색 등 자립 및 진로에 대한 교육 • 경제캠프, 직업체험 등 직업체험 캠프 및 프로그램 운영 •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진학지원 등 지속적 사후관리 • 2013년부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신규 운영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실업계고 학생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관 협력강화 및 우수취업처 발굴 • 취업매칭 시스템 연계 운영 • 취업마인드 교육 지원 • 성공의 날개 달기 프로젝트 운영
서울시 일자리플러스 센터	청년 포함 일반시민	중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설립된 취업전문상담기관. 최근에는 청년취업지원 강화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서비스(1:1 구직자 토털케어) • 기업지원서비스(구인 지원) • 창업지원서비스(창업교육, 상담 등)

자료: <http://www.seoul.go.kr/>, <http://www.teen1318.or.kr/>, <http://high-job.sen.go.kr>, <http://job.seoul.go.kr>

4) 청소년 고용지원정책의 쟁점

○ 정책대상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정책 대상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졸자들을 위한 고용정책의 성격에 가까움. 몇몇 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학력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졸자가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강하기 때문임. 고졸자를 위한 지원방안은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

원 방안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인문계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후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정책이 매우 제한적임.

- 이와 더불어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만 제시될 뿐 이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음.
- 또한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진로 미성숙, 저학력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큰 근로청소년들 역시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 현 청소년 고용지원정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인문계고졸 비진학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중퇴자, 열악한 근로조건 취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정책 내용의 확대 필요성

- 기존의 청소년 고용지원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 직업훈련 등을 중심으로 정책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청소년 고용의 질을 높이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취업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일자리로의 이동, 근속기간의 장기화, 부당노동의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역시 필요함. 그 외에도 청소년, 교사,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 또한 고용지원이라고 해서 취업알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학교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취업준비 청소년들이나 취업 중이지만 진로미성숙으로 잦은 이직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사후관리 등을 단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필요성

- 고용서비스가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취업정보, 고용보험 정보(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예상 실업급여액 등), 직업훈련 정보(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혹은 직업훈련기관 위치 정보 및 훈련프로그램), 진로·직업 관련 정보(직업정보, 진

로상담 등) 등이 개인에 맞게 종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미국, 네덜란드 등 고용서비스 선진국과 같이 개인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지승현, 2011). 즉, 개인의 기본정보와 고용이력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에 맞춤형된 취업지원 설계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책 주체의 확대 필요성
 - 현재의 청소년 고용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하에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공시제를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구체화 하기도 하는데, 특히 20대 청소년층의 고용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역노동시장이라는 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복지 지원정책 고찰 및 한계 - 청소년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 청소년 복지는 “모든 청소년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됨”(이소희 외, 2012, pp. 68).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의 복지권에 대한 보장의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장의 영역에는 교육복지, 건강복지를 포함해 근로복지와 주거복지가 해당됨. 앞서 논의한 청소년의 고용지원 및 노동권 보호를 통한 근로환경의 보장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주거 빈곤 세대의 급격한 증가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 특히 청소년의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주거 빈곤의 관계성 논의를 통해 일하는 청소년에게 주거복지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함.
- 주거복지는 주로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에 주목하는 협의의 주거복지와 거주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참여와 협조를 통해 연대감

을 형성하여 주거여건 개선을 강조하는 광의의 주거복지로 논의됨. 이를 종합하면, 주거복지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거 요구(housing needs)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이 없이 공동체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김영태, 2006, pp. 129).

-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첫째는 물리적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최소한의 주거지 지원을 달성하는 것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기반 제공 및 노후되고 낙후된 주거시설을 지원으로 하는 것임(이태진, 2009). 둘째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이해되고 이에 따른 주택정책을 수립·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함(김영태, 2006). 셋째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불능력 향상 및 자립 지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 통합의 의미로서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 촉진을 위한 지원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함(김영태, 2006; 이태진, 2009). 이를 통해 보면, 주거지원정책은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 주거와 복지를 연계하는 사회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주택의 주 수요층인 35~54세, 저소득층 및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 청년층의 연령을 15~29세로 봤을 때, 2010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정책 외에는 없었음(이대원, 2010). 청년층에 대한 주거정책은 최근에야 주목받아 계획되고 있는 단계로 청년층 주거 안정에 관한 현 주거정책의 가시적 효과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음. 이에,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의 주거문제 및 주거지원이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살펴보고, 청년 주거정책 현황 및 수요층을 확인하고자 함.

1) 청소년 주거지원의 필요성

- 주거비의 상승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적절한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확대되고 있음. 서울의 소비자물가가 1963년에 비해 2007년 43배, 실질소득이 15배 상승한 것에 비해, 땅값은 무려 1,176배 상승하며 주거비의 상승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줌(손낙구, 2008).

- 주거비의 급증과 더불어 주택 소유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16.5%가 전체 주택의 60%를 점유하고 있음에 비해, 무주택 가구는 50.3%에 다르고 있음(손낙구, 2008). 이러한 상황적 맥락을 배경으로 주거 빈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주거 빈곤은 ‘적절한 주거비 부담(affordable housing), 적절한 주거생활(decent housing)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임세희, 2010). 즉, 주거의 물리적 조건이 사회적 기준에 맞는 적절한 주거(decent housing)가 아니거나 주거비용을 적절하게 유지(housing affordability)하기 어려울 때 주거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주거 빈곤은 주택소요를 통해 파악하기도 함(하성규, 2007). 주택소요란 일정기준 이하의 주거 수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택의 양과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주거기준(housing minimum standard)이 필요하고, 이 최저기준은 해당 국가의 주거문화와 생활양식, 경제적 부담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주택재고의 질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기준, 사회적 기준, 경제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주거 빈곤계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이태진 외, 2010). 우선 주거 위גיע층은 임대료 체납, 가족해체, 철거, 사택 거주 근로자의 해고 등으로 주거를 상실(퇴거)할 위기에 처한 자를 의미함. 주거 불안계층은 기준미달의 과밀한 주택이나 비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자를 지칭함. 마지막으로 주거 상실계층은 공원, 역사, 만화방, PC방, 찜질방 등에서 기거하는 노숙자를 의미함.
- 최근 주거 빈곤 계층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주거 빈곤층을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주거 빈곤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대 효과를 놓쳤다는 한계가 있음.

- 주거 빈곤의 세대 효과 중에서 강조되는 지점 중 하나가 불안정한 주거환경 및 주거 빈곤이 청년 세대에게 주는 영향에 관한 것임(안선영 외, 2010). 주거 빈곤이 청년 세대에게 미치는 첫 번째 파급효과는 청년 세대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증가하였음. 주거비 상승은 결혼비용의 증가를 가져왔고 따라서 청년층은 결혼시기를 늦추고, 이에 따라 출산을 역시 낮아지고 있음. 이처럼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정성은 이들이 갖는 시기적 특성에 의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음.
- 주거 빈곤이 청년 세대에게 미치는 두 번째 파급효과는 서울에서의 높은 주거비가 청년 세대에게 미래의 소득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임. 한국은 모든 도시의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짐. 우선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양질의 직장으로 분류되는 공무원과 대기업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대학 등록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은 수도권 대학 진학에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청년 세대에게 주거의 문제는 일자리 불평등 더 나아가 소득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이대원, 2010).
- 청년 실업과 주거불평등 및 주거 빈곤이 결합하고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20~30대가 규범적인 생애궤도에 진입하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생애주기적 과업에 따른 논의를 봐도 청년기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결혼을 통한 정서적 자립, 내 집 마련을 통한 주거자립이 요구되는 세대로서(정민우·이나영, 2011) 문제는 이들 과업이 상호배타적으로 독립된 과업이 아닌 상호 연결된 순환적 구조 속에 놓여있다는 것임. 실업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자신들의 삶과 거리가 먼 일로 여기며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됨(정민우·이나영, 2011). 따라서, 주거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연기나 기피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사회유지와 발전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주거 빈곤의 실태 및 문제점

(1) 주거 빈곤 청년의 범위 및 실태

- 권지웅·이은진(2013)에 따르면 주거 빈곤 청년은 최저주거기준 미달³⁾가구의 청년, 지하·옥탑거주 청년,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청년으로 분류함.
- 권지웅·이은진(2013)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한 청년(20~29세) 주거 빈곤 규모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1%가 최저주거기준미달 상태에 있으며 전체 인구의 13%가 주거 빈곤인 것으로 나타남. 청년의 경우 그 비중이 높아져, 전체 청년 인구의 약 15%가 주거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거 빈곤층의 약 23%를 차지하는 비율로 주거 빈곤자 10명 중 2.3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남.

표 11 | 주거 빈곤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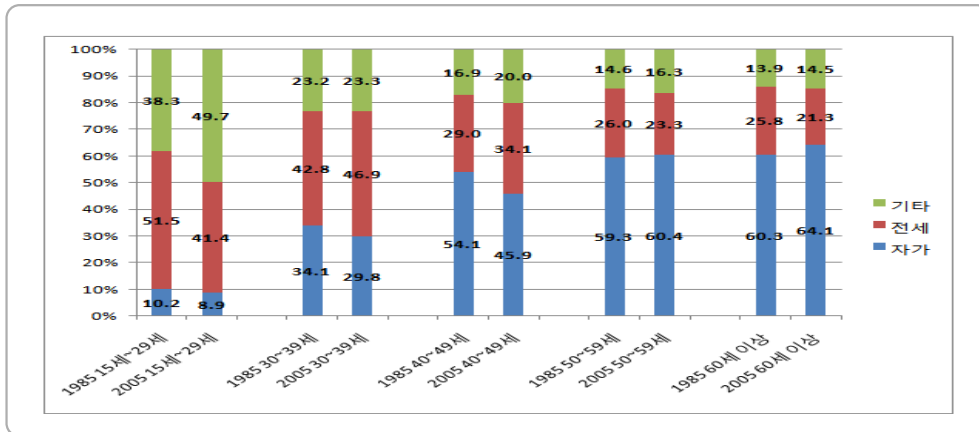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전체인구	청년	1인청년
전국	전체	46,070,318(100%)	9,457,826(100%)	1,189,810(100%)
	최저주거기준미달	4,997,913(10.8%)	1,117,629(11.8%)	183,310(15.4%)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옥탑	5,790,514(12.6%)	1,319,442(14.0%)	239,600(20.1%)
	주택 이외의 거처	207,442(0.5%)	68,478(0.7%)	41,711(3.5%)
	주거 빈곤	5,997,956(13%)	1,387,920(14.7%)	281,311(23.6%)
서울	전체	9,344,608(100%)	2,294,494(100%)	340,817(100%)
	최저주거기준미달	1,367,777(14.6%)	372,747(16.2%)	64,057(18.8%)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옥탑	1,812,022(19.4%)	494,631(21.6%)	100,947(29.6%)
	주택 이외의 거처	59,585(0.6%)	29,238(1.3%)	22,644(6.6%)
	주거 빈곤	1,871,607(20.0%)	523,869(22.8%)	123,591(36.3%)

출처: 권지웅·이은진(2013).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

3)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1인가구의 경우 3평이하,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설비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구조강도, 채과, 난방설비 구비 등이 적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말함 (국토해양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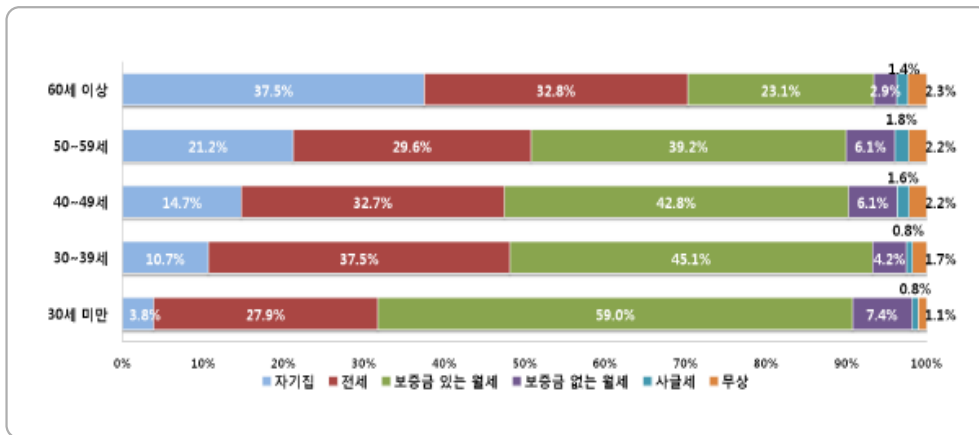
- 주거 빈곤 청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명 중 3.6명이 주거 빈곤자이며, 다음이 경기도로 1인 가구 청년 10명 중 1.4명이 주거 빈곤자로 나타남.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 빈곤 청년들은 대학가와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관악구(36.8%), 광진구(32.3%), 동작구(29.6%)에 집중되어 있는 있음.
- 청년의 주거 환경의 수준이 높지 않고 주거 빈곤에 노출되어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층 인구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주거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그림 8>과 같이 1985년과 2005년의 두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주거형태를 조사한 결과,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주거형태가 점차 불안정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전체 가구주 중에서 자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는 10.2%에서 8.9%로 감소하였으며,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주는 51.5%에서 41.4%로 약10%가 감소함. 이 감소분이 대신 보증부 월세 및 사글세와 같은 불안정한 주택 거주방식의 증가로 채워지고 있음.



출처: 안선영 외(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그림 8 | 서울시 연령별 거주형태 구성(1985~2005)

- 30세 미만의 인구 중에서 1인가구의 비율은 26.7%였음. 서울시 1인가구의 연령별 점유현황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경우 무려 66.4%가 월세 거주자로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수치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음(이동훈, 2012). 이를 통해 월세로 인한 주거비 지출에 부담이 큰 청(소)년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됨.



출처: 이동훈(2012)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 그림 9 ■ 서울시 1인가구의 연령별 점유 현황

-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가 서울 거주지 임대대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청년주거실태조사’(2010)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평균97.7만원)에서 주거비(약43.6만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4.9%였음. 생활비의 약 절반이 주거비로 지출되고 있어 비싼 주거비로 인한 생활 빈곤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특히 1인거주자 156명은 평균 5평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1인거주자의 약 25%가 3평 미만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음.
- 이들 청년들이 대학가 주변 고시원 등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고시원 평당 월세와 서울 아파트 평당 월세를 비교해 보면, 고시원 평당 월세(15만원)가 서울시 일반 아파트 평당 월세(4만 6천원)에 비해 약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남(김서연, 2013). 이것은 20대 청년들이 서울에서 1인 거주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것임.

-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청년주거실태조사(2010)’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주거만족도는 높지 않았음. 특히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물리적 공간 즉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체 종합 만족도에 비해 낮았음.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면, 비싼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과 열악한 물리적 공간에 대한 불편함을 안고 생활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함께,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의 분석에 따르면, 월 임대료 지불 능력에 따라 주거공간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나,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는 임대료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불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서울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은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2) 여성의 높은 주거비 부담구조

- 김재민 외(2012)가 인용한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남성임금의 평균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에 대한 여성임금 평균 비율은 5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임금 근로계층의 경우 그 비율은 70% 정도로 나타남(한국노동연구원, 2010).
- 연령별 임금 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5차년도 데이터를 통해 서울시 근로청소년 직종별 월평균 임금을 분석하였음 <표 12>. 조사된 근로청소년 중 특히 군 입대 연령인 19~24세 이하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낮고 (여성의 약 25%) 월 소득 평균도 여성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25세 미만은 영업판매직, 정보통신직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월 소득은 직종에 따라 평균 105만원에서 168만원까지 분포됨.
 - 여성의 경우 25세 미만은 사무직, 영업 및 판매직, 보건 의료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월 소득은 직종에 따라 평균 112만원에서 154만원 선인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월 평균 소득에 있어서는, 남성이 121만원으로 여성 130만원에 비해 낮았음.

-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변화함. 25세~30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남성의 전체 월 평균 임금이 121만원에서 226만원으로 급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130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증가는 하였지만 그 폭이 남성에 비해 낮음. 이에 따라 월 평균 임금으로 봤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1만원 가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생애주기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른 시기에 취업한다고 봤을 때, 이들의 근로 경력을 고려해 본다면 월 평균 임금에 대한 상대적 격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20대 초반 몇 년간 여성의 월 소득이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2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벌어져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득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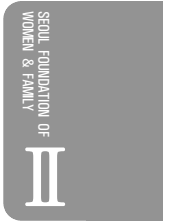


표 12 서울시 연령, 성별 구분에 따른 직종의 월 평균 임금

(단위: 명, 만원)

연령 구분	성별	구분	경영, 회계, 사무직	교육 및 연구직	보건, 의료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직	영업 및 판매직	정보 통신직	기타
19~24세	남성	N (%)	2 (6.7)	0 (0.0)	0 (0.0)	0 (0.0)	3 (20.0)	4 (57.1)	8 (32.0)
		월소득 (SD)	105.0 (49.5)	0 (0.0)	0 (0.0)	0 (0.0)	113.3 (55.1)	168.8 (31.9)	104.4 (45.3)
	여성	N (%)	25 (93.3)	3 (100.0)	12 (100.0)	5 (100.0)	12 (80.0)	3 (42.9)	16 (68.0)
		월소득 (SD)	142.4 (36.2)	118.9 (44.0)	154.6 (66.9)	140.3 (29.2)	112.2 (44.1)	115.6 (25.5)	126.4 (39.1)
	총계	N (%)	27 (100.0)	3 (100.0)	12 (100.0)	5 (100.0)	15 (100.0)	7 (100.0)	24 (100.0)
		월소득 (SD)	139.7 (37.5)	118.9 (44.0)	154.6 (66.9)	140.3 (29.2)	112.4 (44.3)	163.1 (27.8)	119.1 (41.6)
25~30세	남성	N (%)	45 (40.9)	3 (10.0)	1 (5.0)	5 (27.8)	31 (73.8)	16 (66.7)	59 (59.0)
		월소득 (SD)	228.0 (71.8)	261.1 (67.4)	220.0 (62.0)	228.5 (88.2)	206.2 (68.3)	221.6 (80.8)	220.2 (62.8)
	여성	N (%)	65 (59.1)	27 (90.0)	19 (95.0)	13 (72.2)	11 (26.2)	8 (33.3)	41 (41.0)
		월소득 (SD)	196.1 (83.6)	166.6 (83.7)	251.0 (67.8)	191.2 (57.3)	184.5 (119.0)	240.1 (61.7)	182.3 (63.9)
	총계	N (%)	110 (100.0)	30 (100.0)	20 (100.0)	18 (100.0)	42 (100.0)	24 (100.0)	100 (100.0)
		월소득 (SD)	209.2 (80.2)	176.1 (86.2)	249.5 (66.4)	201.6 (66.6)	200.5 (83.4)	227.8 (74.1)	204.8 (65.7)

- 총 직종 비중 25개미만 사례를 가진 직종은 기타에 포함시킴
 - 19~30세의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연봉, 주당, 일당, 시간당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함
연봉/12개월
 - 주당소득×4.3주
 - 일당×(정규근로일수+초과근로일수)×4.3주
 - 시간당소득×(정규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4.3주
- 자료: 5차년도(2011년)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10년에 전국 7개 도시 만 18세~33세 청년층 여성 1,317명을 대상으로 구직자와 취업자의 주거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자의 2명 중 1명은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여성이었음. 취업자의 45%가 한 달 월급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50% 내외라고 응답하였고, 구직자의 22%가 한 달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여성들의 주거 독립에 따른 주거비 압박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들 여성의 주거지 형태를 보면, 다세대주택/빌라가 각각 34.6%, 3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원룸 형태에서 살고 있음.
 - 100만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여성 가운데 약 13%가 주거비로 인해 빚을 지고 있다고 응답했음.
 - 낮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로 인해 저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월 평균 100만 원정도의 취업자 중 저축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36.4%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0명 중 3명만이 30만원 이하의 월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나은 주거지로 옮겨 갈 수 있는 준비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청년층 여성에 있어 월 소득에서 주거비가 높게 차지하는 것은 주거지를 선택할 시 치안이 중요한 고려요인이기 때문임(김재민 외, 2012;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2012).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평균 가격이 40만 원대에 비싼 임대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됨(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2010).
 - 거주지 선택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안전 및 치안'. 남성의 경우 0.5%, 여성의 경우 6.7%가 거주지 선택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은 치안에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덜 두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안전한 주택에 살기 위해 일정부분 추가 비용을 더 내고 살고 있는 실정. 치안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방범창이나 문 안전장치 등의 기본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치안에 필요한 방범시설들이 추가가격으로 매겨져 거래되고 있는 실정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안전한 주택에 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실제로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 Income Ratio)을 통해 성별 주거비 부담 수준을 살펴보면 <표 13>와 같음. 19세~24세 남성의 (36.0%) 주거비 부담이 여성 (32.5%)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5세~30세로 올라가면 여성(22.3%)의 주거비부담이 남성(19.2%)보다 더 높음. 전체 19세~30세를 합쳐 보더라도 같은 경향을 나타냄. 연령이 낮을수록 RIR 비율이 높아져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임대가구 청소년 10명 중 3~4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지에 살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대 초반의 임대 청소년일수록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으며, 성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보다 여성의 주거비 부담 정도가 높음. 더불어 여성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안전에 따른 추가 주거비용 부담의 가능성이 커 주거비용에 대한 이중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실정임.

【표 13】 성별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수준 (추정치)

(단위: 천원, %)

	19~24세		25~30세		19~30세	
	남성 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월평균소득	1,212	1,340	2,260	1,952	1,736	1,646
RIR	36.0	32.5	19.2	22.3	25.1	26.5

- RIR(Rent to Income Ratio):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수준, 임대료/소득
- 임대료: 대학생주거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청년주거실태조사’ 결과 평균 임대료 436,000원 적용
- 월평균소득: <표 21>에서 제시한 5차년도 청년패널조사 결과 직종별 월 소득의 평균 값 적용
- 자료: 5차년도(2011년)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대학생주거네트워크(2010). 청년주거실태조사

4) 이 연령대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RIR이 높게 나타나나, 남성의 군 임대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실제 노동시장에 참여 가능한 남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 평균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임금수준이 높은 점과 25세 이후 남성의 RIR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여성의 주거비부담이 남성보다 낮다고 보기 어려움.

3) 청소년 주거 지원 정책 현황 및 한계

- 현재 서울시 주거정책의 큰 흐름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첫째, 다양한 임대주택 및 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고 둘째,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 마을의 조성과 셋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형태로 나타남(Haudreport, 2012).
- 지난 50년간 서울의 주거지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이 주 기조를 이뤄져 왔으나, 최근 핵가족화의 심화와 저출산, 청년실업의 장기화, 미혼가구의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주택 철거 및 재개발을 통한 공급정책에서 주거지의 다양성과 조화를 통해 거주민을 배려하는 점진적 주거지 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로 주거 약자를 배려하고 임대주택 사업의 기능 강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개념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Haudreport, 2012).

(1)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현황

-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에 나타난 청소년 주거 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았음.
- 서울시는 '원순씨의 희망동지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와 같은 기존 임대주택의 유형을 유지하면서, 청년층과 독신여성을 위한 공공원룸주택과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을 신규 유형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을 위한 거주지원이라는 등식을 깨고 인구특성에 따른 욕구에 기반해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 하려는 추세임.

【 표 14 】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하는 신규 임대주택 유형

임대유형	대상	내용
공공원룸주택	청년층·독신여성	-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소형 임대주택 - 민간 원룸주택 매입추진
공공기숙사	대학생	- 유수지에 공공기숙사, 독서실, 체육시설 등 포함한 형태로 개발 - 구의 유수지 등 서울시내 33곳 우선 추진
협동조합주택	일반	- 임차인이 주택협동조합구성 - 주민자치로 관리 - 가양동 1494-3일대 시범지구 선정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구	- 서울시가 민간주택전세계약 체결 - 무주택 서민에 재임대

자료: Haudreport(2012). 「서울시 주거정책의 변화와 전망」 내용 재구성

- 공공원룸주택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으로 사회취약계층이면서 1인 가구 또는 독신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던 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짐 (Haudreport, 2012).
 - 공공원룸주택 형식으로 여성전용안심 임대주택이 개발됨. 여성전용안심 주택은 최근 45만 싱글 여성을 위해 계획되고 있는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5) 중 주거지원의 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주 공급대상은 서울시 거주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1인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임.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탄력 있게 제도화 하고 있음.
 - 일부 공공원룸주택을 조립식 건축부재를 사용하는 ‘모듈러(moduler)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건축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절약되며 자원을

5) 2012년 9월에 발표한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여 2015년까지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총 2천호 공급함. 2012년 8월 여대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168실,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주택 75세대를 신규 분양하였고, 추후 송파 문정동, 마포 연남동, 양천 신정동 등 연차별 확대 추진. 2012년 구로구 천왕 도시개발지구내 80세대를 추진하여 노후한 공공청사 등을 여성전용 안심 복합건물로 재건축(1~2층 공공기관, 3층 이상, 여성전용 임대주택).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임대주택 개발방법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것이 장점임.

- 서울시 공공원룸주택 공급 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원룸/다가구·다세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해 외곽의 특정지역에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집중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
 -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배제 방지, 거주권과 생활권의 보장을 위해 소셜믹스(social mix)를 계획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함.
 - 다가구·다세대·원룸 등 매입주택의 경우는 금년 2,694호에서 추가로 2014년까지 9,488호를 서울시 25개의 자치구에 골고루 공급하기로 함.
 - 지역주민과 입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함.
 - 새로 짓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저감형 주택’으로 설계하여 주거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기여함.
 -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공공원룸주택은 청년층과 여성 독신가구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주요 공급 연령층은 20~4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공공원룸주택의 정책대상은 청장년층을 포함하고 있음.
-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택정책은 1986년도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종합계획’따라 총 1,160억 2,000만원을 들여 83개 지역에 8,35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 사례가 있음. 이 중 820세대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로 여성노동자들에게 공급되었음. 당시 수출 증대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 대단위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근로청소년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것임(이대원, 2010).
 - 서울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아파트는 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 전용 아파트는 2군데로 광명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와 시립 중랑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고, 노동부 소속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구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가 있음. 전국적으로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는 6군데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중 거주자 제한을 청소년으로 제한하는 곳은 광명 임대아파트와 중랑 임대아파트 두 곳임(김재민 외, 2012).

【 표 15 】 서울시 근로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기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시립 중랑 청소년임대아파트
기본조건	만 26세 이하 미혼근로여성 (서울소재사업체)	만 26세 이하 미혼 근로여성
학력제한	대졸 이하(대학원 졸업자 제외)	대학교 졸업 이하
급여기준	월 150만원 이하	월 150만원 이하
연장조건	1회 2년 연장가능 (총4년 거주가능)	1회 2년 연장가능 (총4년 거주가능)
운영주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크기/입주인원	13평/15평 (2인1실)	16평 (2인1실)
입주인원	450세대, 900명	143세대, 286명
보증금/임대료	1,529,000원/ 58,000원(15평기준)	1,186,000/ 48,000원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2012) 내 임대아파트 내부자료
김재민 외(2012). “여성이 안전한 공공원룸주택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위의 두 아파트들은 1980년대 후반과 90년도 초반에 준공된 곳들로 서울로 상경한 일하는 비혼 여성근로자들을 상대로 주거안정 개선을 위해 제공되기 시작한 것임. 최근에 계획되고 있는 공공원룸주택의 거주조건과 비교해보면, 거주 가능 연령 및 거주기간에 대해 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주거 수요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의 한계

- 이를 종합해 주거지원정책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수에 비해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의 수가 매우 적어 수급률(take-up rate)이 낮은 문제가 존재함(권지웅·이은진, 2013). 다가구·다세대·원룸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약 2,700호, 희망하우징 816호,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593호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 주거 빈곤층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특히 미혼 또는 독신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재 두 곳에서만 임대아파트가 운영되고 있어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둘째, 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대한 법률 등에서 노인, 장애

인, 저소득층 등은 주거약자로 규정되어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청년이 경험하는 주거 빈곤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활발하지 않음. 청년층을 저소득계층으로 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대상자에 청년층 역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이들 정책은 지금까지 대부분 기혼자들을 위한 것이라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층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정책이 매우 소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아직까지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수준임.

- 셋째, 청년세대 주거지원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함.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게 접근 가능한 물리적 주거공간을 공급함과 동시에, 주거공동체 내에서 공용공간으로서 공공성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 촉진을 위한 대안의 적극적인 수용이 요구되어 짐. 서울시 공공원룸주택 공급에 따른 기본방향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나, 청년계층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이 마련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정책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이한솔, 2013). 첫째, 정책 확대 과정에서 청년 임대 아파트 단지 등 같은 주거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이 공유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네트워크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청년들에게 집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다시 말해 주거비가 해결된다는 것은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셋째, 청년지원정책과 주거 지원 정책에서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청년주거 지원정책의 확대는 그 자체만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의 상징이 될 수 있음.

III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 및 기능 적합성 검토

제1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적합성 검토 논의배경

제2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 적절성 검토

제3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기능 적절성 검토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 및 기능 적합성 검토

제1절 시립근로청소년 복지관 적합성 검토 논의배경

1. 서울시 근로청소년 현황

-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2010년을 기준으로 1,046만명으로 전체 총 인구의 21%를 차지함. 청소년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여성가족부(2013)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에는 청소년 인구비중이 2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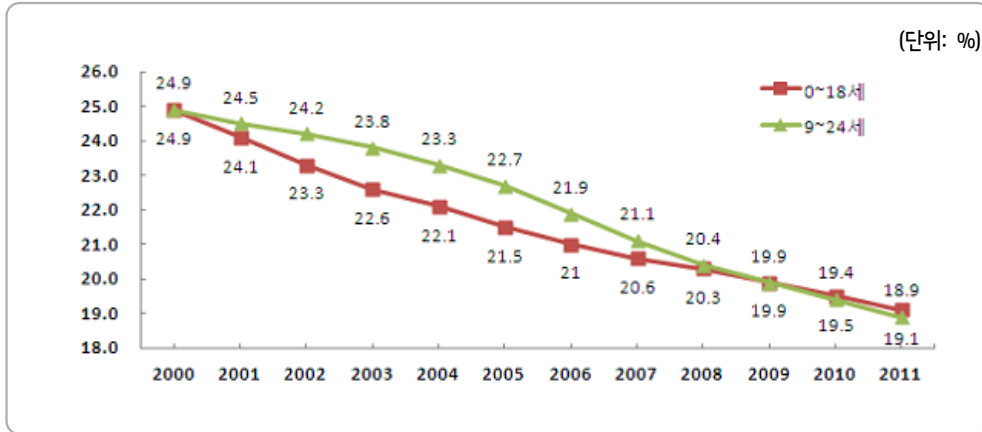
표 16 총인구와 청소년(9~24세)인구

(단위: 명, %)

연도	총인구	연평균성장률	청소년인구	구성비	연평균성장률
2000	47,008,111	.84	11,501,436	24.5	-2.04
2005	48,138,077	.48	11,027,943	22.9	-.84
2010	49,410,366	.52	10,464,647	21.2	-1.04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청소년백서

- 서울지역 2010년 기준 청소년(9~24세)인구는 1,951천명으로 전체 서울 인구의 19.4%를 차지함. <그림 10>과 같이 서울지역 청소년 인구 구성비는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음.



출처: 경인지방통계청(2011). 2011 서울지역 청소년 통계

【그림 10】 서울지역 청소년 인구 추이

- 우리나라 청소년(15세 이상~24세 이하) 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1,535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자 중 약 25.5%를 차지해 2005년에 비해 약 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20.6%)들의 군 입대 등으로 인해 여자 청소년(30.1%)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남.

【표 17】 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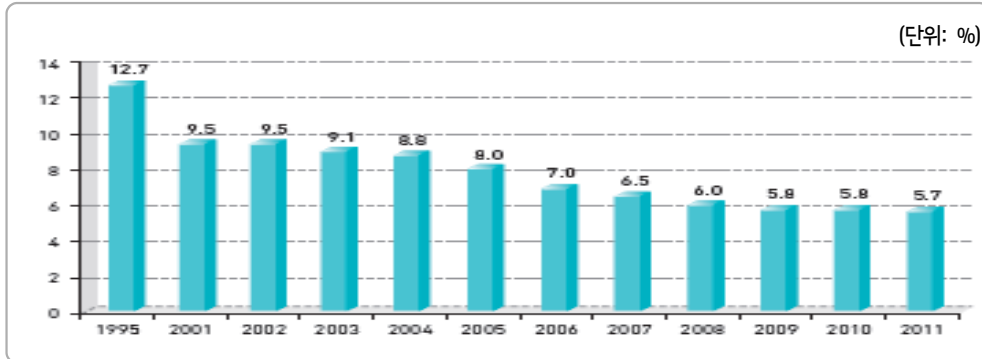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 분	2005년	2010년	2011년
경제활동인구	2,034	1,525	1,535
경제활동참가율	33.3	25.5	25.5
남자	26.7	20.2	20.6
여자	39.0	30.4	30.1

경제활동인구는 청소년 15-24세, 현역군인 제외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 청소년백서

- 2011년 전체 취업자 2,424만명 중 청소년 취업자는 137만 7천명으로 약 5.7%를 차지해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 청소년백서

■ 그림 11 ■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2년 서울지역 일반청소년 대비 근로청소년의 비중은 연령대 별로 다르게 나타남. 16~20세 사이에는 근로청소년 비중이 약 13%이던 것이 20~25세 사이에는 약 52%로 증가됨. 성별로는 20세 전 일반청소년 대비 근로청소년의 비중이 여성(11.2%)보다 남성(14%)이 높으나, 20세에서 25세 사이에는 여성(57.2%)이 남성(43.6%)보다 높음.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지며, 남성의 군 입대 시기라는 시기적 특성에 따라 여성청소년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표 18 ■ 서울시 일반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비중

(단위: 명, %)

연령 구분	구분	일반청소년		근로청소년		일반청소년 대비 근로청소년의 비중 (%)
		N	%	N	%	
16~20세	남성	976	52.7	137	58.3	14.0
	여성	876	47.3	98	41.7	11.2
	총계	1,852	100.0	235	100.0	12.7
20~25세	남성	752	41.4	328	35.0	43.6
	여성	1,066	58.6	610	65.0	57.2
	총계	1,818	100.0	938	65.0	51.6

주) 근로청소년은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정규교육기관 통학, 연로,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라 응답한 사례를 제외한 16~25세 이하 청소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2). 2012년 3분기 지역별고용조사

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및 여성임대아파트 적합성 검토 논의배경

-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 청소년의 인구 비중이 감소함과 동시에 전체 취업자 가운데 청소년 취업자 비율 또한 감소추세에 있음. 또한 고용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이 증가함. 이와 동시에 수도권에 높은 주거비용은 이들 청소년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고시원과 같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처해지면서, 결혼과 출산 등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들게 됨. 이는 미래 질 높은 인적자본의 육성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점임.
- 설립당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서울시 구로공단의 영세사업장 내 여성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정 및 근로청소년의 복지후생과 전인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서울시가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연계 운영하는 특화시설임.
- 현재 시립근로청소년의 운영목적은 다음과 같음. “근로청소년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을 통한 개인의 자아개발과 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 인성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문화감성교육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기관 운영자료).
- 현시점에서 복지관이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시행한 「서울시 청소년시설 평가」에서 복지관에 대한 평가 결과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2 시립청소년시설 사업 평가 결과보고서」중 전문가 평가 -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설립목적에 기초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다소 떨어져짐”, “기관의 설립목적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김민경·황영은, 2012, pp. 89). 따라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가 서울시

청소년들의 일과 주거복지에 있어 특화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임.

-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위치가 경기도 광명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설립당시 계획과 달리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임대아파트 포함)의 지리적 위치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청소년들의 원거리 이동이라는 지리적 접근의 한계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로 기능하면서 서울예산의 누수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는 끊임없이 서울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서울시 특화기관으로 그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위치와 기능 적합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함.

제2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 적합성 검토

○ 본 절에서는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 적절성을 이용 접근성과 지리적 적합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이용 접근성은 복지관이 이용자가 접근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해 복지관 이용자의 거주지 및 유형 분포, 거주지와 복지관 간의 거리 및 이용비용을 분석함. 지리적 적합성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과연 현재의 위치가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해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내 시립 시설들 간의 운영여건을 비교분석함.

1. 이용 접근성

1) 이용자의 거주지 및 유형 분포

○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인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서울 시민의 이용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기 위해 복지관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 현황을 분석함. 분석결과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하는 총 이용자 중 서울 시민 이용자는 57%에 불과해,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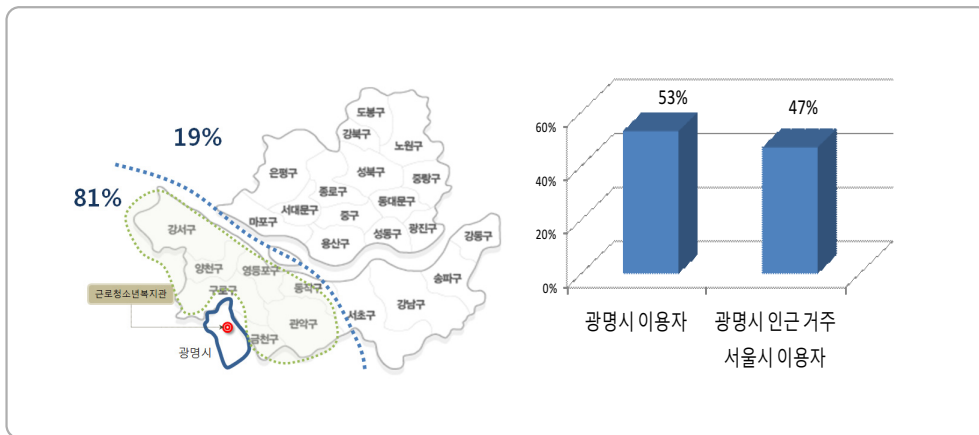
【 표 19 】 복지관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비율)
서울 거주	광명시 인접 서울지역 거주자	1,762 (39.3)
	구로구	580
	금천구	670
	관악구/영등포구	415
	강서구/동작구	97
	기타 서울지역 거주지	798 (17.8)
	소 계	2,560 (57.1)
경기도 거주	광명시 거주자	1,870 (41.7)
	기타 경기도지역 거주자	55 (1.2)
	소 계	1,925 (42.9)
총 계		4,485 (100.0)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 분석(복지관 내부 자료)

- 주 이용자는 복지관이 소재한 광명시민과 광명시 인근 서울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에 거주한 서울 시민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총 이용자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주 이용자를 다시 지역별로 구분하면, 여전히 광명시민이 53%로 광명시 인근 거주 서울 시민(47%)보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 분석(복지관 내부 자료)

【그림 12】 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자 거주지 분포 현황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총예산 약 40억원인 가운데 17억원이 서울시 지원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약 7.3억 정도의 서울시 예산이 경기도로 누수 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 위치에서의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서울시민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를 벗어나 예산을 비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인한 서울 시민의 이용 제약이라는 비판, 서울시 특화시설로서의 한계를 노정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움.
-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연령별 이용자 유형의 이용 접근성을 보고자 복지관 이용자의 연령 분포를 분석함. 분석결과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 중 성인 이용자가 53.4%로 가장 많으며, 청소년(9~24세) 이용자는 4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특화시설로서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결과를 나타냄.

【 표 20 】 복지관 이용자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비율)
8세 이하	59 (1.3)
9~14세	644 (14.4)
15~24세	1,389 (30.9)
25~34세	583 (13.0)
35~44세	693 (15.5)
45~54세	699 (15.6)
55세 이상	418 (9.3)
총 계	4,485 (100.0)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 분석(복지관 내부 자료)

- 특히 서울시 청소년 이용자의 비중은 총 이용자 중 3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즉, 서울시 거주 청소년 이용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7명은 경기도민과 서울시 거주 유아·성인임을 의미함. 서울시 청소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소년의 이용 접근성이 낮음을 알 수 있음.

【 표 21 】 연령별·거주지별 이용자 분포

(단위: 명, %)

	서울	경기도
청소년 (9~24세)	1,444 (32.2)	589 (13.1)
성인 및 유아 (8세 이하 및 25세 이상)	1,116 (24.9)	1,336 (29.8)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 분석(복지관 내부 자료)

- 근로청소년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근로청소년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 중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관이 근로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에 한계를 안고 있음을 드러냄. 특히 서울시 근로청소년은 전체 이용자의 2.2%에 불과함. 복지관을 이용하는 근로청소년의 경우 서울 거주보다는 경기

도 거주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 거주 근로청소년 이용자도 대부분 임대아파트 입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음(488명 중 431명). 현재 근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심리검사 및 상담, 교육문화 및 체력단련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직장 혹은 거주지 간의 거리가 먼 서울시 근로청소년의 이용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표 22 】 대상별·거주지별 복지관 이용자 분포

(단위: 명, %)

구 분	서울 거주	경기도 거주	총 계
성인 및 유아	1,030 (23.0)	999 (22.3)	2,029 (45.2)
일반청소년	1,429 (31.9)	438 (9.8)	1,867 (41.6)
근로청소년	100 (2.2)	488 (10.9)	588 (13.2)
총 계	2,559 (57.1)	1,925 (42.9)	4,484 (100.0)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 분석(복지관 내부 자료)

- 서울시 근로청소년의 분포를 보면 주로 서울시 외곽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청소년의 분포를 고려할 때, 복지관은 서울시 남서부에 위치한 근로청소년에게는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한편, 근로청소년의 특성상 주중 저녁 혹은 주말 외에는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광명시 인근 외 지역의 근로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이용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표 23 】 근로청소년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

(단위: 명, %)

구 분	서울 거주					경기도 거주		총 계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기타 서울	광명시	기타 경기도	
성인 및 유아	399 (19.7)	387 (19.1)	144 (7.1)	67 (3.3)	29 (1.4)	954 (47.1)	45 (2.2)	2,029 (100.0)
일반 청소년	111 (5.9)	258 (13.8)	265 (14.2)	122 (6.6)	673 (36.0)	428 (22.9)	10 (.5)	1,867 (100.0)
근로 청소년	70 (11.9)	24 (4.1)	6 (1.0)	0 (.0)	0 (.0)	488 (83.0)	0 (.0)	588 (100.0)
총 계	580 (12.9)	669 (14.9)	415 (9.3)	189 (4.2)	702 (15.7)	1,870 (41.7)	55 (1.2)	4,484 (100.0)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 분석(복지관 내부 자료)

2) 거주지와 복지관 간의 거리 및 이용비용

-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역시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들어내고 있음. 최근 복지관이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
- 학교연계 프로그램은 복지관 인력이 학교로 파견되는 학교방문 프로그램과 연수시설을 활용해 학생들이 단체로 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복지관 방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관들과 복지관 간의 거리 평균을 분석한 결과, 평균 16.2km로 나타남. 이는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평균 33.3분 소요되고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거리임. 대부분의 참가기관이 중고등학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학교들이 단체 버스를 이용한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비용 및 안전상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또한 원거리 이동의 부담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 수련시설과 달리 청소년의 개별적, 자발적 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복지관 이용자 분석 결과, 서울시 거주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의 비중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재학 청소년의 복지관 이용에 제약이 큼.

【 표 24 】 학교연계 프로그램 이용학교와 복지관 간 이동거리

(단위: 개소, km, 분)

구 분	기관 수 (개소)	복지관과의 평균 거리(km)	거리		평균 이동시간(분)	시간(분)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학교 방문	29	15	3.31	37.97	33.2분 소요	13	64
복지관 방문	80	16.2	.735	99.12	33.3분 소요	2	107

주) 이동시간은 자동차 이용 기준(네이버 지도검색 활용 분석)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 분석(복지관 내부 자료)

【 표 25 】 복지관 이용 청소년의 학교 재학 여부

(단위: 명)

구 분		빈도(비율)
서울 거주	학교재학	1,338 (92.7)
	학교비재학	106 (7.3)
경기도 거주	학교재학	334 (56.7)
	학교비재학	255 (43.3)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 분석(복지관 내부 자료)

2. 지리적 적합성

- 위치에 따른 운영여건 비교분석을 통해 지리적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함. 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서울시내에 위치하면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시립 청소년 시설 간의 운영여건을 비교한 결과, 광명시 위치가 서울시내 위치보다 운영상 유리하다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아래 표는 근로청소년 인구밀도가 큰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노원, 은평), 임대아파트를 보유한 청소년 수련관(중랑),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체험 특화시설(영등포)과 근로청소년복지관 간의 공시지가 및 건물면적 대비 예산을 비교한 결과임.

○ 분석결과 광명시의 공시지가가 서울시내 비교지역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높고, 건물의 단위면적 당 예산 역시 최근 준공된 은평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는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지가가 비싼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운영상의 이점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근로청소년의 분포가 서울 외곽에 집중해 있고 외곽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수요와 지가를 고려한 서울로의 위치 이전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할 수 있음.

【 표 26 】 근로청소년복지관 및 서울시내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간의 운영여건 비교

	시립노원 청소년수련관	시립중랑 청소년수련관	시립은평 청소년수련관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시립근로 청소년복지관
소재지	노원구 상계동 772	중랑구 면목4동 1382-10	은평구 응암동 산 6-46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광명시 하안동 740
시설현황	지하2층, 지상6층	지하2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도	1997년	1983년	2003년	1999년	1982년
건물면적	8,215m ²	7,976.74m ²	4,963m ²	5,316m ²	5,270m ²
공시지가 ²⁾ (상대적공시지가 ³⁾)	1,200,000/m ² (47.1)	1,760,000/m ² (69.0)	1,490,000/m ² (58.4)	3,080,000/m ² (120.8)	2,550,000/m ² (100)
예산 (2013년)	4,404,889천원	2,652,391천원	4,300,000천원	3,837,814천원	3,928,900천원
건물면적 대비 예산	536.2천원	332.5천원	866.4천원	721.9천원	745.5천원

주1) 근로청소년 인구밀도가 큰 지역(노원, 은평), 임대아파트 보유 지역(중랑), 유사기능 수행 특화시설 운영지역(영등포)과의 비교

주2) 공시지가는 2013년 5월 31일 기준

주3) 근로청소년복지관 공시지가(100) 기준 상대적 공시지가

자료: 근로청소년복지관 내부자료, 2012년 시립시설·특화시설 인센티브자료 조사서, 2013년 서울시 청소년정책 종합계획,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2013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 2014년 상반기에 광명시 소하동(근로청소년복지관으로부터 버스정류장 10개, 20분 이동 거리 내)에 광명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예정인 가운데, 기능 중복 및 시설 낙후 문제로 근로청소년복지관은 광명 청소년수련관에 비해 이용자 경

쟁에서 열위가 예측되며 장기적으로 근로복지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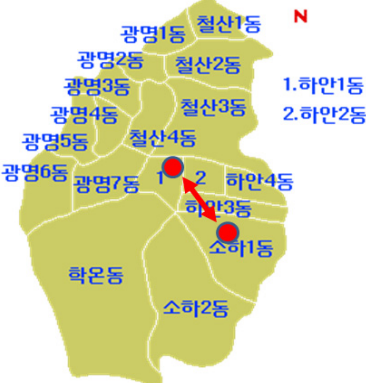
광명 청소년 수련관 개요	광명 청소년 수련관과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광명시 소하동 한내근린공원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관으로부터 2.96km 떨어진 곳에 위치 ※ 자동차로 11분, 대중교통으로 24분 소요 (네이버 지도 기준) - 시설: 지하1층, 지상4층, 총 710명 수용 규모 - 건립비: 161억 5,800만원 (국비 42억, 도비 5.4억, 시비 114.2억) 	



그림 13 | 광명청소년수련관 개요 및 위치

3. 소결

- 이상의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복지관 이용자의 거주지를 살펴본 결과 광명시민과 광명시 인근 서울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이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광명시와 서울시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광명시민이 53%로 광명시 인근 거주 서울 시민(47%)보다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특화시설인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이용연령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8세 이하 1.3%, 9~24세 45.4%, 25세 이상: 53.4%), 특히 기대했던 청소년보다는 성인 및 유아 이용 비율이 높았음. 이는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성인, 일반청소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성이 큼. 또한 복지관의 주요 대상인 근로청소년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 중 13.2%에 불과하며, 특히 광명시와 서울시 두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 보면 광명시 거주 이용자 중 근로청소년은 25.4%(전체 이용자 중 10.9%)인데 비해 서울시 거주 이용자 중 근로청소년은 3.9%(전체 이용자 중 2.2%)로 매우 낮은 상황임. 서울시 거주 근로청소년 생활환경(직장, 거주지)과 근로청소년복지관의 거리가 멀어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최근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시도하고 있음. 복지관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관들과 복지관 간의 거리는 평균 16.2km로 나타남. 이는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평균 33.3분 소요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거리로, 참가기관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인 점을 감안할 때 단체 버스 등을 이용한 원거리 이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 청소년의 개별적, 자발적 이용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서울시 거주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비중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지가가 비싼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운영상의 이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됨. 또한 광명시내 청소년수련관 신설은 근로청소년복지관 운영의 안정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상과 같은 서울 시민·서울시 청소년·근로청소년의 이용률 저조, 광명시 위치의 우위성 입증 한계, 광명시내 청소년수련관 신설에 따른 근로복지관 운영의 안정성 위협 등의 문제들은 모두 근로청소년복지관의 현 위치가 위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며 이용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가한다는 근거로 볼 수 있음. 이에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를 서울시립 특화시설에 맞게 광명시가 아닌 서울시내로 이전하여, 서울시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유관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며 장기적 차원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기능 적합성 검토

- 본 절에서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의 현재 기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시대적 욕구에 부합하는 기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복지관의 기능 적합성을 분석함. 이를 위해 시대별 복지관 주요 사업 및 특징의 변화, 현재 복지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복지관의 설립 취지와 현 시대의 욕구에 부합하는지를 보고자 함. 이와 더불어 복지관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들의 고용지원 욕구를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1. 근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부합성

- 1982년 개관된 이래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주요 사업내용들의 변화가 있어 왔음. 1980년대에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바람직한 국가관과 역사의식 확립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비롯해 교양교육과 문화 사업이 주요 사업내용이었음. 즉, 근로청소년복지관이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개관된 만큼, 과거에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기관, 여가선용기관, 사회체육시설로서의 기능해왔음.
-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구로공단의 산업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존의 제조업 공장 근로자 중심의 근로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복지관을 지역주민이라는 새로운 대상층을 발굴하게 되고 이들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과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강화됨.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관 사업의 대상을 일반청소년으로 넓혀, 학교연계사업(주로 진로·인성교육프로그램), 교육문화사업 등과 같은 재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었고, 근로청소년 사업은 주로 교양강좌나 자격증 교실, 상담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표 27 】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주요 사업 및 특성 변화

구분	주요 사업	특성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사업 (기본연수, 지도자연수) · 활동지도사업 (소집단활동, 지도자관리) · 문화사업 (교양·예정교육, 취미교육) · 조사연구사업, 상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청소년 공동체 의식 함양 · 협조적 노사관계 구현 · 교양교육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사업, 교양·취미사업 · 지역사회프로그램 (주부취미교실 등) · 후생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회원관리 · 지역사회 프로그램 제공 · 아파트 입주자관리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문화사업 · 생활체육사업 · 가산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장 운영 · 가산문화센터 (문화·어학교실)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문화사업 (청소년인성·경제교육) · 특성화사업 (장애청소년 취업교육) · 생활체육사업, 상담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장애 청소년사업 · 청소년 수련활동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사업(학교연계사업, 입주자활동, 특별활동) · 특별사업(장애청소년 자립·진학) ·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 상담지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청소년 학교연계사업 · 입주자 프로그램 · 청소년 수련활동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2012). 근로청소년복지관 종합발전 계획보고서 (복지관 내부자료)

○ 2013년 6월 이용자 자료를 통해 복지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근로청소년복지관은 근로청소년 복지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일반 청소년 및 성인(지역주민) 대상의 수련시설, 상담시설, 주민센터, 문화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복지관은 재학 청소년 대상 학교연계사업(인성·진로·경제교육 등), 성인 대상 취미교실(상설강좌)·체력단련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근로청소년에 대해서는 취미교실(일부 자격증 교실) 및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음.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은 학교연계사업에서 다뤄지는 가운데 주로 일반청소년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음. 근로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상담관련 사업으로 복지관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보람채) 입주자들이 이용한 1회성 상담이었음(상담사업의 74%).

- 근로청소년복지관이라고는 하나 근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비중이 매우 적고, 현재 복지관에서 하는 일반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은 큰 차별성 없이 서울시내 청소년 수련관, 상담지원센터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서비스 중복의 문제를 안고 있음. 지역사회 주민과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문화, 생활체육 등의 사업 역시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서비스가 중복되어, 서울 시민, 서울시 청소년, 근로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원거리 복지관 이용보다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시설 이용 선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청소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및 유아프로그램이 많아 복지관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는 문제 역시 간과하기 어려움.
- 무엇보다 현재 근로청소년복지관 사업의 변화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주요 타겟 대상이어야 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의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임. 근로청소년이 인근에서 사라지면서 사업대상과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시대 배경과 조직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근로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일부의 교육문화사업과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상 상담지도사업에 국한하여 제공함으로써 복지관의 정체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표 28 】 이용자 유형별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현황

(단위: 명, %)

사업유형	성인/유아	일반청소년	근로청소년	총 계
학교연계사업	0(0)	1,022(54.7)	0(0)	1,022(22.7)
입주자활동	1(0)	0(0)	0(0)	1(0)
특별활동	0(0)	16(9)	0(0)	16(4)
상설강좌	1,390(68.5)	98(5.2)	152(25.9)	1,640(36.6)
교양문화	26(1.4)	0(0)	0(0)	26(6)
체력단련	447(22.0)	36(1.9)	0(0)	483(10.8)
상담일반	89(4.4)	140(7.5)	208(35.4)	437(9.7)
상담교육	76(3.7)	0(0)	0(0)	76(1.7)
상담특별	0(0)	203(10.9)	226(38.4)	429(9.6)
특별지원	0(0)	352(18.9)	2(3)	354(7.9)
총 계	2,029(100.0)	1,867(100.0)	588(100.0)	4,484(100.0)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013년 6월 한 달 이용자 현황 자료 분석(복지관 내부 자료)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청소년복지관은 구로공단 근로청소년의 감소, 광명시내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일반 성인 수요의 증대 및 지역성 한계 극복 노력 등으로, 과거의 근로청소년 복지지원의 기능에서 현재와 같은 일반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수련시설, 문화센터, 상담시설의 기능으로 변화됨. 비록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복지관 나름의 변화 노력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설립목적과 주요 목표 집단 또한 모호해 지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주민 커뮤니티센터와 차별성이 부족해지는 등 서울시 청소년 시설로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지 기관의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함.
- 이는 결국 근로청소년복지관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지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서 발생된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음. 근로복지시설은 과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건립되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근로청소년 수가 감소하면서 정부는 운영지원 대상을 점차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고, 많은 근로복지시설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주민센터로 성격이 변모되거나 아예 다른 용도의 기관으로 전환되는 위기를 맞은 사례를 주지할 필요가 있음(이소희 외, 2012). 근로

청소년복지관 역시 같은 경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음. 근로청소년의 근무시간과 직장 위치,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운영시간 및 위치 간의 간극으로 인해 근로청소년의 이용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으며, 학교연계 프로그램, 지역주민 프로그램 확대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근로청소년 지원’이라는 복지관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결국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또한, 근로청소년복지관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외에 재학 청소년을 포함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준비하는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근로청소년 개념(이소희 외, 2012)을 도입함. 그러나, 수련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창업 및 취업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지 못했음.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일반청소년의 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경험 조사 결과, 서울시 청소년은 진학·진로활동과 청소년활동이 주된 이용목적이었음. 이 외에 창업 및 취업프로그램이 존재하나, 진로탐색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음. 앞서 제기된 바와 같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열악한 조건에 있는 근로청소년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진학·진로프로그램이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집중한 채,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노력은 간과한 측면이 있음.

■ 표 29 ■ 복지관 이용목적

(단위 : 명, %)

구분	서울시	광명시	기타	Total
진학진로	147(51.4)	10(8.8)	2(50.0)	159(39.5)
취업창업	5(1.7)	1(0.9)	0(0.0)	6(1.5)
청소년활동 (동아리 봉사자치회)	131(45.8)	94(83.2)	2(50.0)	227(56.3)
문화생활· 체력단련	1(0.3)	2(1.8)	0(0.0)	3(0.7)
기타	2(0.7)	6(5.3)	0(0.0)	8(2.0)
합계	286(100.0)	113(100.0)	4(100.0)	403(100.0)

2. 수요자 욕구의 수용성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의 고용과 노동 지원을 운영목적으로 함. 따라서 근로청소년 지원을 위한 복지관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에 앞서 근로청소년들의 근로실태와 지원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및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는 19~24세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음(표 1. 인터뷰 조사 대상자 7명의 인적특성 참조, page 9). 또한 청소년의 근로실태 조사를 토대로 청소년의 취업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살펴보았음. 청소년 진로·직업지원,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 욕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 청소년 426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위의 7명의 인터뷰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였음.

1) 청소년 근로실태

- 주로 상업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청소년은 바로 취업을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청소년은 단기아르바이트 활동함. 대부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끼고 있음.

“그냥 잘 모르겠어요. 뭘 하면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지...”(단기아르바이트, 여)

“그날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깃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단기아르바이트, 남)

- 정규 취업자나 시간제 근로를 하는 청소년들 모두 근로기간을 최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음. 상고나 전문계고는 학교를 통해 첫 직장을 찾게 되거나, 일하던 곳의 사장님, 동종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함.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찾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임. 주로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고깃집, 서빙, 텔레마케팅, 인포 등으로 적성을 살리거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없는 직종을 경험함.

“전 직장에서도 1년 10개월 근무하다...그냥 사람들 통해서 여기서 사람 구한다고 하면 지원해보고 그쪽에서 나쁘지 않고 사람이 급하거나 그러면 바로바로”(회사원, 여)

“여기서는 한 6~7개월... 원래 바리스타가 하고 싶었는데 이태원에 홈스테드에서 일하다가 거기 사장님으로부터 흥대점이 생겼다고... 카페를 차리려고 예전부터 준비중이에요.. (바리스타, 여)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일주일에 계속해서 찾아보고 이력서 내고 그렇게...(단기아르바이트, 여)

○ 일하는 근무시간과 월 임금은 다양하나, 근로청소년들의 근무시간이 늦은 저녁에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요식업이나 미용실 근무는 11시까지 활동하며, 바리스타 청소년은 새벽까지 혼자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 술에 취한 손님 서비스에 어려움 경험함.

- 정규직을 제외하면 월수입은 100~15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 일주일에 이삼일씩 아르바이트해서 주급으로 15만원 정도 받거나, 햄버거 프렌차이즈점에서 주당 40시간 일해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받음. 바리스타 인턴의 경우 저녁 11시까지 9시간 일해서 15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 회사원의 경우가 임금이 가장 높아 170만원 정도를 받고 있음.

“전 야간이어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7시까지 해요. 낮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저녁에는 바리스타 일 경험하면서 하고 있어요” (바리스타, 여)

“술취한 분들이 화장실에 토하거나 진상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와서 괜히 트집 잡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바리스타, 여)

“고깃집에서 밤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해요.. 좀 큰 업체들은 야간수당을 1.5배씩 주거나, 아니면 약간 올려주거나.. 일반적으로 다른 곳은 그냥 똑같이 페이해줘요 (단기아르바이트, 남)

-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 처음에 약속한 시간보다 적게 일하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많음.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 부당대우에 대해 노동부에 전화했으나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고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음. 신고 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별 도움이 되지 않음.

“가게가 장사가 잘 안되다고 자르거나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중간에 장사가 안 되면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수입에 착오가 생기니까 또 다른 알바를 찾을 수밖에 없고, 계획이 많이 틀어지죠”(단기아르바이트, 남)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일한만큼 안 받은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조금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못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일 한 건데..(미용실 보조, 남)

“아르바이트 비를 못 받아서 노동부에 전화를 했어요..., 음식점에다가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면서... 그리고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았어요. 그런 게 안 맞았던거 같아요”(미용실 보조원, 남)

- 근로계약서를 쓰는 곳도 있고 이력서만 제출하고 쓰지 않는 곳도 있으나 안 쓰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 없이 불안정한 계약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 새벽에 일하는 경우에도 안전과 관련한 서류상의 어떠한 보호 장치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저는 썼어요. 그 계약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고, 인턴 같은 경우 9개월을 해야 되는데 9개월이 끝나기 전에 정규직 면접 보고 입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적당한 거 같아요”(바리스타, 남)

“학교취업 담당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일하는 곳이랑 학교랑 도장 찍고..이후에는 (미용실 보조원, 남)

“쓰는데도 있고 안쓰는데도 있고,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서...”(단기아르바이트, 남)

“저는 한 번도 써 본적이 없어요. 새벽에 일할 때 CCTV가 달려있어 실시간 사장님이 봐요”(바리스타, 여)

【 표 30 】 청소년의 근로실태 인터뷰조사 결과 요약

근로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경로 상이 : 특성화계는 학교 통한 정규직 취업, 인문계는 개별 구직 통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취업 · 진로준비 미흡으로 쉽게 이직 · 불안정한 계약과 부당처우 경험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부당 단축, 수당 미지급, 해고 등 부당처우 다수 경험 · 청소년에는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활용도 낮아 범위반 신고체계 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 체감도 낮고, 이용하더라도 구직 및 직무역량 개발에 무용 : 공적 구직사이트보다는 민간사이트 의존도 높고, 지역내 진로직업 관련 서울시 기관 인지도 낮음
----------	---

2) 청소년의 고용지원 욕구

- 취업알선, 취업박람회, 직업체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험 없으며,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있어도 관심 없음. 오히려 직접 아르바이트 등 관련된 일을 하면서 체험하고 경력을 쌓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함.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행착오 끝에 본인과 맞는 일을 찾게 된 경우가 있음. 미래 직업에 대한 준비는 직접 일을 체험해보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큼.

“저는 온라인 사이트 적성검사 받아본 적 있어요. 워크넷이라고. 근데 썩맞은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단기아르바이트, 여)

“있는건 아는데 그 쪽 돌아다니기 보다는 먼저 일자리를 찾고 가서 면접보고 하다보니까 굳이 안 가도 되고, 아는 분 회사나 그런 곳에 인맥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바리스타, 남)

“상고니까 취업 쪽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구경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구나 알게 되긴 하는데 뭔가 고졸로 거기에서 하는 거랑 연계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은 거 같았어요”(회사원, 여)

“경험해본 적 없어요. 어차피 그런데 가기보다는 제가 직접 일자리 찾는 게 더 빠르고, 가서 시간 버리는 거보다 발로 뛰는 게 더 빠른거 같아요”(바리스타, 여)

“처음에 백화점에서 일을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얼마 안하고 그만두고.. 카페 들어갔는데 재밌어서 이제 그쪽으로 생각해보게 된 거 같아요”(바리스타, 남)

- 정규직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취업 전에 충분한 경험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사를 옮기기도 함. 보다 나은 직장을 통해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 위해 자격증을 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인터넷 강의나 자격증 공부, 영어 등 직업 준비를 위한 교육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됨.

“회사라 안정적인 건 있는데 업무나 사람사이에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심해서... 제가 고졸인 것도 그렇고 다른 능력 뭐 스펙도 없어서.. 워킹홀리데이 가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회사원, 여)

“회계 쪽 공부 해봤는데 학원 안다니고 인터넷 강의로.. 아래 급수만 가지고 뭐 딱히 좋은 점은 없으니까, 딸려면 좋은 자격증 아니면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단기아르바이트, 남)

- 청소년 고용을 위한 정부지원의 요구로는 직업 상담, 장기적인 직업체험 기회 제공, 학력보다 능력과 경력을 중요시하는 채용구조로 개선 등이 있었음. 직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의 다양한 정보 제공, 임금체불 해결 등을 도와주는 체계가 확실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돈을 못 받고 일했는데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고충을 들어준다면 이용하겠죠. 제가 일한 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단기아르바이트, 여)

“직접 가서 배우거나 그런 게 좋을 거 같아요”(단기아르바이트, 남)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 있고 어디서 따야 되고...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들어도 어렵게 되어 있어서”(단기아르바이트, 남)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고 배우는 걸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험에서 끝나지 말고 좀 더 장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 고졸, 대졸 전형에 체크를 해놓으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

줄어요.. 급여도 시간도 낮아지고... 대졸보다는 경력으로 쳐주면 이해하겠는데”(회사원, 여)

【 표 31 】 청소년의 고용지원 욕구 인터뷰조사 결과 요약

고용지원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종류 및 교육 정보 제공 · 직업상담 및 장기 직업훈련 기회 제공 · 학력보다 능력·경력중심 채용구조로 개선 · 청소년에 맞는 근로조건 보호체계 구축
---------	--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청소년복지관 기능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진로·직업 프로그램의 활동 성격에 대해 이론, 견학, 체험, 기타로 프로그램 활동을 구분하고 총 4가지 프로그램의 합을 100%로 놓고 각각의 프로그램 별 비중(%)을 조사함. 체험(직접 실습 등)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약 5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실습 등 체험할 수 있는 진로·직업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앞서 인터뷰 조사에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행착오 끝에 본인과 맞는 일을 찾게 된 경우가 있고, 미래 직업에 대한 준비는 직접 일을 체험해보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큰 것과 일치하는 결과임. 따라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프로그램에서 관찰 등의 직접 견학과, 실습을 통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비중을 높일 필요 있음.

【 표 32 】 진로직업 프로그램 활동 성격

(단위: 명, %)

프로그램 활동	평균 비중(%)
이론(강의, 특강 등)	24.7
견학(관찰 등)	24.4
체험(직접 실습 등)	50.7
기타	.2
총계	100



○ 또한 구체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진로·직업 프로그램 종류에 대한 451명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2%가 ‘직업체험 프로그램(잡월드, 진로체험학습 등)’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음. 그 다음으로 현장견학 프로그램(기업체, 대학방문 등)(40.1%), 진로·직업 검사(적성, 흥미 검사 등) (37.3%), 진로·직업 관련 강의(진로교육, 직업관련 이론 교육 등) 순으로 나타나 직접 일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근로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후 진로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진로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많으며, 특히 체험과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함. 따라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진로·직업 검사를 통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표 33 】 참여하고 싶은 진로직업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참여희망 프로그램 선택	
	빈도(명)	비율
진로·직업 관련 강의 (진로교육, 직업 관련 이론 교육 등)	151	33.5
저명인사, 기업인, 선배 등의 초청 강의	125	27.7
인터넷 또는 동영상 강의	35	7.8
직업체험 프로그램 (잡월드, 진로체험학습 등)	231	51.2
현장견학 프로그램 (기업체, 대학 방문 등)	181	40.1
진로·직업교육 워크샵 (진로캠프, 창업스쿨 등)	138	30.6
현장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학교, 장인학교 등)	105	23.3
진로·직업 검사 (적성, 흥미 검사 등)	168	37.3
진로·직업 상담 (개인상담집단상담, 컨설팅 등)	114	25.3
진로·직업 박람회·축제·캠페인	122	27.1
진로·직업 공모전·선발대회	66	14.6
진로·직업 정보제공 및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알선 등)	72	16.0
기타	15	3.3

○ 진로·직업 프로그램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을 질문한 결과,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가 47.4%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진로계획 및 목표설정(22.3%), 다양한 교육방법(이론, 견학, 체험 등)의 적절한 결합(8.2%),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22.3%) 순이었음. 진로·직업 검사를 통한 진로상담을 진행할 때 청소년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 가능한 진로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34 진로직업 프로그램에서 강조할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합리적인 의사결정	23	5.4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	202	47.4
진로계획 및 목표설정	95	22.3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31	7.3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11	2.6
학교 및 학과정보의 제공	22	5.2
다양한 교육방법(이론, 견학, 체험)의 적절한 결합	35	8.2
기타	7	1.6
합계	426	100.0

○ 진로·직업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로 적합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응답 청소년의 51.6%가 청소년 진로·직업 전문 지원기관이라 답함. 그 다음으로 재학 중인 학교(22.1%), 일반 청소년 관련 기관(13.6%) 순으로 나타남. 최근 구로공단 근로청소년의 감소, 광명시내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일반 성인 수요의 증대 및 지역성 한계 극복 노력 등으로, 현재의 근로청소년복지관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일반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기관,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상담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 청소년들은 청소년 고용과 근로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희망하고 있으며, 서울시 청소년 특화시설인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표 35 】 희망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장소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재학 중인 학교	94	22.1
청소년 진로·직업 전문 지원기관	220	51.6
일반 청소년 관련 기관	58	13.6
기업 등 산업체	23	5.4
대학	19	4.5
기타	12	2.8
합계	426	100.0

- 마지막으로 2011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근로지원을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청소년은 기본급 인상(30.9%)을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건전한 아르바이트 거리 제공(26.8%), 청소년 일자리 확대(17.9%)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청소년의 경우 건전한 아르바이트 제공에 대한 기대(27.4%)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일자리 확대(21.8%)와 정보 제공 및 알선(8.5%), 아르바이트와 향후 진로와의 연계 강화(8.5%) 욕구가 진학 청소년에 비해 높았음. 따라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아르바이트, 실습 등을 통한 체험활동이 향후 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표 36 】 청소년 일 관련 국가의 우선 지원 희망 분야

(단위: 명, %)

구분	청소년		청소년 전체
	진학	비진학	
정보제공과 알선	88(3.3)	12(8.5)	100(3.5)
일자리 확대	478(17.7)	31(21.8)	509(17.9)
사회편견의 변화	120(4.4)	2(1.4)	122(4.3)
권익보호	219(8.1)	10(7.0)	229(8.1)
근무시간 등 규제 완화	98(3.6)	4(2.8)	102(3.6)
기본급 인상	831(30.8)	48(33.8)	879(30.9)
건강한 아르바이트 거리 제공	739(27.4)	22(15.5)	761(26.8)
아르바이트와 향후 진로와의 연계 강화	116(4.3)	12(8.5)	128(4.5)
전체	2,700(100.0)	142(100.0)	2,842(100.0)



3. 소결

- 1982년 개관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구로공단의 산업지형과 이용대상자 변화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 학교연계사업(진로·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기관, 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상담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주로 교양강좌와 자격증 교실, 상담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근로청소년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주민센터 등과 많은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학교유형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은 학교를 통한 정규직 취업이 많으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개별 구직을 통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취업하는 경향을 보임. 인문계 고등학교가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보다 대학진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진로준비 미흡으로 쉽게 이

직하는 경향을 보임. 절차가 복잡한 신고체계로 불안정한 계약과 부당처우 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향 높음. 취업지원 프로그램 체감도 낮고 공적 구직사이트 보다 민간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높음.

- 청소년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경험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 직업체험 기회로 비교적 접하기 쉬운 아르바이트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근로 청소년들은 청소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자격증 종류 및 교육정보 제공, 직업상담 및 장기 직업훈련 기회 제공, 학력보다 능력·경력을 중심으로 하는 채용구조 개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체계 구축 등을 기대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절반이 넘는 51.6%가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이 적합한 기관으로 '진로·직업 전문 지원기관'을 선택함. 따라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기관,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상담센터로서 모호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고용과 근로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특화할 필요 있음.
- 구체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진로·직업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의 51.2%가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했고, 그 다음으로 기업체, 대학방문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40.1%), 적성, 흥미검사 등 진로·직업 검사(37.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직접 일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근로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시립근로청소년수련관을 진로·직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특화하여 위의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이를 종합해,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저조한 이용률과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 신설에 따른 복지관 운영의 안정성 위협 등의 요인들로 인해 근로청소년복지관의 광명시 위치의 우위성 입증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현 위치가 지리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

- 근로청소년복지관은 근로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부재로 인한 특화시설로서의 운영목적 및 사업의 방향성 상실, 주요 대상 집단의 다양화에 따른 기능의 모호화 및 유사 센터등과의 기능 중복, 청소년 고용환경 및 청소년의 일 관련 욕구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이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상 및 기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는 하였으나, 조직의 정체성과 역량, 사회적 요구에 기반하지 않고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파생된 결과로 이해됨. 향후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최근 대두되는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 강화와 관련한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여 청소년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특화시설로서 기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고용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 이를 특화기능화 하는 변화방향이 요구됨.

IV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 적합성 검토

제1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

제2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적합성 검토

제3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기능 적합성 검토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 적합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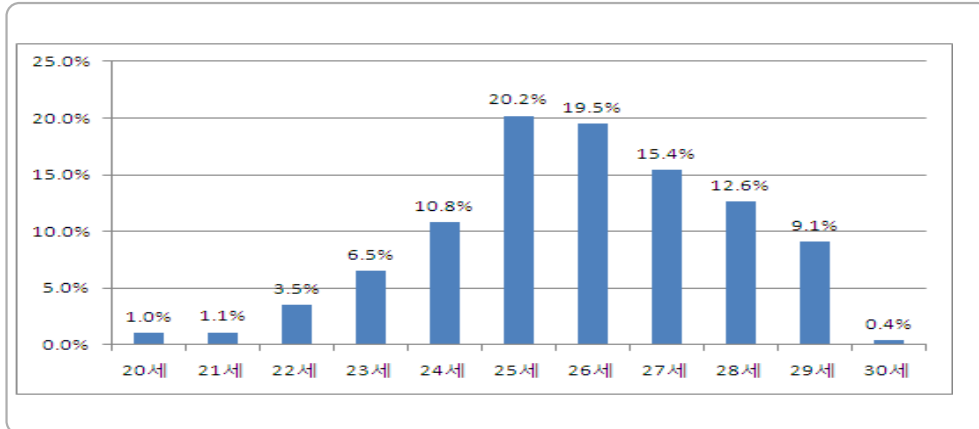
- 본 장에서는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 검토를 위해 실시 한 입주자 온라인 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제시함. 지금까지 저소득 여성 근로청소년에 대한 주거 실태 및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 가능한 검토 자료가 없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아파트의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1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

1.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

1) 입주자 연령분포

- 총 898명의 입주자 가운데 25세(20.2%)와 26세(19.5%) 연령대가 약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27세 15.4%, 28세 12.6% 순으로 후기청소년 (19-24세)이후의 연령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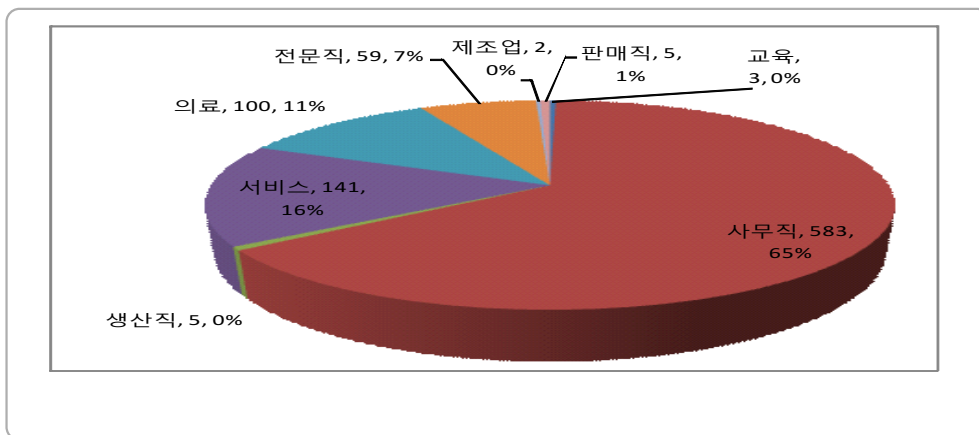


자료: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 2012년 말 기준(복지관 내부 자료)

그림 14 | 입주자 연령 분포

2) 직종별 입주자 현황

- 입주자 전체 898명 중 583명인 65%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서비스직 16%, 의료 11%, 전문직 7%, 교육 3%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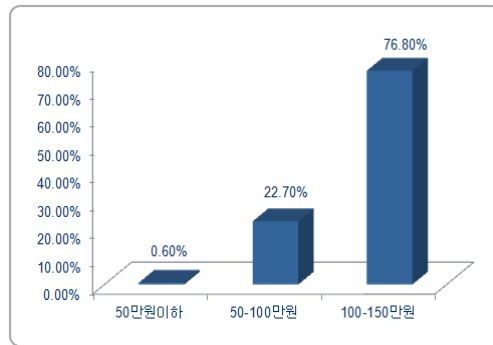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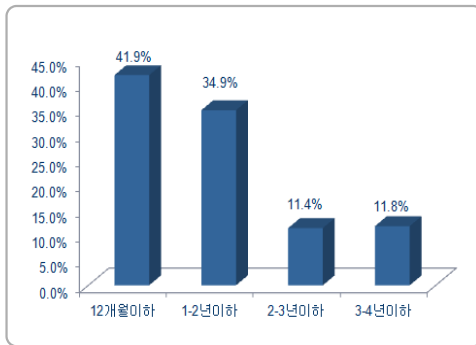


자료: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 2012년 말 기준(복지관 내부 자료)

그림 15 | 입주자 직종현황

3)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거주기간 및 월 소득 분포

- 임대아파트 계약상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임. 2년을 살고 난 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함(2년).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 중 거주기간이 12개월 이하가 42%로 가장 많고, 1~2년 사이가 35%, 2년 이상 살고 있는 입주자가 약 23%를 차지해, 약 80%의 입주자들이 2년 미만의 여성 근로자들임.
- 임대아파트 이용가능 소득기준은 150만원 미만으로 실 거주자의 소득분포를 살펴보았음. 101~150만원이 약 77%로 가장 많고, 51~100만원이 23%, 50만원 이하가 1%임. 총 입주자 898명 중 2013년 6월 현재 소득이 없는 입주자가 3명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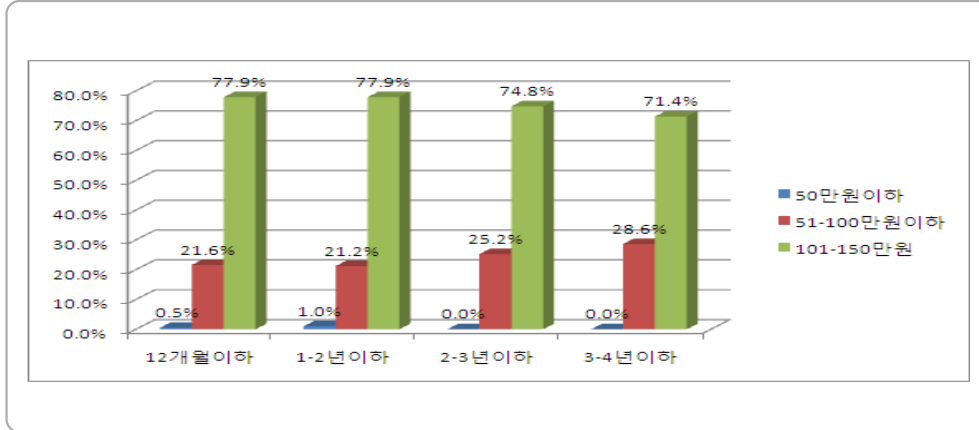


자료: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2012년 말 기준 (복지관 내부 자료)

■ 그림 16 ■ 입주자 거주기간

■ 그림 17 ■ 입주자 월 소득 분포

- 다음은 임대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른 이용자들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았음.
 - 임대아파트 이용자의 약77%가 101~150만원 사이의 월 소득자인 가운데, 거주기간이 길수록 100만 원 이상 월 소득자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월 소득자는 늘어남.
 - 거주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이용자 비율이 점차 높아져 저소득 근로 청소년일수록 3년 이상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료: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 2012년 말 기준(복지관 내부 자료)

그림 18 | 임대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른 소득 분포

4) 입주자 구별 직장 소재지

○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소재 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 임. 입주자 직장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된 12명을 제외하면, 강남구(18.4%)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입주자가 가장 많고, 다음이 금천구(17%), 구로구(11%), 영등포(10.7%)순으로 나타남. 강남구를 제외하면 입주자의 약 절반 정도가 임대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광명시에 인접한 서울지역이면서, 지하철 1호선 라인에 있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 위치한 직장인이었음.

표 37 | 입주자 직장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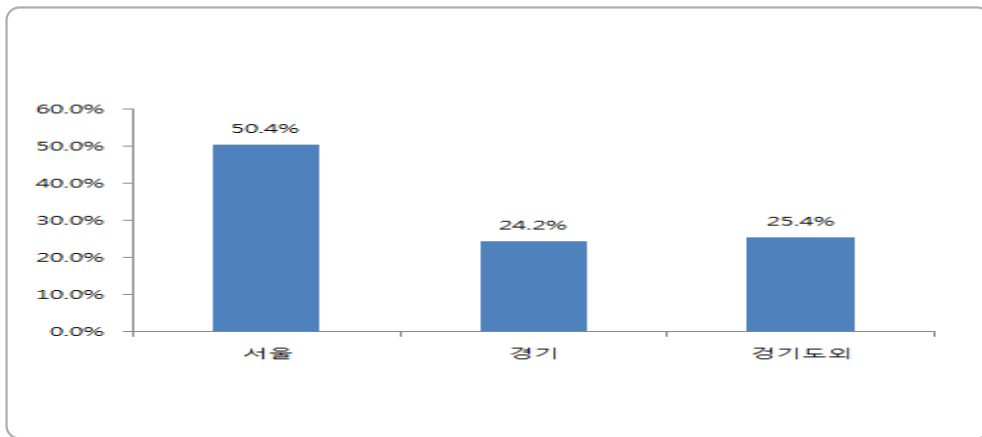
(단위: 명, %)

	강 남	강 동	강 북	강 서	관 악	광 진	구 로	금 천	노 원
총 계 886 (100%)	163 (18.4)	3 (0.3)	4 (0.5)	9 (1.0)	16 (1.8)	13 (1.5)	98 (11.0)	151 (17.0)	1 (0.1)
	도 봉	동대문	동 작	마 포	중 로	중 구	중 량	서대문	서 초
	2 (0.2)	3 (0.3)	41 (4.6)	45 (5.2)	30 (3.4)	49 (5.5)	1 (0.1)	8 (0.9)	96 (10.8)
	성 동	성 북	송 파	양 천	영등포	용 산	은 평		
	4 (0.5)	5 (0.6)	11 (1.2)	15 (1.7)	94 (10.7)	16 (1.8)	7 (0.8)		

자료: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 2012년 말 기준(복지관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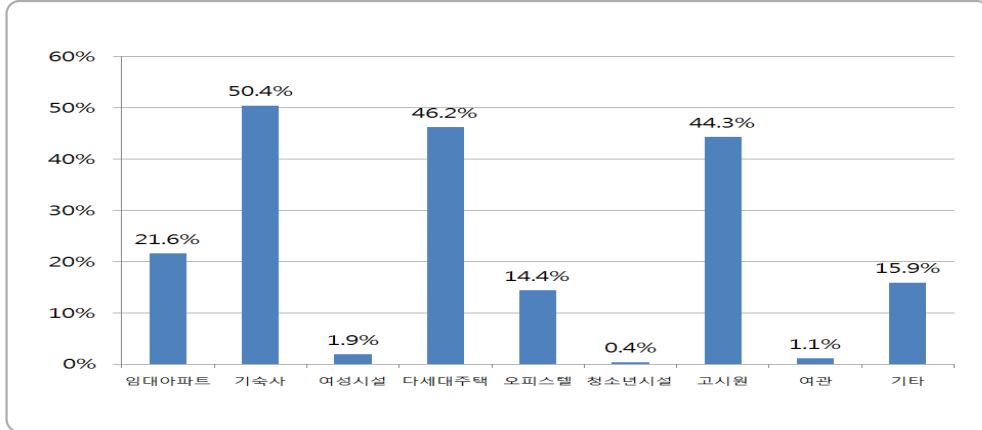
5)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경험 및 입주 동기

-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주거지역을 살펴본 결과, 입주자의 절반은 서울에 거주 했던 여성들이었고, 나머지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외 지역에서 올라온 경우임. 따라서, 입주자의 절반은 임대아파트가 행정구역상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면, 서울주민으로 분류될 근로청소년들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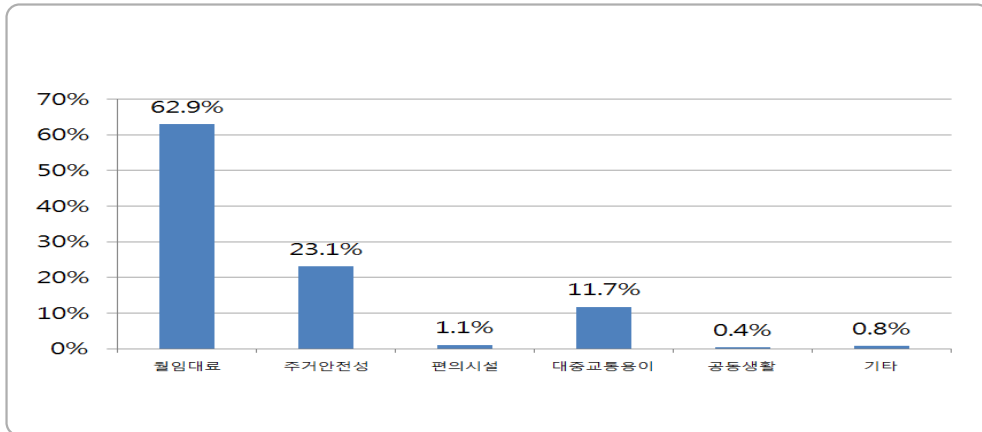
■ 그림 19 | 입주 전 주거지역

- 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입주자들이 경험해 본 거주유형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숙사’형태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50.4%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다세대주택(46.2%), 고시원(44.3%), 임대아파트(21.6%) 순으로 나타나, 주거 하위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시원, 임대아파트에 살았던 주거계층이 이동해 온 경우가 대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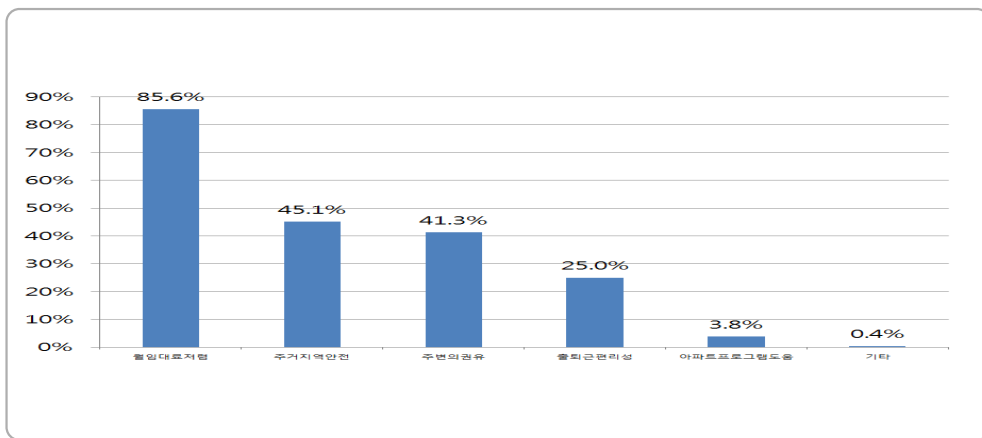
【그림 20】 입주 전 주거형태

○ 거주지 선택 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월 임대료(62.9%)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거환경의 안전성(23.1%), 대중교통용이(11.7%) 순이었음. 월 소득 100만원 초반의 후기 청소년들에게 있어 임대료와 안전은 거주지를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



【그림 21】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 많은 입주자들이 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동기로 월 임대료의 가격이 저렴(85.6%)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지역의 안전(45.1%), 주변의 권유(41.3%), 출퇴근의 편리성(35%), 아파트 프로그램도움(3.8%) 순이었음. 이를 통해 보면, 현 임대아파트는 20대 근로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요소(저렴한 임대료와 안전)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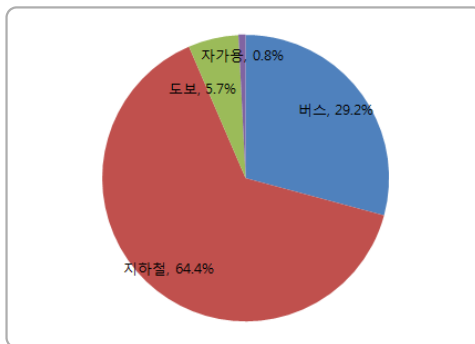
■ 그림 22 ■ 입주 동기

제2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적합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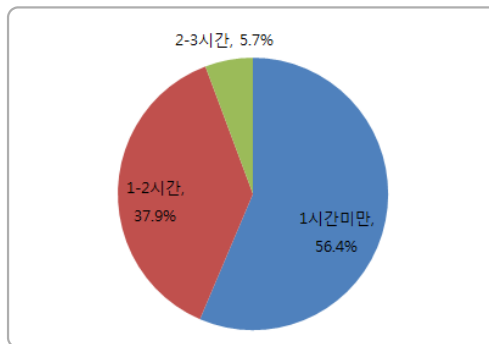
-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위치 적합성은 입주자의 출퇴근 시 이동의 편리성과 1인 여성이 살기에 주거지역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위주로 살펴보았음.

1. 이동의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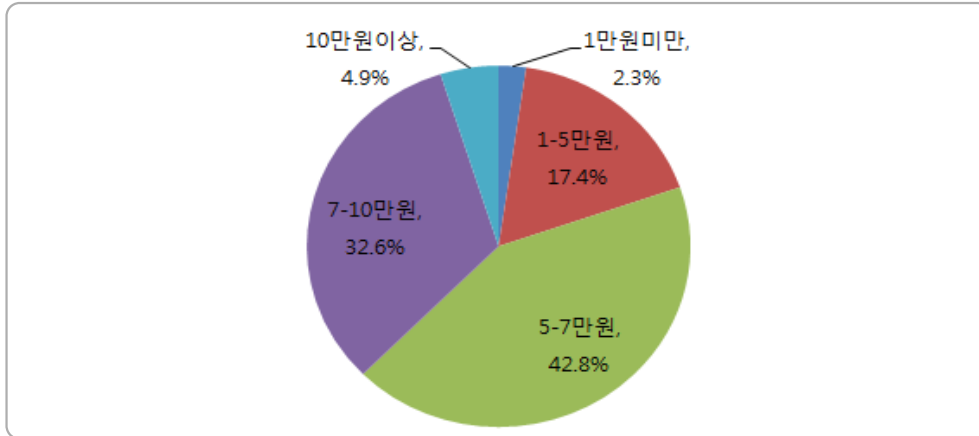
- 먼저 현 직장과의 접근성을 알아보기 위해 출퇴근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았음. 먼저 출퇴근은 대부분 지하철(63.4%)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버스(29.2%), 도보 또는 자가용(6.5%) 순이었음.
-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왕복 1시간미만이 가장 많아 56.4%를 차지함.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입주자들이 금천구, 구로구에 위치해 있는 직장인 점을 감안 할 때 지하철을 이용한 출퇴근 시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한 달 교통비용은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5~7만원(43%)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0% 정도가 7~1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림 23 ■ 출퇴근 시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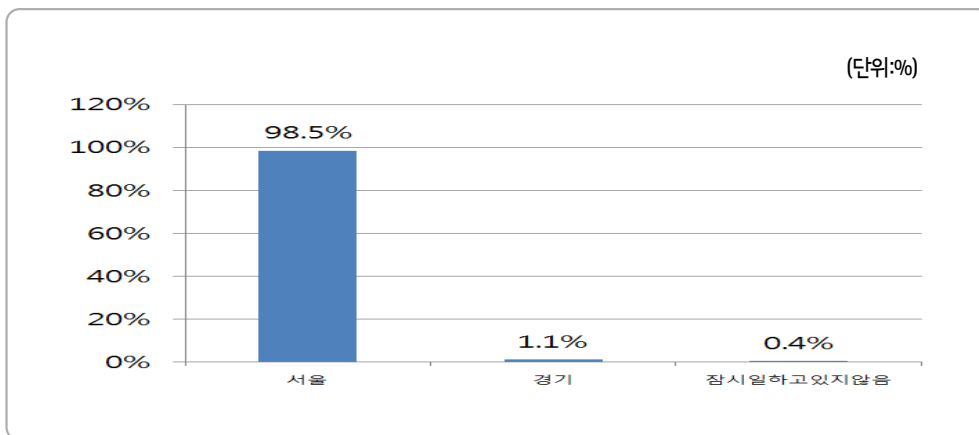


■ 그림 24 ■ 출퇴근 시 왕복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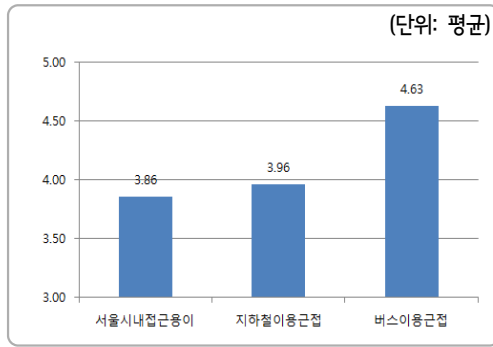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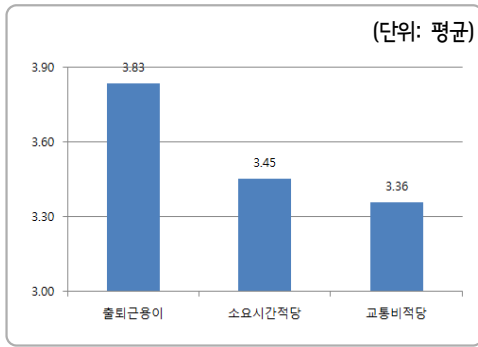
■ 그림 25 ■ 출퇴근 시 교통수단

○ 현 직장의 위치를 확인해본 결과, 응답한 267명 가운데 3명은 경기도에 위치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고 1명은 잠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입주 기준이 서울지역 소재지 근무자로 제한되어 있지만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경기도 소재지에 근무하는 입주자가 적어도 전체 1%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임.



■ 그림 26 ■ 현 직장의 위치

- 입주자들의 98.5%가 현 임대아파트의 위치가 출퇴근이 용이하고, 소요시간이 적당하며, 출퇴근에 드는 교통비도 적당하다고 응답해 서울지역 출퇴근에 무리가 없고 이동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남.
- 임대아파트 주변에 대중교통이 근접거리에 있어 이를 이용한 서울시내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조사됨⁶⁾. 특히 버스정거장이 임대아파트로부터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1호선 철산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어 이동의 편리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출퇴근 시 이동의 편리성 【그림 28】 서울시내 접근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2. 주거지역의 안전성

- 여성의 주거지역으로서 중요한 요소는 안전성임.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20대 초·중반의 혼자 사는 여성임을 감안할 때, 주거지역으로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임.
-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임대아파트의 주변 환경이 매우 안전하며, 늦은 저녁시간의 아파트 주변 치안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응답함. 또한, 단지 내 치안과 경비체제가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를 종합해 보면, 입

6) 입주자들의 인식 및 의견과 만족도 등에 5점 척도를 사용해 측정함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주자들은 현 임대아파트가 주거지역으로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저녁 시간 치안이 양호하다고 인식함. 따라서, 현 임대아파트의 위치가 20대 여성이 혼자 살아가기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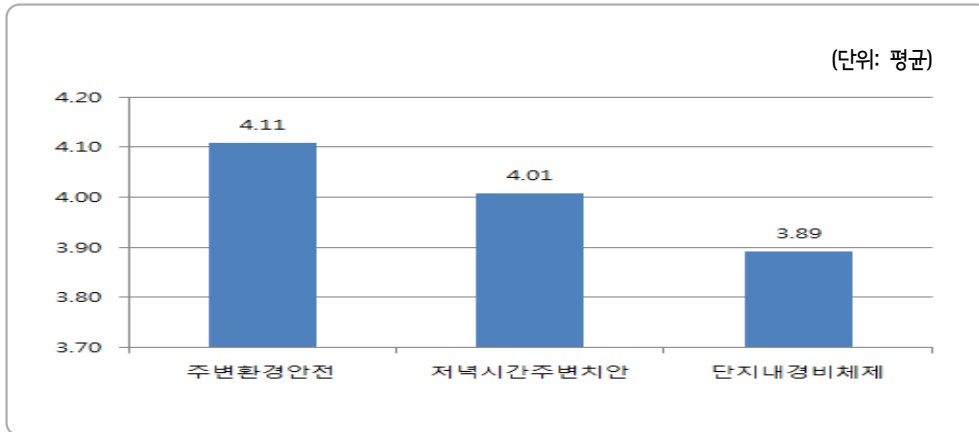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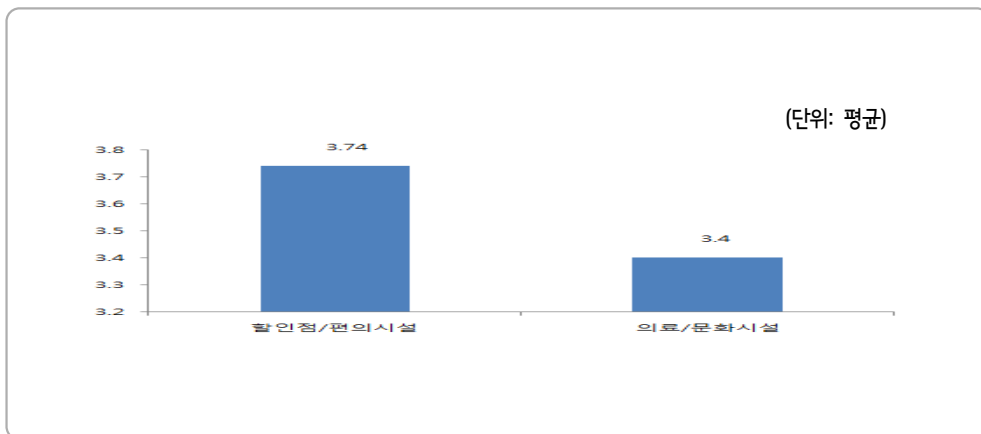
그림 29 | 임대아파트 주거환경의 안전성

3. 주변 편의시설의 접근성

○ 서울시의 경우 ‘10분 동네 프로젝트’⁷⁾를 추진하면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주민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현재 입주자들은 광명시에 위치해 있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민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서울 소재지 사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임대아파트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시 거주 주민으로 분류되었을 청소년들임. 현 임대아파트의 이동의 편리성과 안전성 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10분 동네 프로젝트’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파트 주변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등의 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어 접근이 용이한지. 의료와 문화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지에 대해 질문하였음.

7) 서울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 공원,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추진 중. 주민 편의시설을 소규모로 쪼개 동네 구석구석에 설치한다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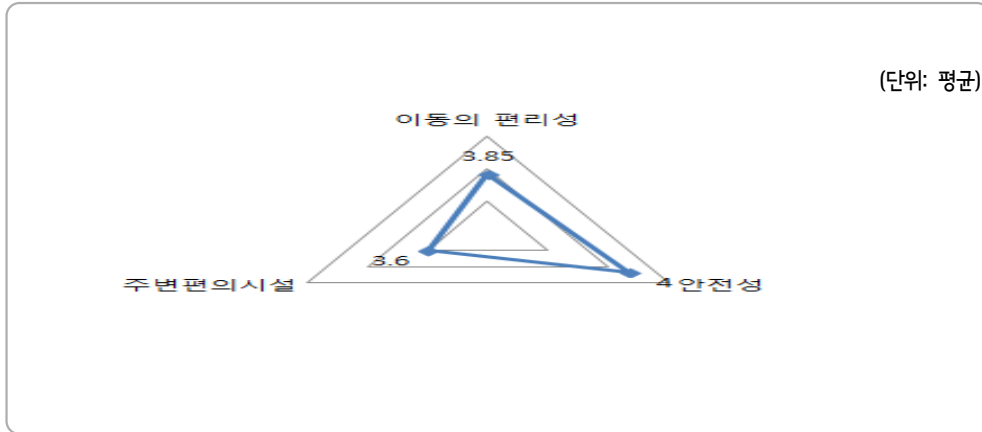
- 입주자들은 임대 아파트에 대형할인점과 편의점들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의료와 문화시설 측면에서도 보통(3점) 이상으로 응답해 대체적으로 의료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현 주거지의 위치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됨.



■ 그림 30 ■ 주변 편의시설의 위치 접근성

4. 소결

- 현 임대아파트의 위치가 주거지역으로 적절한지 이동의 편리성, 주거지역으로서의 안전성, 주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종합해 본 결과, <그림 31>와 같이 안전성의 측면에서 입주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며, 출퇴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점과 주변 편의시설 접근성 면에서도 보통 이상의 점수를 주고 있어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임대아파트의 현 위치가 주거지역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1 ■ 주거지역으로서의 적절성

제3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기능 적합성 검토

- 본 절에서는 임대아파트가 근로 청소년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이라는 운영목적에 기초해 임대아파트의 기능을 검토하고자 함. 입주자 온라인 설문 조사와 인터뷰 조사(표 3. 인터뷰 조사 대상자의 인적특성 사례가 ~ 사례마 참조, page 10)를 통해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관리형태 및 주거지원 서비스 측면을 살펴보았음.

1. 시설 및 주거환경의 편의성

1) 아파트 단지 내 시설환경에 대한 낮은 만족도

- 임대아파트 입주자 인터뷰 조사를 통해 쾌적한 시설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시설 이용의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음. 시설관리팀이 있으나 워낙 노후한 아파트로 천장이 일부 무너지거나, 창틀고장으로 개폐가 어렵고, 세면대가 떨어지는 등 매우 불안한 상태로 조사됨. 방음도 전혀 안 되고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많고, 시설이 열악하다고 느끼지만, 얼마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음. 수리를 요청해도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어쩔 수 없는 상황(누수 등으로 인한 천장 붕괴 같은)에는 방을 옮길 수 있으나 이전하는 방의 상태를 가늠할 수 없고, 새로운 룸메이트와의 관계, 이삿짐 이동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임.

“그냥 수리는 제가 그냥 해요. 그냥. 시간 오래 걸리고 나가면서 말을 하고 가야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더라구요. 제가 그냥 샤워기 같은 거 꼭지 고치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사서 돌려서 빼고 하면 되고, 전등도 그냥 제가 가면 되니까...” (사례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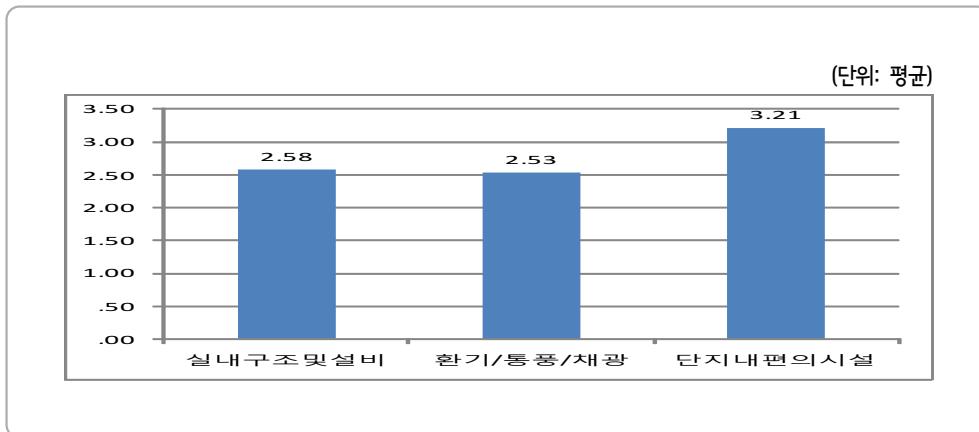
“가스도 가스렌지가 너무 낡아서 저희가 갈았거든요. 돈이 따로 들었어요. 웬만한 건 그쪽에서 해주지만 있는 건 우리가 해야 해요. 렌지 바꾸는데 선이 너무 낡아서 가스가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돈으로 갈고, 배란다도 잘 안 열려요. 그래서 환기도 잘 못시키고, 먼

지가 좀 싸여요.” (사례 라)

“제가 지금 3년 살면서 방을 여러 번을 옮겼는데, 그전 방은 천정이 물이 세는 거 예요. 공사를 잘 못했는지 그게 못 견뎌서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방을 옮겼어요. 지금 들어간 방도 또 오래됐잖아요. 벽지가 다 떠요. 그런데 집을 다 옮기고 도배를 해 달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참고 나가야지.” (사례 바)

“집이 작아서 따뜻해지기는 따뜻해지는데 집이 워낙 낡아서 그걸 온도를 높여놔야 따뜻해진다 해야 하나? 그래서 한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나와요.” (사례 나)

-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아파트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하로 나타남. 아파트 실내구조 및 설비 수준 그리고 아파트 실내 환경(환기/통풍/채광)에 대한 만족도 모두 보통 이하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환경/통풍/채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이에 비해 단지 내 편의시설(쓰레기 처리시설, 세탁실 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정도로 나타남. 아파트가 30년 된 노후시설로서 아파트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특히, 시설 안전 부분에 있어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조치를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거 안전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 물리적 시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그림 32 ■ 시설 이용 만족도

2) 임대아파트 주거 조건 및 엄격한 규율에 대한 불편함

- 인터뷰 조사에서 입주자들은 주거조건의 확대를 요구함. 특히, 입주 조건에 있어 나이 제한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함.

“월급이 오르면 나가야 해요. 나이 제한도 있고. 주거 기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만 26세도...”(사례 라)

“전 이제 만 26세도 넘었고 1회연장도 지나서 내년에는 무조건 나가야해요.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 거죠”(사례 바)

“전 늦게 들어와서 4년도 못 채울 것 같아요. 지금이 26살이라 재계약을 못할 거예요”(사례 마)

“어린사람 위주로 해주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커트라인을 좀 늘려주는 게. 방의 여유가 있다면 굳이 나가지 않는 걸로..”(사례 나)

- 또한 입주자들은 주거조건 외에 임대아파트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특히, 통금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함. 이는 정시출근과 퇴근이 가능한 사무직,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맞춰진 것으로, 다양화 된 노동 시간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통금이외에 다른 퇴소항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살 수 밖에 없다고 보며, 이는 저렴한 주거비와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규율에 대한 불만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으로 보임.

“집에 못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전 촬영이 새벽에 끝나거든요. 항상 걸리는 거 예요.” (사례 마)

“그래도 지금은 2시부터 4시까지인데, 예전에는 12시 반부터 4시까지였어요. 저도 출장가거나 야근 잦은 편이라 항상 간당간당하게 들어가는 거 예요. 아저씨가 12시 28분쯤 닫으려고 하시면 기다려 달라고, 손들고 뛰어가고.” (사례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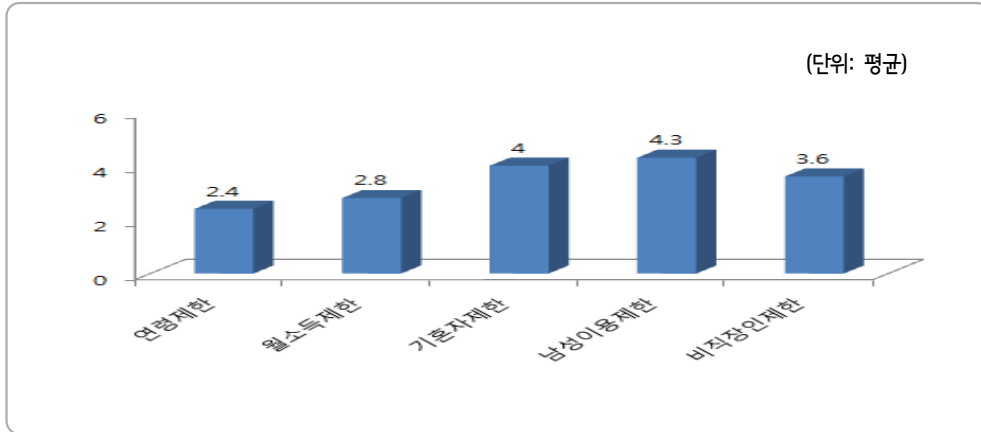
- 임대아파트 주거환경에 있어 2인 1가구 생활에 따라 룸메이트와의 잠재적 불화요소가 높은 구조임. 보람채는 이전까지 3인 1가구로 구성되었으나, 약 6개월 전부터 2인 1가구(1인1실제도)로 변화하였음. 이전 3인 1가구를 기억하는 입주연장자들은 당시 룸메이트와 매우 불편하게 생활했다고 토로함. 룸메이트

와의 관계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공동생활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생활습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으나 보람채의 장점(싸고 안전)을 생각하면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공간과 시설물을 공유하나 용품을 각자 해결하고 타인과의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음.

“방이 다 안에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어요. 맨 처음엔 큰방에 무조건 2명이 살아야 했구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구. 한집에 3명이 사는 거죠. 바뀐지 1년도 안됐어요. 전 처음에 그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한집에서 방 따로 써도 불편한데, 같이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사례 나)

“생활은 각자 하고 공간만 나눠 쓰고, 성격차이인거 같아요. 저도 잘 맞는 사람이랑은 따로 만나서 놀기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 성격에 맞으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예 독립적으로 사는 게 더 나은 거죠.” (사례 나)

-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입주 가능 연령을 만 26세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또한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이용을 제한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따라서 연령과 월 소득 제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존 임대아파트가 여성전용 공간으로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주거공간을 남성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그림 33 ■ 아파트 입주기준에 대한 의견

3) 여성에게 있어 안전한 주거환경

- 여성 입주자들은 남녀 공용 아파트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외부 남성 출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동을 구분하여 남녀가 공용으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외부 남성에 대한 출입 가능성을 안전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엄격한 외부인 출입금지에 대해 큰 불만은 없으며, 안전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단지 진입에 대해 불안해했는데, 외부인 표식(조끼)을 보면서 신원에 대한 안심을 한다고 함.

“신분증이나 이런 거 내야 해요. 안에 사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그냥 들어왔는지 경비실에 뭘 내고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조끼 같은걸 입으면, 뒤에 써 있어요. 그 조끼를 보면 모르는 사람을 봐도 “아! 경비실에서 안전하게 뭘 붙이고 온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사례 나)

“(동 구분하여 남녀 거주자를 받는다면) 동이 달라도 남자가 사니까, 외부남자가 들어오면 그 남자가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일동: 아! 맞아) 그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꺼려지는 거지. 뭐 남자가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외부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게 문제인거죠.” (사례 나)

- 또한 시선의 자유로움,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둘 수 있다는 점을 보람채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음.

“원룸이란 게 남녀가 섞여서 집들이 거의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옆방에 아저씨가 사셨는데, 밤에, 좀 짧은 옷이라도 입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냥 괜히 무섭고, 그게 되게 스트레스로 오고 그랬어요.” (사례 나)

“여자들만 있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도 되니까. 저 아는 분이 원룸 사는데 남자들이 사니까 창문을 못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베란다 문이랑 다 열어놓고 있어서...”(사례 바)

- 입주 동기에 있어서도 안전과 저렴한 거주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인터뷰 대상자 모두 지인이나 친구의 소개로 보람채를 알게 됨. 대상자 대부분이 거주비와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집을 구하고 있음. 안전한 거주지를 구하기 위해 여성전용 고시원 등을 선택하기도 함. 특히 여성전용 고시원은 거주비 부담이 크지만 안전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음. 대상자 모두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함.

“친구가 아는 사람 중에 여기 사는 사람 있다고 해가지고, 이 복지관 알아보라고. 해당조건이 되니까”(사례 다)

“친구가 먼저 이곳에 살았다가 저에게 알려줬어요. 저는 지방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영화 일을 하고 싶어 올라왔다가 ... 올라온 지 석 달 됐는데, 친구가 살고 있는데서 월세 좀 내고 살고 있다가 이곳으로 왔어요”(사례 마)

“제가 고시원 살았어요. 1년 넘게. 숙대근방이라 여자관련 고시원이 많았어요. 거기서 1년 넘게 살았는데, 급여가 일한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제 월급에 거의 한 1/3 정도가 주거비로 나가니까 못 살고, 지인이 알려주셔서 오게 됐죠”(사례 바)

2. 주거자립 욕구의 부합성

- 입주자 인터뷰 조사를 통해 나타난 내용 중 주거문제와 직업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측됨. 이직이나 학업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거주자

도 있음. 임대아파트의 경우, 거주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자기 계발을 통한 이직, 진학 준비를 하기 유리함. 이에 따라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예: 직업박람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다음 달에 학원을 다닐 계획이에요. 지금은 바리스타 배우고 있어요. 이직은 아니고, 나중에 창업 같은 거 할 때. 다음 달에는 영어 학원 다닐 건데, 대학 때문에.”(사례 라)

“그렇게 아끼는 게 이직을 하거나 나중에 결혼자금이 됐든 다 밀천을 가지려고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사례 나)

“(본인의 직종에서 베테랑이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인가?) 평생 직업은 없는 거 같아요. 전 이미 이직을 하고 온 상태라.” (사례 마)

○ 현 임대아파트가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4년 후 퇴거 시 다른 주거지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질문해 보았음.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0~24세의 59.4%, 25~29세의 63%, 28~30세의 82%가 준비를 하고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지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연령 별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표 38 】 4년 거주 후 주거지 마련준비 여부

(단위: 명, %)

	20~24세	25~27세	28~30세
하고 있다	38(59.4)	90(62.9)	41(82.0)
하고 있지 않다	26(40.6)	53(37.1)	9(18.0)
계	64(100.0)	143(100.0)	50(100.0)

○ 주거지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에서 저축·재테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지 마련의 1차적 준비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었음.

표 39 주거지 마련준비 항목

(단위: 명, %)

	20~24세	25~27세	28~30세
저축·재테크	36(94.8)	80(94.0)	33(80.5)
결혼준비	1(2.6)	1(1.2)	2(4.9)
다른 임대아파트 입주 준비	0(0)	0(0)	3(7.3)
이사준비	0(0)	4(4.8)	3(7.3)
정규직취업준비	1(2.6)	0(0)	0(0)
계	38(100.0)	85(100.0)	41(100.0)

○ 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저렴해 거주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를 이용해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20~24세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35.9%). 이 연령대에서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는 이직 준비(21.9%)나 진학준비(14.1%) 또는 학원 등록(14.1%)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25~27세에서는 이직준비(33.6%)가 가장 많았고, 학원등록(23.1%) 또는 하고 있지 않다(28.7%)는 경우가 많았음. 28~30세는 학원등록(28.0%)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직준비(26%), 하고 있지 않다(26.0%)로 나타남. 또한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 연령대 별로 약30%의 응답자가 어떠한 투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입주자들은 주로 이직준비나 학원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0 】 미래에 대한 투자

(단위: 명, %)

	20~24세	25~27세	28~30세
진학준비	9(14.1)	5(3.5)	2(4.0)
이직준비	14(21.9)	48(33.6)	13(26.0)
창업준비	2(3.1)	4(2.8)	0(0)
학원등록	9(14.1)	33(23.1)	14(28.0)
기타	7(10.9)	12(8.4)	8(16.0)
하고있지않음	23(35.9)	41(28.7)	13(26.0)
계	64(100.0)	143(100.0)	5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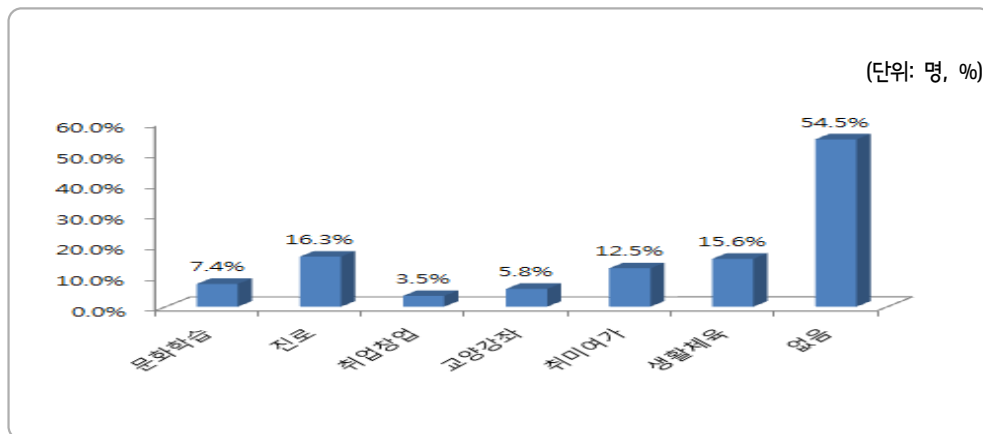
- 위에서 나타난 주거자립 욕구를 반영해 임대아파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 2013년 6월 한 달 간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이용한 복지관 프로그램은 대부분 1회성으로 진행되는 상담사업이었음. 소수의 입주자(4.2%)가 자격증 취득과정이 있는 상설강좌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음. 대부분 심리검사 및 임대아파트 순회상담에 참여하여 이용자로 잡힌 경우임. 따라서, 입주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프로그램의 이용 측면에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1 】 임대아파트 입주자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단위: 명, %)

	입주	비입주자	총 계
학교연계사업	0(0)	1,022(24.9)	1,022(22.8)
문화/상설강좌	16(4.2)	1,650(40.2)	1,666(37.2)
체력단련	0(0)	483(11.8)	483(10.8)
상담	365(95.8)	577(14.1)	942(21.0)
특별지원 및 기타	0(0)	370(9.0)	370(8.2)
총 계	381(100.0)	4,102(100.0)	4,483(100.0)

- 입주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복지관 이용 경험을 확인해 본 결과, 응답자 중 55%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약 16%가 진로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4 ■ 임대아파트 입주자 복지관 이용 경험

3.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공동체 형성

- 거주자간 유대감, 소속감, 연대의식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음. 각 동의 대표를 중심으로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거주자들은 자치회 활동을 그저 출근길 신분증 검사 정도로 알고 있음. 복지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별점 때문에 참가한다고 하며, “귀찮고 의무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음.

“1년에 한 번씩 오픈하우스 같은 걸 해요. 복지관에 큰 강당 같은 곳에서 낮 동안 행사를 했는데, 꼭 방에서 한 명씩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자치회에서 체크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까지 안하면 사람들이 안 올게 뻔 하니까. 그렇게 막상 참여를 해도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옆 방애랑 시간 맞춰서, 그쪽이 행사 나가면, 다음 행사는 내가 나가고, 둘 다 별점을 맞을 순 없으니까.”(사례 바)

“벼룩시장 같은 걸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 하지는 않아요. 자치회 아는 사람들 끼리 그냥 노는 거 예요. 복지관 이런데 거기서 일정 맞춰서.” (사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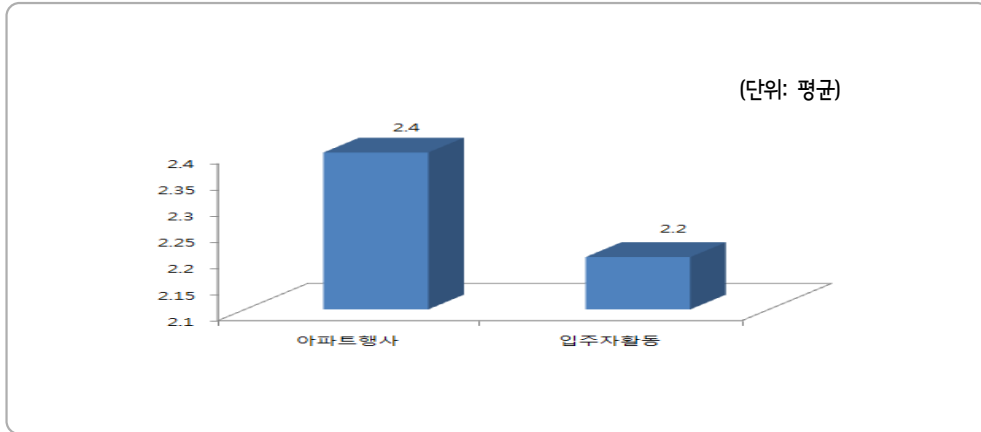
- 지역민들에게 보람채는 ‘여자기숙사’, ‘복지아파트’라는 특수하고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함. 거주자들은 외부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음. 보람채란 이름 역시 이전 복지아파트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저 평범한 아파트로서 보여 졌으면 한다고 함.

“여기는 여자들만 사는 곳이고, 출입도 잘 안되고, 한마디로 동네에서 되게 독립적인 공간 이더라구요.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걸 선입견이라고 해야 하나?” (사례 나)

“보람채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복지 아파트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그렇게 오래 사용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자 기숙사 산다고, 이 근방에서 오래 살았던 분인데, 너 여자 기숙사 살아? 나 기숙사는 아닌데, 기분 나쁘고.” (사례 바)

“전 성당 다니는데, 저는 자취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근방에서 부모님이랑 사니까... 좀 혼자 자립적으로 사는데 부모님이랑 안정적으로 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럽다고 해야 하나? 전 자취한지 오래됐거든요. 대학 때도, 한 8, 9년을 밖에서 살다보니까 안정감을 제가 바라게 되더라구요. 복지아파트에 산다는 고립감이 들어 우울할 때도 있구요” (사례 바)

- 입주자들에게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입주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입주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동호회 등 입주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그림 35 ■ 아파트 행사 참여 정도

-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를 위한 활동사업으로 약 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음. 6월 한 달 간 입주자 프로그램 참여자는 단지 3명에 불과해 임대 근로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서 입주자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업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표 42 ■ 입주자 활동 사업(8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총계
엄마와 추억만들기	어머니 초청 저녁식사 만들기	1명
입주자 굿데이	입주자 대상 직원 아침인사하기	0
광장 “The Show”	단편 독립영화 및 베틀시장	0
벼루기 장터 “Free Market”	재활용품 판매	0
한지붕 한마음	아파트 세대원 친목도모	2명
보람마을시장	입주자간 물품 교류의 장	0
보람채 요리경연	입주자간 요리경연	0
반쪽찾기	짝 없는 입주자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	0
6월 참여자 총계		3명

자료: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6월 이용자 현황 자료 분석(복지관 내부 자료)

○ 이밖에 임대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욕구와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입주자들을 통해 살펴보았음. 먼저, 향후 임대아파트 이용 의향을 물어 본 결과, 약 87%가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연령이 증가할수록 향후 임대아파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각 연령대 별 비율)이 더 높았음.

【 표 43 】 향후 임대아파트 이용의향

(단위: 명, %)

	20~24세	25~27세	28~30세
있다	57(85)	127(87.6)	46(90)
없다	10(15)	18(12.4)	5(10)
계	67(100.0)	145(100.0)	51(100.0)

○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한다면 어떠한 점을 가장 고려했으면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질문한 항목들 중 1인1세대 모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안전한 출입구 관리와 여성들만의 전용 아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 순이었음.

【 표 44 】 리모델링 시 가장 고려했으면 하는 점

(단위: 명, %)

항목	1순위	2순위
1인1세대 모형	144(56.5)	43(16.9)
안전한 출입구 관리	42(16.5)	68(26.7)
여성전용아파트	35(13.7)	56(22.0)
단지 내 편의시설	32(12.5)	77(30.2)
지역사회 내 이미지 개선	2(.8)	11(4.3)

○ 아파트 입주자 선정 시 가장 고려했으면 하는 점으로는 지방에서 온 취업자 우선 입주가 가장 많았고, 여성 우선 입주와 월 소득이 낮은자 우선 입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 표 45 】 입주자 선정 시 가장 고려했으면 하는 점

(단위: 명, %)

항목	1순위	2순위
여성 우선 입주	50(19.6)	50(19.6)
연령이 낮은자 우선 입주	4(2.4)	17(6.7)
월 소득이 낮은자 우선 입주	49(19.2)	86(33.7)
학력이 낮은자 우선 입주	1(4)	5(2.0)
지방에서 온 취업자 우선 입주	143(56.1)	65(25.5)

4. 소결

- 임대아파트 입주자 조사를 통해 입주자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본 결과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평균적으로 25~27세 월 소득 100~150만원 사이의 소득자들로 강남과 구로·금천 지역 직장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들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임대아파트는 20대 중·후반의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의향을 연령별로 비교해 봤을 때, 전 연령계층에서 높은 이용의사가 있으나,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용의사에 대한 빈도가 높아져 이 연령층에 대한 임대아파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임대아파트가 지리적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주거 환경이 안전하며, 주변 생활편의 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지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입주자들은 주거 환경이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음.
- 임대아파트의 기능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의 안전과 자립여건,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후기청소년(post-adolescence)은 생애주기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과업들의 실현이 요구되며, 이 중에는 주거자립이 포함되어 있음(정민우·이나영, 2011).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고용구조의 불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후기청소년의 주거 자립은 쉽지 않은 상태임. 특히 중산층 이하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후기청소년의

경우 고시원과 같은 하위 주거트랙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며, 여성의 경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주거환경과 공적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 등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후기청소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는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안정적 독립과 사회 정착의 기반이 되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됨.
- 여성1인 가구의 주거비 상승요인 중 가장 큰 것으로 “안전”에 따른 비용증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자들 역시 임대아파트의 선택 이유로 “저렴한 주거비와 안전한 주거생활보장”을 우선적으로 꼽았음.
- 보람채 입주 대상자들은 개인의 수준으로는 주거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주거빈곤층으로, 주거에 관련된 공공적 개입을 적극 수용하게 되는 계층으로 볼 수 있음. 조사 대상자들은 아파트의 이미지 개선과 통금시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나, 저렴한 주거비와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해 임대아파트가 제시한 규율을 수용하는 일방적인 수혜자로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었음. 이는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의 복지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공적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이에 대한 일방적인 수혜라는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필요를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보람채에 살기 위해서는 엄격한 행동관리가 요구됨. 출입통제, 출입증 검사 및 어머니만 하루 숙박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음. 또한 정문 통금시간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근무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엄격한 규율에 의한 입주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무시된,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주거 조건은 보람채가 대외적으로 갖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 복지아파트 또는 여자 기숙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입주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로부터의 낙인감과 소외감을 갖고 사는데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임.
- 2년의 입주기간은 후기청소년의 생활과 거주 안정성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게다가 입주하였더라고 입주 자격에서 벗

어날 수 있는 요소(나이, 실업, 소득의 변화)가 항상 존재함. 20대 초반 뿐만 아니라 중후반의 연령대에서 주거지원 프로그램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대부분 보람채 퇴거 후 보다 나은 양질의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보증금 마련의 수단으로서 임대아파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입주시기가 지난 후 다시 거주 불안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냄. 이는 후기청소년의 거주문제가 여전히 개인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외부지 역사회와의 연계가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생활의 편의와 지역사회에서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강조함.

□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 시사점

- 근로자 임대아파트(보람채)에 거주하는 1인 여성가구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소외 됐던 ‘미혼 근로여성’이면서 ‘후기청소년’ 집단으로, 본 연구에서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청년 주거 빈곤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주거 빈곤 청년의 특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소득활동 및 주거 빈곤으로 인해 고시원과 같은 준주거지 생활 청년세대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보람채 입주자들의 과반수 또한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기 전 고시원·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 하위트랙을 이용했던 주거계층임.
 - 사회 진출기에 있는 청년 세대에게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은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요구받는 경력 및 맨 파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를 위한 준비는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쉽지 않으며, 이는 청년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음. 조사인터뷰에 참여한 보람채 입주자의 약 30~40%가 이직을 위한 준비 또는 진학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저렴

한 임대아파트 비용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준비는 불가능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청년 주택정책에 있어 성별에 따른 주거비 부담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여성에게 있어 주거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그 중요성을 더 두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청년세대가 비교적 접근이 가능한 고시원이나 다세대주택/빌라와 같은 곳은 치안상태가 좋지 못하고 안전에 관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여성 1인 가구가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치안에 필요한 방법시설들이 추가가격으로 매겨진 주택에서 살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보람채 입주자 조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여성 전용 고시원에 살기 위해서는 평균 45만 원 이상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함은 물론,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주거지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음.

○ 임대아파트 논의에 있어 주택이 갖는 경제적 특성 외에 사회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임대주택처럼 저소득·주거 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즉 주변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소외의 대상이 되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다는 논의가 있음(김영태, 2006; 천현숙, 2010). 이들의 특성은 쉽게 복지의존적인 행태를 보이며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욱 높아진다고 지적됨.

-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있어 입주자에 대한 자립 및 공동체 의식 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 주거환경 조성이 함께 연계되어야 함. 주거복지의 개념은 임대아파트의 사회복지시설화가 아닌 입주자의 자립의지를 함양하고 실질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다음 주거지로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수단이 되어야함. 청년 주거 빈곤층에게 있어 이러한 지원은 이들 세대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 여성 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운영 기조에도 이와 같은 주거복지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보람채 입주자들 대부분이 외부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없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아파트라는 낙인감을 인식해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임대아파트가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배제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 주거 일원으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입주자 활동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자 간의 의사소통 커뮤니티 강화를 통해 이들 청년세대의 사회통합 및 사회 연대의식을 조성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V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근로자임대아파트의 개선방안

- 제1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 및 기능재설계 안
- 제2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재설계 안
- 제3절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임대아파트 통합 재설계 안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결론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개선방안

- 본 장에서는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위치 및 기능 적합성 검토결과 및 청소년 지원정책 분석을 토대로 정책 환경 및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1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 및 기능재설계안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 개선안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예산의 상당부분이 서울시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이용률이 매우 높고 지가가 비싼 지역에 위치하면서 예산 역시 많이 투입되고 있어 운영상의 이점이 크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또한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고, 인근에 광명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으로 운영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서울시내로 이전하는 것이 서울시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됨.

-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서울시내 이전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향후 근로청소년 복지관이 주력해야 할 새로운 기능, 즉 청소년 고용지원이 최선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즉, 청소년 고용지원과 관련하여 수요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고용지원 서비스가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혹은 소외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전 위치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 아래의 표는 이러한 청소년 고용지원 관련 수요 및 공급 현황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임. 청소년 고용지원 관련 수요지표로는 청소년의 수, 근로청소년 수, 고졸 미취업 청소년 수로 보았으며, 유사 조건의 자치구 간 경쟁이 있을 경우 고졸 미취업 청소년 수, 근로청소년 수. 청소년 수순으로 지표 간 우선순위를 둬. 청소년 고용지원 관련 공급 지표로는 총 공급기관 수, 진로지원 기관 수 및 취업지원 기관수를 고려함. 청소년 고용지원 공급지표 간에는 총 공급기관수, 취업지원 기관 수, 진로지원 기관 수 순으로 고려하였음.
- 분석결과 청소년 고용지원 관련 수요 및 공급현황 고려 시,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송파구 등을 이전 후보지로 제안 가능함. 이들 안에서 고졸 미취업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밀집도, 고용지원 총 공급량 및 취업지원 공급량 순으로 고려하여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이전 위치 1순위 후보지로 강서구와 양천구를 제안하며, 2순위 후보지로 은평구와 송파구를 제안하고자 함.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우 근로청소년과 고졸 미취업 청소년이 밀집된 지역이면서 고용지원 서비스 공급은 매우 적으며 특히 취업지원 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1순위 후보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표 46 】 서울시 자치구 별 수요와 공급도

구분	청소년 고용지원 수요			청소년 고용지원 공급		
	청소년수	근로 청소년수 ¹⁾	고졸미취업 청소년수 ²⁾	진로지원 기관수 ³⁾	취업지원 기관수 ⁴⁾	총계
서울시 전체	1,830,496	140,042	36,460	117	16	133
강남구	113,105	5,272	3,557	8	1*	9
강동구	91,322	6,964	1,641	4	2	6
강북구	57,426	5,255	613	3	0	3
강서구	101,441	8,730	2,478	5	0	5
관악구	82,720	9,116	1,124	4	0	4
광진구	68,433	6,032	1,275	3	0	3
구로구	68,859	6,372	1,236	4	1*	5
금천구	41,794	4,495	642	5	0	5
노원구	125,523	6,936	3,085	5	4*	9
도봉구	68,259	5,417	1,167	6	0	6
동대문구	61,348	5,156	956	3	0	3
동작구	67,537	5,453	963	6	0	6
마포구	63,309	4,857	651	5	2*	7
서대문구	55,934	4,250	623	6	0	6
서초구	82,078	3,751	2,358	5	1*	6
성동구	50,415	4,361	560	5	0	5
성북구	83,471	6,363	1,301	5	0	5
송파구	128,437	8,159	2,631	3	1*	4
양천구	108,115	6,291	2,411	4	0	4
영등포구	61,925	5,345	995	5	1*	6
용산구	37,612	2,755	979	5	2	7
은평구	87,718	7,048	1,561	5	0	5
종로구	29,213	2,163	1,713	3	0	3
중구	20,121	2,018	884	7	3*	10
중랑구	74,381	7,483	1,056	4	0	4
자치구 평균	73,220	5,602	1,458	4.7	0.6	5.3

주1) 서울시 15~24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주2) 고등학교 졸업자 중 당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무직자)(교육통계서비스)

주3) 진로직업체협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청소년특화시설, Wee센터 등

주4) 고용센터, 시립직업훈련기관 등

주5) * 는 고용센터 소개 자치구임을 표시

자료: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서울시 및 각 자치구청 내부자료



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기능 개선안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구로공단의 산업지형 변화에 따른 근로청소년의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이용 대상층을 확대하고 일반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상담센터로서 기능을 강화시켰고, 그러한 가운데 주요 대상이어야 하는 근로청소년 지원 기능은 상당부분 축소됨. 결과적으로 초기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설립목적과 주요 목표 집단은 모호해지고 청소년 수련관이나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과 차별성이 없어지는 등 서울시 청소년 특화시설로서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근로청소년복지관의 기능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하여 서울시 청소년 특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새로운 기능개선 방향으로 청소년 고용지원을 제안하고자 함.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최근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욕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청소년 고용 관련 종합지원 인프라가 부재함. 또한 기존 청소년 고용지원정책들이 학교라는 전달체계(특히 대학과 실업계고)를 중심으로 강화됨으로써 학교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특히 저학력 청소년(인문계고 졸업 비진학 청소년, 학교밖 위기청소년, 대학 중퇴 청소년 등)의 정책 배제 문제가 심각함. 이와 더불어 고용서비스들의 분산 및 연계성 부족으로 고용지원정책이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청소년에게 종합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이로써 서울시에 청소년 고용지원의 특화된, 전문적 전담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제안함.
- 고용서비스는 직업교육과 훈련, 채용, 이직 등 고용의 전 과정을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제공하고 적합한 인력을 기업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모두 포함(김승택·신현구, 2007). 청소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불완전 청소년 취업자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구직자들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개인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기에 청소년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용서비스 활용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2010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취업알선기관(공공, 민간, 학교 등), 취업박람회 등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업한 청년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0). 우리나라 청년층은 아직까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와 지인을 통해 취업정보를 습득하며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은 매우 적음. 청년층의 고용서비스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고, 민간 고용서비스는 비정규직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공 고용서비스는 실업급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임(김승택, 2011).

-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고용서비스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전문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지역단위별 고용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김승택, 2011). 특히 대표적인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인 고용센터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고용서비스의 질이 낮고,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구직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가 미흡하며, 대부분의 업무가 고용보험 혹은 행정 관련 업무여서 취업지원과 같은 고용센터의 본연의 기능은 취약한 상황임(김승택, 2011). 또한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기업, 지자체 등의 업무 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용센터는 지역 고용서비스의 허브로서의 역할이 취약함(김승택, 2011; 정원섭·김병잔·김진욱·소재진, 2006).
- 한편,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의 경우 담당 직원 규모도 상당히 전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는 중년실업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음. 올해부터 청년취업지원을 강화한다고는 하나, 서울시 전 지역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1:1 서비스를 중요 전략을 삼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볼 때, 청소년 고용을 위한 종합지원 인프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근로청소년



년이라도 이직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러한 원스톱 고용서비스의 제공 방식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닿으며(유길상·어수봉·김재훈·김주일, 2006), 여러 고용서비스들이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의 주요 대상층으로 20대 전반의 근로 및 근로준비 청소년을 설정하고자 하며, 특히 학교제도권 밖에 있는 저학력 청소년(고졸 이하 비진학 청소년, 대학 중퇴자, 실업자, NEET족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고자 함.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은 저학력, 저경력, 저숙련으로 인해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와 동시에 학교제도권 밖에 있음으로 인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공공 고용지원체계에서도 상당부분 배제되어 있음. 실업계고나 대학의 경우 학교를 통해 어느 정도 고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진학 저학력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고용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공공 고용지원이 존재하나 분산된 채 지원되고 있고 인지도가 낮아 정작 이용률은 낮은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는 비진학이면서 취업이 절실하나 취업에 이르는 방법과 역량이 부족한 청소년, 그리고 근로 중이나 여전히 진로가 불확실하고 잦은 이직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의 세부 사업안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앞선 분석결과와 더불어 해외의 선진화된 고용지원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다음에 제시된 고용지원센터의 해외 사례에서 보듯, 최근 해외의 선진 고용지원방식은 다음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갖고 있음. 무엇보다 고용·훈련·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종합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이를 위해 지역단위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음. 또한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유길상 외, 2006; 정원섭 외, 2006).

〈 미국 사례 : 원스톱 커리어 센터(One-stop Career Center) 〉

- 연방부처들이 제공하는 고용, 훈련, 복지서비스들을 한 곳으로 제공하도록 설립된 종합서비스센터로서, 비영리조직이 운영주체임. 실업자, 구직자, 취약계층이 주 이용자 집단이며, 지역기관들의 파트너십에 기반해 운영됨.
- 원스톱 커리어 센터의 서비스는 3단계로 구성됨. 1단계는 핵심 서비스(Core Services)로, 고용정보 제공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2단계는 집중 서비스(Intensive Services)로, 핵심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자이거나 취업자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계획 설계, 이력서 준비, 직업상담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3단계는 1·2 단계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함.
- 프로파일링(profiling)을 통해 장기실업 고위험자를 조기발굴하고, 초기단계부터 개인별 특성에 맞게 심층적인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 개별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지원함.

〈 호주 사례 : 센터링크(Centrelink)와 잡네트워크(Job Network) 〉

- 공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구로서,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들을 국민들이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됨. 노동부, 교육부, 가족부 등 연방 정부의 부처를 비롯하여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대민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센터링크는 전국 1,000여개가 넘는 고용서비스기관들을 통해, 취업알선,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며, 실업부조, 질병 및 장애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위해 민간 고용서비스기관들로 구성된 잡네트워크 회원사들과 서비스 구매계약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잡네트워크 기관들은 개별 구직자의 특성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의 일자리 검색서비스와 집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유길상 외(2006), 정원섭 외(2006)



-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선, 고용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고용서비스 지원보다는 지역단위에서의 고용지원 네트워크(혹은 파트너십)를 구축하고 지역 고용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청소년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존 지역기관들과 연계성 없이 운영되는 고용지원센터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연계에 기반한 효율적인 청소년

고용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둘째, 고용지원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용지원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어디서 어떻게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민간 취업포탈에 의존해 스스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구직자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 훈련, 복지서비스를 한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고용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고용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셋째, 고용서비스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개별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기존의 우리나라 고용지원정책에서는 청소년이 일반 성인과 동일시되거나 혹은 청년이라는 범주 안에 모호하게 대상화되어 있음. 그보다는 청소년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개별화된 고용지원설계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고용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특화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취약계층의 상황이 일반계층의 상황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특화된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의 세부 사업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1) 청소년 원스톱 종합고용지원 시스템 운영 모델안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로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근로자 복지지원 등을 연계하여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하는 종합고용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 중이지만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에 의뢰하면 개별 청소년에 맞는 고용지원플랜 설계를 지원하고 서울시내 고용지원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용, 훈련, 복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관련 사업들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들이 유기적인 연계 하에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허브기관이 필요함(유길상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고용지원센터」가 서울시 청소년 고용지원네트워크의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청소년 수요자 입장에서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모델로 청소년 윈스톱 종합고용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을 제안함.

- 그림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근로복지를 종합적으로 윈스톱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함.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공공 고용지원체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이용경험이 있더라도 지원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난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피력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고용 전담 기구로서 인식시키고 필요한 지원들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이로써, 청소년이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서비스 지원을 의뢰하게 되면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근로복지 등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 또한 본 모델에서 주목할 점은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는 직접 서비스보다는 연계 서비스에 더 큰 초점을 둔다는 것임. 서울시의 청소년 고용 전담 인프라로서 직접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가능하면 고용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서울시내에 이미 활발히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 고용서비스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앞서 지적된 고용서비스의 분산 및 중복 문제를 완화하고 각자 전문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존 기관들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청소년 고용지원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지원의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음. 진로설계 지원은 진로진단, 진로상담, 직업정보 제공 등이 주를 이루며, 수요자의 거주지 혹은 직장 근처에



서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함. 직업훈련 지원에는 직업체험,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자격정도, 훈련이력 관리 등이 포함됨. 자격정보와 훈련이력은 센터의 포털을 통해 온라인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이나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자 함. 취업알선 지원에는 구인정보(일자리 정보) 제공, 경력관리, 취업준비,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되며, 기존의 청년 특화 고용정보망인 잡영(Job Young)과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 민간 취업포털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근로복지 지원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따른 수당, 구직급여, 실업급여, 근로자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금 연계와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연계 및 노동권교육 등을 아우르며, 한국고용정보센터, 고용센터, 안심알바신고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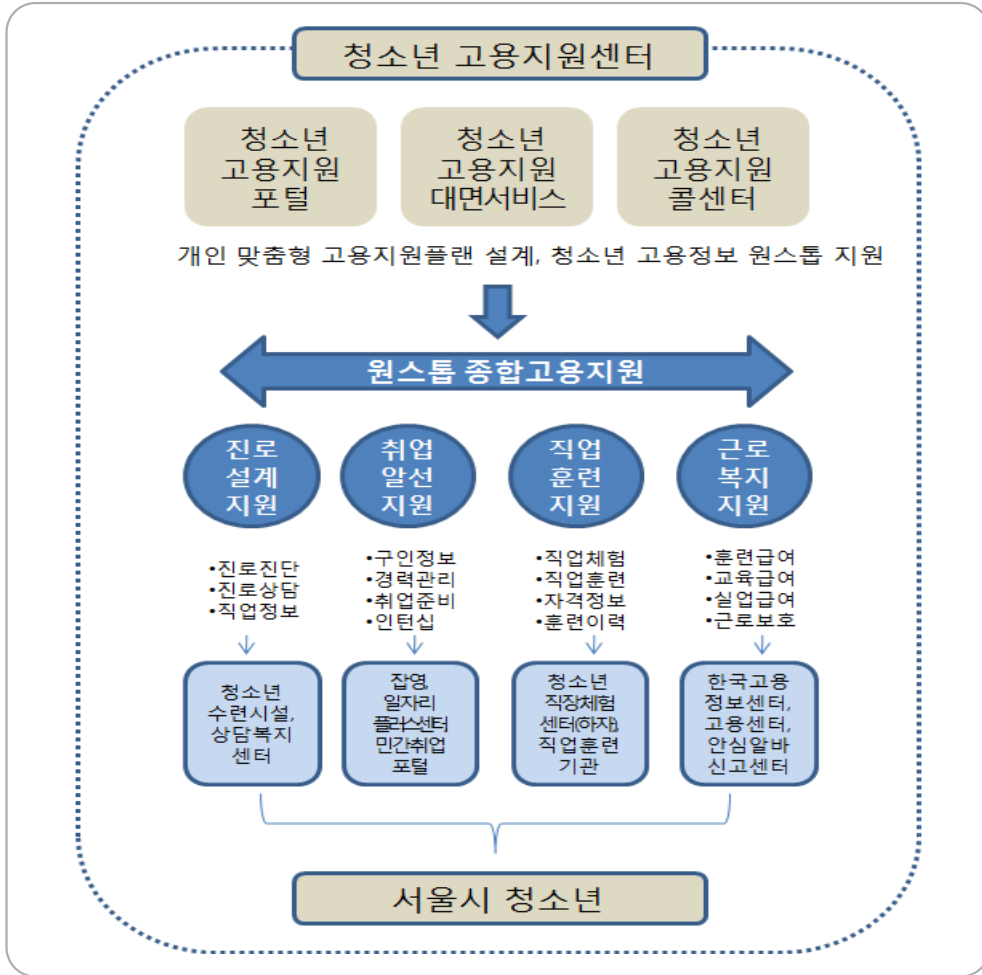


그림 36 | 청소년 원스톱 종합고용지원 시스템 운영모델 안

2) 청소년 고용지원 포털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전용 온라인 고용지원 포털 운영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없이 민간 취업포털에만 의존해 스스로 취업기회를 찾고 있음. 이에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는 서울시 청소년 고용전담 기구로서 청소년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종합고용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함.

- 청소년 고용지원 포털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기회를 찾고 고용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직업훈련을 갖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고용지원 인프라로, 고용지원과 관련된 종합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컴퓨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지원될 예정으로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고용정보들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설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근로복지 등 고용지원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이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 이는 곧 개인 맞춤형 고용지원플랜이 포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원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고용정보를 분산된 방식으로 그리고 개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제공하는 기존 포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실질적인 고용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임.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업포털인 잡영(Job Young) 역시 취업정보, 고용보험 정보, 직업훈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난해한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만 정보 습득이 가능하고 특히 청소년 개인에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소년 개인 맞춤형 고용지원플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정보(연령, 학력, 주거지 등)와 진로진단 정보(적성, 성격 등), 고용이력 정보(고용상태, 직업훈련 이력, 취업지원 이력 등), 고용니즈 정보(희망 연봉, 직장 등)를 기반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취업, 직업훈련, 복지 등의 통합적인 정보 제공과 연계 가능 서비스들의 지원계획이 제공되어야 함. 이미 영국, 캐나다 등 고용서비스 선진국에서는 개인별 기본정보, 고용이력 정보, 맞춤형 서비스 정보 등 개인 프로파일이 한 스크린 안에 제공되고 있으며, 개인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개인별 노동시장의 이행과정별, 진로발달 및 경력개발 단계를 분석하여 맞춤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지승현, 2011). 이처럼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청소년 고용지원 포털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서비스 정보 제공, 개별화된 고용지원플랜 설계 및 서비스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취업정보, 고용보험 정보, 직업훈련 정보, 노동시장 정보, 기업 정보 등의 통합 역시 필요함.

3) 청소년 고용지원 원스톱 콜센터

- 청소년 고용지원 정책 분석 및 고졸 비진학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에서 제시되듯, 학교체제를 벗어나 있는 청소년은 고용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는 공적 서비스로부터 배제됨을 물론, 고용지원 관련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함.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체감도도 낮고 어떤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진로상담, 취업정보, 직업훈련 정보, 급여 정보 등 고용지원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종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정보종합창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함. 콜센터를 통해서도 장시간의 진로상담이나 취업상담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청소년들이 고용과 관련하여 어디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무엇보다 원스톱 콜센터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고용지원체계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불안정한 계약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있으며 부당근로와 부당대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부당대우에 대해 노동부에 전화했으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신고 절차가 복잡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원스톱 콜센터를 통해 근로권 침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신고체계 및 지원체계로의 직접 연계를 모색해 볼 수 있음. 또한 유선을 통한 대인상담 서비스를 통해 근로기준 정보 및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하며, 다양한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제공해 볼 수 있음.



4) 저학력 청소년 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 사업

- 본 연구에서는 고용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저학력 청소년을 위한 단계적, 집중적 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으로 취업의 처음과 끝을 모두 책임지는 취업 토달케어 서비스임. 선진 고용서비스 모델의 특징에서도 보듯 취업취약집단에 대한 특화된 지원과 배려는 필요하다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비진학 저학력 청소년 지원에 주목하고자 함.

- 전술된 바와 같이 학교체계 밖에 있는 저학력 청소년(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대학 중퇴자 등)은 취업기회가 적고 고용환경이 악화될수록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집단임. 그러면서도 고용지원정책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취업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음. 최근 고졸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저학력 청소년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커지고 있으나 실업계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문계고 졸업 청소년은 배제되는 상황임. 전술한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크지 않아 대상자들이 정책체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취약집단 특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학력 청소년을 위한 단계별 고용서비스 패키지 사업을 제안함.
- 본 사업의 운영방식은 기본적으로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 유사함. 즉, 고용서비스 패키지에는 진로진단 및 상담, 경력설계, 취업준비, 직업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고용과 관련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포괄함. 이러한 서비스들이 개인의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같이 청소년과 전문 직업상담사 간의 1:1 대면 접촉을 통한 밀착 지원 및 관리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5) 청소년 고용지원 네트워크 구축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는 기존의 청(소)년 고용지원과 관련된 기존의 모든 공적·민간 기관들을 연계하여 고용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중복은 막으면서 사각지대는 최소화한다는 기본 전략을 가짐.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공급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 고용 관련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특히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빠르게 변화되는 고용시장과 청소년들의 고용지원 욕구 변화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용지원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소년 고용지원 네트워크에는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민간비영리의 진로지원 및 취업알선 기관, 직업훈련기관 및 대학, 근로자 복지서비스 및 고용정보 제공기관, 중앙 및 지자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음.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는 네트워크의 허브기관으로서, 참여 기관들 간의 대상자, 프로그램, 정보, 공간의 연계 및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며, 참여 단체와 기업체의 발굴, 수요자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다음의 표는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와 유사 기능 수행 서울시 기관 간에 비교를 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우선,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와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비교해 보면, 두 센터 모두 고용 관련 종합 허브 혹은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은 같음. 그러나,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는 청소년 전담 기구이고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장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지원방식의 경우 두 센터 모두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연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함. 그러나,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는 모든 고용서비스들이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직접 서비스보다는 연계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원스톱 콜센터 운영 등 청소년 전용 종합 정보 및 서비스 창구의 역할이 강조됨. 반면,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1:1 대면 지원이나 찾아가는 지원 등 직접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 연계는 주로 정보제공과 관련되어 있음.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와 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의 차이는 더욱 분명함. 「청소년 고용지원센터」가 진로설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근로복지 등 매우 다양한 고용서비스 영역을 다루고 있는 반면,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는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 진로교육에 국한되어 있음. 특히 향후 신설이 계획된 제2하자센터는 대상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있고 지역 진로체험장 발굴, 지역 인턴십·멘토링 시스템 구축, 지역기반 도제식 직업교육 도입 등 지역밀착형 진로인프라 구축에 목표



를 둔다는 점에서「청소년 고용지원센터」과는 대상이나 사업의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음.

【 표 47 】 청소년 고용지원센터 및 유사 기능 수행 서울시 기관 비교

청소년 고용지원센터(안)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제1하자센터	제2하자센터(안)
서울시 청소년 고용 종합지원 인프라	서울시 일자리 종합 허브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직업체험 현장의 허브 센터
20대 전반 근로 및 근로준비 청소년 ※우선대상: 고졸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취업 및 창업 희망 서울 시민 대상 - 장년, 여성, 고령자 초점 - 최근 청년 지원 강화	일반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일반 청소년
강서구(안)	중구	영등포구	은평구 (구) 질병관리본부내
- 청소년 고용지원 포털: 개인 타겟팅 서비스 - 청소년 고용지원 콜센터 - 저학력 청소년 대상 고 용지원 패키지 지원사업 - 청소년 고용네트워크 구축	- 1:1 맞춤형 구직, 구인 지원 - 찾아가는 구직상담 - 시립 직업교육훈 련 정보제공 및 연계 - 고용지원사업 : 청년 인턴십,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 원 사업	- 작업장 학교 - 대안학교 -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 창의학습 (진로교육)	- 지역밀착형 진로 인프라 구축 : 마을 단위 진로체험장 발 굴, 지역기관 인턴십 시스 템, 시니어 직업 멘토링 시스템 - 장인공방 운영 및 도제식 직업교육(청소년 장인학교) - 서울형 스튜디오 스쿨 도 입(지역 프로젝트 기반 장인학교)

자료: 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시 내부자료 참조

제2절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재설계 방안

- 청년 주거 빈곤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들이 시범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986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종합계획’ 이후 저소득 근로청소년을 위한 이렇다 할 주택 특성화 정책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일하는 청소년 특히 여성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관련 조사가 실시된 바가 없어 보람채 입주자 조사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근로청소년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가 실시한 임대아파트 입주자 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현 임대아파트의 관리는 다양화되고 있는 근로형태 및 젊은 청년세대의 주거 욕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20대 청년들의 세대적 특성이 반영된 주거 복지적 관점 또한 이해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아파트의 변화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변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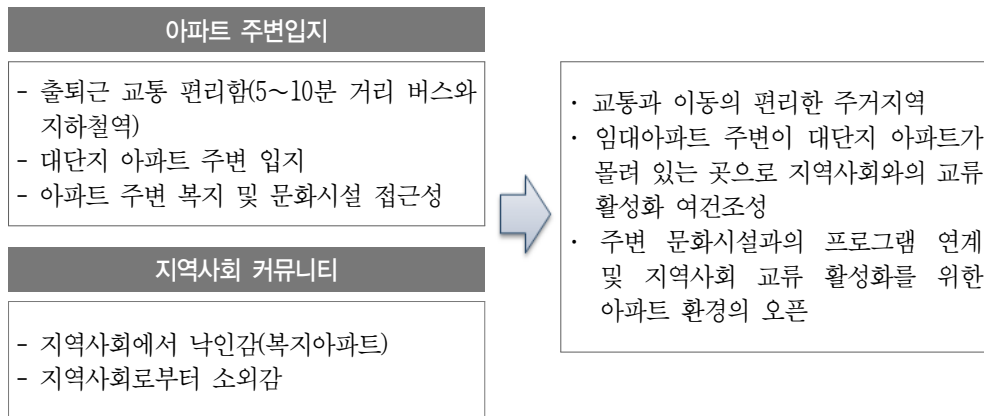
1) 주거지 환경을 고려한 변화요소

- 현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입주자들은 서울 소재지 직장을 다니는 직장여성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을 오가며 출퇴근을 하고 있음.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5분 이내 거리에 버스정류소가 있고 10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퇴근에 따른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시내 접근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상존하는 곳으로 일반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 근거리에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그리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주거지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이 인식하는 임대아파트의 대외적 이미지는 좋지 못해 지역민들에게 ‘여자기숙사’, ‘복지아파트’라는 특수하고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함. 입주자들은 외부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고 소외되어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아파트 이미지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함. 이는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취약계층이 몰려 사는 복지아파트의 이미지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주거계층으로 낙인화되어있음.
- 대부분 임대아파트가 시 외곽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반영해 최근의 임대주택 정책은 소셜 믹스(social mix) 개념을 임대아파트 계획단계에서 적용하여 설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개선을 꾀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근거로 임대아파트 개선방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현 임대아파트의 주변 입지가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는 거주 지역으로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폐쇄적인 아파트 환경을 오픈하여 주변 문화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 및 지역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주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형성해야할 것임.

■ 표 48 ■ 주거지 환경을 고려한 변화요소



2) 주거조건과 아파트 관리 행태 및 시설환경에 따른 변화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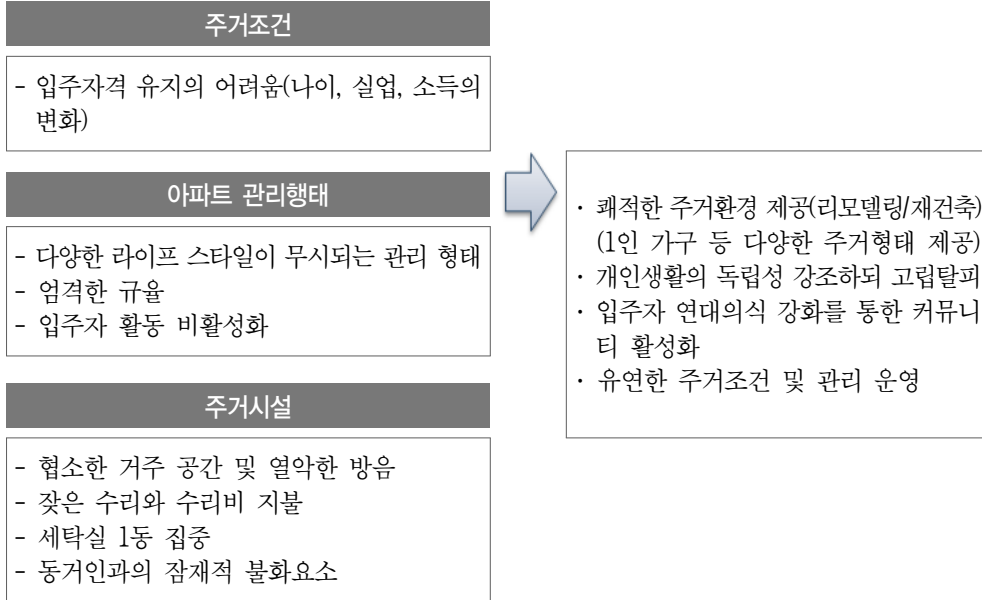
- 저임금 1인 가구 여성은 경제적 능력이 높지 않고 사회생활이 충분치 않아 이 동성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음(한국여성노동자회, 2010). 특히 현 임대아파트 의 입주 자격은 나이와 소득 그리고 입주기간이 제한되고 획일화된 조건을 유 지하고 있어, 저임금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이 들어 남. 최근의 주거 빈곤 청년 세대는 제한된 일자리와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증가 에 따라 20대 후반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권지 용·이은진, 2013), 일자리의 잦은 이동, 항시 존재하는 실업의 불안감 그에 따 른 소득의 변화는 입주 자격을 유지하기에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있음. 최근 임 대주택에서 나타나는 거주기간에 대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청년세대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이 반영된 입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인구구조 및 주거인식에 대한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3가구 중 2가구 이상이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국토 해양부, 2012). 이에 따라 소형 주택 임대수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유형으로 임대주택과 같은 작은 주택은 앞으로 그 수 요가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Haudreport, 2012).
- 저렴한 주거비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1가구 2인 생활을 하고 있음.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생활 고충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낮 선 동거인과의 생활 불편함을 토로함.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욕구 조사결과 1 가구 1세대 모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임대료가 올 라간다면 월수입의 1/5~1/4까지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 평균 25만 원정 도의 임대료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임대아파트 거주기 간에 따른 입주자 소득분포 분석 결과, 월 임금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 청소년 일수록 3년 이상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포가 월 임금 100만원 이상의 입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저소득 임대아파트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 지불 또는 1가구 1인 가구와 1가구 2인 가구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임대 구조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임대아파트의 시설관리팀이 있으나 워낙 노후한 아파트로 시설의 리모델링/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태임. 천장이 일부 무너지거나, 창틀고장으로 개폐가 어렵고 세면대가 떨어지는 등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시설 안전 부분에 있어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후 조치를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거 안전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 물리적 시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방음도 전혀 되지 않아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또한 침해 받고 있어 입주자의 불편함이 큼. 따라서, 물리적 시설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며, 시설을 통한 리모델링 방향은 고정형 실내구조를 탈피하고, 거주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지 않는 설계가 필요함.
- 현 임대아파트는 11개의 퇴소항목을 두고 있고 통금시간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출입증 검사 및 출입통제를 통해 엄격한 행동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입주자들은 엄격한 규율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나, 받아들이고 살아야 수용의 태도를 나타냄. 저렴한 주거비와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규율에 대한 불만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보임. 20대 청년세대 정체성을 감안할 때,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 동시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 경우, 정서적, 물리적 안전을 추구하려는 욕구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개인생활의 독립성을 강조하되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관계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요구되어 짐.
- 현재와 같은 별점 제도에 의한 자치회 활동은 더 이상 입주자에게 별 의미가 있지 못하며, 입주자간 유대감, 소속감, 연대의식에 대한 초보적 단계에서부터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거주 자치권에 대한 논의 주체, 결정주체, 실천주체로서의 여성을 위치시키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요구됨.

【 표 49 】 주거조건과 아파트 관리 행태 및 시설환경에 따른 변화요소



3) 주거 환경의 안전성 및 자립기반에 따른 변화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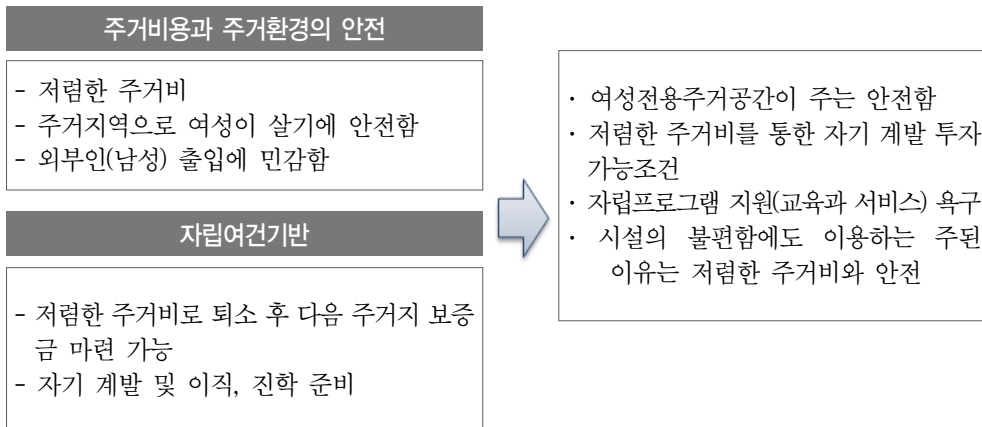
- 입주자에게 임대아파트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와 주거지역으로 여성이 살기에 안전한 곳이라는 점임. 20대 청소년에게 부담 가능한 주거비와 안전을 함께 고려해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토로함. 안전한 거주지를 구하기 위해 친구의 집 혹은 여성전용 고시원 등을 선택하기도 하나 여성전용 고시원은 임대료 부담이 커 이들 세대에게 대안적인 주거형태로 보기 힘들.
- 가족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 특히 남성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여성 전용 아파트가 갖는 장점으로 시선의 자유로움,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둘 수 있다는 점으로 공간 및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는 1인 가구 여성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청년 세대의 공간적 삶을 연구한 정민우·이나영(2011)은 청년 주거 빈곤층에서 나타나는 거주 공간에 대한 불안 특히 고시원·다세대주택 여성 생활자에게 있어 남성들의 관찰하고 목격하는 시선에 대한 억압 및 가시성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은 주거환경의 안전함을 느



끼는데 중요한 요소임이 파악됨.

- 경로적 주거지로서 임대아파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주거 및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입주자 임대아파트 욕구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자기 계발 및 이직과 진학준비를 통해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가기 위해 주거문제는 이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 현 임대아파트의 경우 거주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자기 계발을 통한 이직 및 진학 준비가 유리하며, 줄어든 임대료에 따라 저축이 늘어나게 되어 독립자금(보증금) 보유가 가능해지는 구조임. 따라서 이들 후기청소녀들의 안정적 독립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이를 위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며, 이들 세대의 특성에 따른 주거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등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표 50 】 주거의 안전성 및 자립여건에 따른 변화요소



2.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재설계 안

- 임대아파트의 장점이면서 긍정적인 측면인, 편리한 교통과 여성이 살아가기에 안전한 주거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시설을 현 위치에 두면서 근로 청소년들의 새로운 욕구를 고려해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3.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기능 재설계 안

1) 가교와 연대를 통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 본 연구가 제시하는 임대아파트 운영정책의 큰 틀은 첫째,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에 따른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 안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임⁸⁾. 시설 환경의 개선은 외부인 출입 관리를 포함한 성범죄로부터 보호, 여성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및 거주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물리적·환경적 설계가 동시에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1인 1가구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원룸 형 가구를 시도해볼 수 있으며, 입주자 조사에서 세대 당 입주인원으로

8) 리모델링/재건축 시 고려사항 - 토지 매매 전문가 및 건축 관계자 자문 결과 반영

토지 용도	- 임대아파트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 4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한 상태임 - 급지를 바꾼 후 매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법적 검토가 요구
건물 가치	- 보통 아파트가 감가상각기간이 40년임을 감안할 때, 현재 임대아파트가 30년 된 건물로 건물의 자산 가치는 높지 않음
리모델링 비용	- 대지여건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관공서 기준 단가로 바닥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 할 경우 평당 최소 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감. 아파트가 6,000 평임을 감안하면 약 180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아파트 6,000평 × 300만원 = 180억원)
재건축 비용	- 바닥 구조체 값 150만원을 더해 평당 최소 4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감. 아파트가 6,000평임을 감안하면 약 270억원의 비용 소요됨. (아파트 6,000평 × 450만원 = 270억원)
매매가 (공시지가기준)	-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2,550,000원임 - 매매가 2,550,000원(공시지가) × 69,071㎡(2만평)=1,760억원

2명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큰 불만이 없는 점과 자매 거주자를 배려해 1가구 2인 거주 형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생애주기 상 후기청소년으로서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물리적·관계적 안전망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 이러한 입주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 2년 후 퇴거 시 주거 자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 대상자의 입주목적인 안전하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거주지 확보를 담보하고 퇴거 후 자립을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이 요구됨. 사회주택의 공급수요 확대뿐만 아니라 주거자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셋째, 공공임대주택을 주변지역과 융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요구되고, 이를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관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후기청소년의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관리대상자, 정책 수혜자로 위치시키기 보다는 이들의 주거가 사회문제로서 공공의 영역임을 인식시키는 능동성이 요구되며, 연대 방식을 통한 여성 1인가구로서의 생활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51】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기본 방향

임대아파트 위치	임대아파트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으로서 안전성과 출퇴근 용이성에 근거 현 위치 존치(存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리모델링/재건축) ○ 2차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프로그램 (교육과 서비스) · 안정적인 주거단계로 이동을 돕는 가교역할 ○ 3차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연대강화와 환경의 오픈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 생활자치 권한 강화

2) 임대아파트 운영의 기본 내용

- 앞서 임대아파트의 잠재적 변화 요소를 바탕으로 일하는 여성 후기청소년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하였음.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임대아파트 운영에 따른 중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입주 대상자와 자격요건, 입주 기간의 허용 및 입주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운영을 위한 기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1) 입주 대상자 및 자격요건

- 기존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유지
 - 여성전용 거주지가 주는 거주 안전을 확보하고 성범죄 포함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을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안전을 담보해야함.
 - 여성의 안전한 주거지로 기능하기 위해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주거환경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함.
- 대상자 선정 및 자격 요건
 - 임대아파트 리모델링/재건축 시 기존 입주자의 입주 계약 기간을 보장해줘야 할 것임.
 - 입주자 선정 대상 및 우선순위 기준 검토가 필요함. 우선순위는 근로자, 연령, 월 소득, 학력, 출신지역을 포함한 기본 기준과 함께, 근로를 준비하는 구직자, 창업자, 직업전문학교 학생 등 입직을 준비하는 지원자를 위한 주거지로서 기능해야 할 것임.
 - ‘구직자’의 입주대상 추가 여부 검토가 필요함. 생활비와 취업비의 이중압박에 시달리는 여성 후기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입주 기회를 주어 이들이 수도권 내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입직하는데 주거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출신 구직청년에게 임시거주지로 기능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 또한 검토가 필요함. 현 임대아파트의 과반수가 지방 출신으로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에서 온 취업자 또는 구직자에 대

한 입주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주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경제자립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창업 계획안이 참신한 창업 지원자에게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주는 인센티브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여성의 창업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자립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만 26세 이하 미혼 근로여성으로 월 150만원 이하의 소득자로 제한하고 있음. 청년 주거 세대의 연령 분포가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것을 고려해 20대 후반이더라도 저소득자이거나 주거 하위트랙을 벗어나기 힘든 근로여성에게 입주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입주기간

- 공공임대거주자들에 대한 특성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낮고 거주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받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공적 주거지원이 주거 및 경제활동의 자립으로 연결되지 못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임(김영태, 2006; 천현숙, 2010).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입주기간을 6년으로 제한을 두거나(김영태, 2006) 최근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나타나듯이 일정한 입주계약 기간(보통 2년) 이후 기간 연장에 대한 확실적인 제한을 두기 보다는 추가 부담비와 같은 패널티를 적용하여 유연한 거주기간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주거지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거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자립 기반을 돕는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의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강해졌기 때문임(김영태, 2006).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기능적으로는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주자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운영형태를 가져가는 추세임. 따라서, 임대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거주 기간의 제한을 유연하게 가져가돼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복지의존성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함.

(3) 운영주체 및 프로그램

- 공공임대주택 논의에서 입주자의 경제적인 역량 강화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이 시장에서 스스로 적정한 수준의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인데서 기인함(서종균·김현옥, 2011). 따라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입주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해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자기실현을 돕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임대아파트를 주변지역과 융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재생시키고, 거주자들의 자치활동을 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자 지원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음. 외국의 사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생을 위해 Family Self-Sufficiency,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참여자의 고용 등을 지원하는 사례관리와 서비스 그리고 자산을 형성하여 임대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짐.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1명 이상의 사례관리자를 두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참여자들은 사례관리자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자산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실천, 직업 훈련 등과 서비스를 받고 독립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서종균·김현옥, 2011).
 - 호주 빅토리아(Victoria) 주의 경우 임차인 고용 프로그램(Public Tenant Employment Program)을 통해 공인된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훈련과정 이후 직업을 구하는 과정을 지방정부의 노동청 고용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고용주에게 연결하여 직원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사회 고용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되고 있음. 호주의 경우는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 또는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복지수혜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형성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서종균·김현옥, 2011).

- 이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 사례관리 담당자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거점화 해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재원을 연결해주거나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상담사를 연결해 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전망 요소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코디네이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시설과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운영 및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제3절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임대아파트 통합설계 안

- 본 연구는 지리적 적합성과 기능적 필요성에 기반 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임대아파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위치 적합성 검토결과, 서울시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광명시내 청소년 수련관 신설에 따른 현 근로복지관 운영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어 광명시 위치의 우위성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청소년복지관의 기능 적합성 검토결과, 근로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부재로 특화시설로서의 운영목적 및 사업의 방향성이 상실된 점과 청소년 고용 관련 욕구 및 환경 변화에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기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담센터와의 기능 중복의 문제점이 나타남.
-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적합성 검토결과, 임대아파트가 지리적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으며, 주거환경이 안전하고, 주변 생활편의 시설이 근 거리에 있어 주거지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임대아파트 기능 검토결과, 30년 된 오래된 시설과 단지 내 편의 시설 부족으로 물리적 환경의 질이 낮은 상황이며,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무시되는 아파트 관리 행태와 낙인화 된 아파트 이미지로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또한 복지관과 입주자 활동 연계사업 참여자가 저조해 입주자 커뮤니티가 비활성화 되어 있으며, 경로적 주거지로서 임대아파트의 기능이 부재한 상태임.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이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복지관을 서울로 이전하고, 청소년 일 관련 수요 밀집도 및 서비스 공급소외도를 고려하여 서울 내 우선 위치지역을 제안함(강서구, 양천구 등). 청소년 일 관련 욕구 및 청소년 진로·직업 지원 정책 사각지대를 고려해「청소년고용지원센터」로 기능 전환을 통해 청소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윈스톱 지원체계를 조성할 것을 제안함. 셋째, 임대아파트가 주거지역으로 안전하고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현 위치에 존치(存置)할 것을 제안하고, 기능적으로는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고



후기청소년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다음 주거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정책 활용도 측면에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통합 설계에 관한 3가지 안을 별도 제시함. 1안으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분리하여 복지관만 서울로 이전하는 안과 2안으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모두 서울로 통합 이전하는 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현 위치에 통합 존치(存置)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각각의 안에 대한 장단점 제시를 통해 서울시가 현 시점에서 가능한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음.
- 1안에 따라 복지관만 서울로 이전하고 임대아파트를 현 위치에 존치할 시에 고려해 볼 점은 다음과 같음.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복지관을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해 서울로 이전한다면, 무엇보다도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시대적으로 요구받는 청소년을 위한 기능이 탑재된 기관으로의 변모와 위치 전환을 통해 복지관은 서울시 대표 특화시설로서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임. 또한 서울 중심에 위치한 많은 고용지원 서비스와 시설을 연계해 기능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그 서비스의 효과는 물론 재정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복지관을 서울로 이전할 시에 갖는 많은 장점 뒤에 근로청소년들의 주거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시설과 분리됨으로 인해 근로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거지원의 부재가 불가피함.
- 2안에 따라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매매를 통한 통합 이전 시 고려해 볼 점은 다음과 같음. 임대아파트가 서울로 이전함으로써 서울시 근로청소년에게 저렴한 주택 제공과 더불어 임대아파트 이전에 따른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물리적 환경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본 연구가 제시한 입주자의 특성에 따른 심리적·관계적 주거안전망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서울시 근로 청소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특히 복지관과 임대아파트가 통합 이전함에 따라 고용 및 주거 지원이 함께 제공될 수 있어 주거 안정을 통한 경제자립 가속화는 물론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통합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

함. 현 복지관과 임대아파트의 부지를 합치면 약 2만평에 달하고 있어 규모의 부동산 매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매매가 되더라도 서울시 내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함께 고가의 부동산 매입을 통한 신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됨.

- 3안에 따라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경기도 광명시 현 위치에 통합 존치 시 고려해 볼 점은 다음과 같음.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현 위치에 존치함에 따른 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노화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으로 추가 비용 발생 여지는 여전히 존재함. 또한 2014년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의 신설에 따라 이용자 경쟁에서 열위가 예측됨. 이에 따라 복지관은 기능 전환이 아니고서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근접 유사 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52 |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통합설계 안

<p>시립청소년 복지관 이전 및 기능재설계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소년 이용률 저조 및 경쟁기관 신설에 따른 서울시 이전 제안(위치제시) ▶ 기능중복 및 정책 사각지대 고려 「청소년 고용지원센터」 제안 	<p>임대아파트 이전 및 기능재설계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으로서 안전성과 출퇴근 용이성에 근거 현 위치 존치(存置) ▶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업그레이드와 후기청소년 주거지원프로그램 강화 	<p>근로청소년복지관과 임대아파트 통합 설계 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형 복지관과 임대아파트 분리 이전 (복지관만 이전) II 형 복지관과 아파트 통합이전 III 형 복지관과 아파트 통합준치
<p>1안: 복지관 & 임대아파트 분리 이전모형 (복지관만 이전)</p>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내 이전으로 근로청소년 접근성 UP • 이전, 신축으로 인한 근로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도약 • 재정효율성(총 전체인적 2만평, 1,760 여원 분리 매개 효율적)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청소년의 핵심 지원 중 하나인 주거지원 부재 	<p>2안: 복지관 & 아파트 통합이전 (매매)</p>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내로 진입함으로써 주거권 점근성 UP • 신축건물 이전으로 주거환경 및 입주자 자존감 UP • 근로청소년 고용지원 + 주거지원으로 시너지 UP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아파트 신축 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 • 2만평 규모의 부동산 매매 문제 • 서울시 내 부지신청의 문제와 임대아파트 이전 타당성 취약 	<p>3안: 복지관 & 아파트 통합 존치 (재설계)</p>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비용 및 광명시 인점 서울시민 이용 지속 가능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광명시복지관 건립(소하동)으로 시립복지관 활용도 저하 • 근로청소년 중심의 사업 지향 어렵고, 일반시민으로 할 경우 복지관이름 및 특성 변경 • 노화된 아파트 건물 시설 안전측면 부담감 증가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결론

-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이용자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분석 위주로 전문 인력 및 시설 운영 등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시설의 인력관리와 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이와 관련한 기능 재설계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복지관과 임대 아파트의 위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내용 전개로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 배치와 공간적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음.
- 6월 한 달간의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이용자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을 분석한 것으로 연간 운영 현황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복지관이 제시한 2013년 1~4월간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도 위에서 제시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 2013년 상반기 운영현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청소년 주거문제와 관련해 기존 연구가 많지 않고 활용 가능한 2차 데이터를 찾지 못해 현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중심으로 수집한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임대아파트 밖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주거 빈곤층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추가 조사 연구를 통한 포괄적 욕구 파악이 요구됨.
- 본 연구는 현재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임대아파트의 위치 및 기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토를 위주로 시행되었음. 이를 통해 나타난 검토 결과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서울시 청소년을 위한 특화 시설로서 재도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근로청소년 또는 근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과 주거를 잇는 근로주거복지 정책을 위한 후속 연구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 경인지방통계청(2011). 「2011 서울지역 청소년 통계」.
- 고용노동부(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국토해양부(2012). 「인구·가구 구조와 주택 수요변화」. 통계청 보도자료
- 권지용·이은진(2013).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 주거복지 컨퍼런스.
- 김기현·맹영임(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민경·황영은(2012). 「2012년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인센티브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서연(2013). “청년층 주거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102. 10-19.
- 김성환(2009). “실직자 재취업에 미치는 고용지원서비스 효과분석”. 「사회복지정책」, 36(4)
- 김승택·신현구(2007). 「민간고용서비스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승택(2011).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진단”, 『월간 노동리뷰』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태(2009). “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7(1). 127-134.
- 김유선·이명규·이정봉(2012).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민주정책연구원.
- 김재민·배경자·남상오·한진영(2012). 「여성이 안전한 공공원룸주택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태완·김문길·정진욱·강성호·윤상용·이주미·정희선(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2010). 「청년 주거실태조사」.
- 박기현(2013).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박진희(2012).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노동시장현황과 시사점”, 「고용이슈」, 3월호.
- 서울시(2013).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2013년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24호.
- 서울시(2013). 「2013년 서울시 청소년정책 종합계획」. 서울시 내부자료.
- 서종균·김현옥(2011).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고용지원 정책”. 「도시와 빈곤」, 90. 6-12.
- 손낙구(2008).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2012). 「근로청소년복지관 종합발전 계획보고서」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2012). “2012년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임대아파트 운영현황 내부자료”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2013). “2013년 6월 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자 현황 내부자료”
- 안선영, Hernan Cuervo, Johanna Wyn, 김지희(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호주멜버른대학교 청년연구소.
- 안선영·김희진·박현준·김태령(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호경(2012). 「청년 불안정 노동과 그 대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정책토론회
- 여성가족부(2013). 「2012 청소년백서」.
- 유길상·어수봉·김재훈·김주일(2006).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노동부.
- 윤형한·신동준(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경상·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 연구」, 18(2), 19-38.
- 이대원(2010). 「청년층 주거문제 현황과 대책」.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이동훈(2012).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SDI 정책리포트.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이상우·정권택(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CEO Information」. 395호, 삼성경제연구소.
- 이소희·도미향·정익중·김민정·변미희(2012). “청소년복지론”. 나남.
- 이승렬·강병식·반정호·손혜경·홍영표(2012). 「고졸 미만 학력 청년층 고용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태진(2009). “제위기에 따른 주거빈곤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 43-55.
- 이태진·현시웅·김선미·우선희·김정은(2010).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시행 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한솔(2013). “대학생의 주거권을 말한다”. 「도시와 빈곤」. 102, 50-61.
- 임세희(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영식·정경은·김윤나(2011). “비진학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와 정책 방안”. 「청소년학 연구」, 18(12) 583-608.
- 전병유(2010). 「한국의 청년 실업·고용문제와 고용안전망」, 한국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 발표문.
- 전주용·민주홍·김미란·남기곤·강순희(2012).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
- 정민우·이나영(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 사회」. 89, 105-145.
- 정연순(2013). 「한국 청년고용 문제와 니트」.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
- 정원섭·김병진·김진욱·소재진(2006). 「제대군인 일지라 지원을 위한 지역별 민관협력 네트워크

- 크 구축방안. 한국정책학회.
- 정인수(2009), “고용위기 진단과 정책대응”. 「한국고용정보 심포지엄」 1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지승현(2011), ‘3대 고용DB 통합’을 통한 Targeting 고용서비스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창립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한국고용정보원.
- 조금주(2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근로보호 필요성.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대책 토론회 자료집」. 1-14.
- 조성연·이미리·박은미(2009). “학업중단 청소년”. 「아동학회지」, 30(6), 391-403.
- 채창균·오호영·윤형한·정재호·신동준·이인재(2012). 「주요 청년고용 정책 이슈 분석」.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천현숙(2011).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2011 주거복지 컨퍼런스」. 한국도시연구소. 355-367.
- 최훈·진영재(2010), “후기 청소년의 직업특성 평가와 취업자 이미지 차이 연구: 서비스직 업군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7(11).
-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통계청(2012). 「2012년 3분기 지역별고용조사」.
- 하성규(2007).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집문당.
- 한국노동연구원(2010).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여성노동자회(2010). 「20대여성, 대한민국에서 생존을 외치다 “Let me in!”」.
- Haudreport(2012). 「서울시 주거정책의 변화와 전망」. 31
- Arnett, J. J. (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2), 133-143.
- Billari F. C. and Liefbroer, A. C. (2007).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The impact of age norms on leaving home”. *Demography*, 44(1), 181-198.
- Bruckner, H. and K.U. Mayer(2005),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What it might mean? And if it means anything, whether it actually took place?” in R. Macmillan (Ed.), *The structure of the life course: Standardized? Individualized? Differentiated?*, Amsterdam: Elsevier.
- European Commission(2009). *EU Youth report*.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Zimmer-Gembeck, M., & Mortimer, J. (2006). “Adolescent work, vocat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6, 537-566.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국토교통부 <http://www.kreic.org/realtyprice/>
- 대학정보공시센터 <http://www.academyinfo.go.kr/>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 <http://www.sen.go.kr/>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 <http://job.seoul.go.kr/>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http://survey.keis.or.kr>
청소년직업체험센터 <http://2010.haja.net/>
통계청 <http://kostat.go.kr/>

부 록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현황
2.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현황
3. 복지관 이용 경험 및 진로직업 수요조사
4.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 온라인 설문조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 근로청소년복지관 현황⁹⁾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기관 연혁

【 표 53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기관 연혁

연월일	내 용
1981. 11. 05	서울특별시립 근로자종합복지관 착공
1982. 11. 30	서울특별시립 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
1982. 12. 01	서울특별시와 수탁운영 약정체결 (1차)
1982. 12. 17	서울특별시립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1986. 11. 30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1차 준공 (1동~4동, 13평형 200세대)
1987. 01. 22	종합운동장 준공
1987. 11. 05	서울특별시와 수탁운영 약정체결 (2차)
1988. 09. 02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2차 준공 (5동~9동, 15평형 250세대)
1992. 12. 16	서울특별시와 수탁운영 약정체결 (3차)
1992. 12. 17	서울특별시립 근로자종합복지관 10년사 발간
1995. 12. 16	서울특별시와 수탁운영 약정체결 (4차)
1998. 07. 01	헬스장 개장
1998. 12. 29	서울특별시와 수탁운영 약정체결 (5차)
1999. 01. 01	근로청소년복지관으로 관명 변경
1999. 10. 01	가산문화센터 개관
2001. 12. 24	서울특별시와 수탁운영 약정체결 (6차)
2002. 12. 14	서울특별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20년사 발간
2004. 08. 01	골프연습장 개장
2004. 12. 14	서울특별시와 수탁운영 약정체결 (7차)
2007. 07. 01	인조잔디전용구장 개장
2007. 12. 31	서울특별시와 수탁운영 약정체결 (8차)
2008. 01. 17	2007년도 청소년시설 평가 표창 (서울특별시)
2010. 12. 17	2010년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인센티브평가 모범상 수상(서울특별시)
2010. 12. 22	서울특별시와 수탁운영 약정 체결 (9차)
2012. 11. 24	풋살구장 개장

9)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내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내부자료 (2012년 기준)

2) 시설현황

-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 면 적 : 대지 69,071㎡, 건물 25,295㎡(2만평)
- 분 관 : 5,270㎡ (지하 1층, 지상 3층)
- 아 파 트 : 19,730㎡ (9개동 450세대)
- 기 타 : 295㎡ (경비실, 화장실, 옥외창고, 중앙공급실)

3) 시설배치 현황

표 54 | 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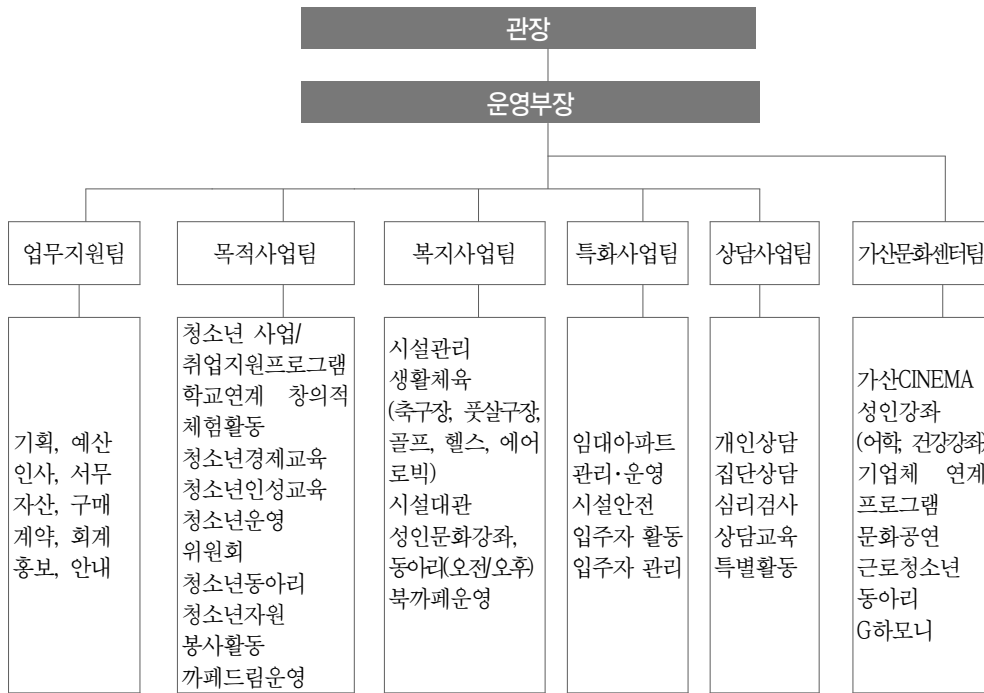
층별	명 칭	면적(㎡)	용 도
	총 계	5,270.9	
	소 계	2,041.8	
1층	헬 스 장	438.3	체력단련
	제과제빵실	91.7	청소년 창업·취업 교육장
	북 카 페	58.5	도서 열람 및 대여
	건강클리닉	161.9	발레, 한국무용, 건강요가, 힙합댄스, 재즈댄스, 다이어트 댄스
	물 품 창 고	30.4	교육기자재 및 물품보관
	요리실습실	61.4	간편요리, 반찬요리, 제과제빵, 청소년 C·A교실, 푸전생활요리, 가정요리
	컴 퓨 터 실	95.7	파워포인트, 컴퓨터로 만드는 우리가족앨범, 컴퓨터는 내손안에, 엑셀, PC활용
	슬 기 방	47.8	디카사진, 하모니카
	습 씨 방	47.8	한글서예, 스텐실, 손뜨개, 플라워&아트, 창작미술
	꾸 밍 방	91.7	동양화, 퀼트, 예쁜글씨 POP
	P C 방	36	아파트입주자 PC방 운영
	관 장 실	64	관장실
	상담사업팀	63.7	상담 프로그램 운영(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소강의실1	111.5	종이접기, 종이조각, 단소, 구슬공예, 손뜨개, 레고닥타
	목적사업팀	47.9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통합사무실	95.7	업무지원팀, 복지사업팀
	로비·계단	497.8	카페테리아, 안내데스크, 홍보판 게시, 행사 시 전시

층별	명 칭	면적(m ²)	용 도
2층	소 계	1,522.8	
	대 강의실	191.4	연수, 시설대여
	소 강의실 2	46.2	어학강좌 전용 교육실
	연수 진행실	29.7	연수 시 업무 진행
	양호실	14.8	양호업무
	생활관	348.5	연수생 숙소
	강당	292.4	행사, 영화세상, 노래교실, 청소년 C·A활동
	음향실	11.9	음향 및 조명
	무대	44.6	공연, 발표회 진행
	무대창고	29.7	소품 및 기자재 보관
	세면장	43.9	연수생 샤워시설
	복도.화장실.계단	469.7	
3층	소 계	885.7	
	소 강의실 3	114.2	예쁜글씨 POP, 청소년 C·A활동
	옥탑	53.8	시청각 장비 보관
	다솜방	77.6	경락마사지, 요가
	나눔방	56.1	그림그리기
	생활관	316.8	연수생 숙소
	세면장	43.9	연수생 샤워시설
복도.화장실.계단	223.3		
지하 1층	소 계	820.6	
	식당	192.1	직원 및 연수생 급식
	주방	56.1	조리실
	주방창고	45.2	주방용품 보관
	맷시방	155.8	에어로빅, 모던&라틴댄스, 건강요가, 검도, 밸리댄스
	전기실	64	전기시설
	골프연습장	183.8	9타석(실내 : 7타석, 실외 : 2타석), 야외 어프로치교육장
복도 . 계단	123.6		



4) 조직현황

○ 전체 정원은 44명이며, 현원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설립 목적

○ 설립당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서울시 구로공단의 영세사업장 내 여성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정 및 근로청소년의 복지후생과 전인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일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기관으로서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연계 운영하는 특화시설임. 현재 시립근로청소년의 운영목적은 다음과 같음. “근로청소년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을 통한 개인의 자아개발과 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 인성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문화감성교육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함”(기관운영자료)

※ 기관이 제시하는 중점 추진방향

1. 글로벌 시대에 따른 건전 청소년 육성
2. 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협조체제 유지
3. 이용자들의 욕구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4. 적극적 홍보 전략으로 자발적 참여 분위기 형성
5. 새로운 복지관 운영모델 제시
6. 복지관 위상 재정립 및 지역적 한계 극복
7. 일반(학생)청소년 프로그램 강화(경제 및 인성캠프)
8. 복지관 전진기지인 가산문화센터 프로그램 강화
9. 장애인청소년 창업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

6) 주요사업

- 목적사업 57개, 교육문화사업 10개, 생활체육사업 7개, 상담실 사업 27개, 가산 문화센터 17개, 특별지원사업 3개로 구성됨 (2013년 4월 30일자 현재)

표 55 주요사업 현황

구분	사업 개수
청소년 활동	57개
교육문화	10개
생활체육	7개
상담실	27개
가산문화센터	17개
특별지원	3개
전체	121개



표 56 청소년 지원 및 주요 프로그램명

청소년지원사업	프로그램명
비진학청소년 지원사업	특성화고 취업 지원관 워크샵
	비비의 꿈
	Re-road Plan B
	동량지재
	재능나래
	Make a wish
	알아봐! 알바
창업·취업 프로그램	창비어천가
	진로의 사고전환! 뉴턴 프로젝트
	심마니(가상 CEO체험)
	스마트 창업 캠프
	예비 직장인 캠프
	청소년 직업인성 캠프
	발달장애청소년 자립 및 취업프로그램
학교 연계 프로그램	공감지대
	HAPPY START(인성교육)
	행복한 부자 만들기(경제교육)
	노빈손, 경제대륙을 가다(경제교육)
	오 마이 잡(진로교육)
	잡(Job) 스(School)(진로교육)
	청소년 특기적성 개발 활동
	청소년 경제캠프 고고씽 경제나라
	창의·리더십캠프
미래가꿈 캠프	
놀토·주말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감성 연수
	전통문화직업캠프
	창의·인성캠프
	친구야 놀자 주말 체험학습
	청소년 단기특강
	이색직업체험
	행복한 주말 만들기
	스키캠프
	하계가족캠프
청소년 자치활동	오감만족 상상+
	청소년운영위원회 “드림미”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착한발걸음
총 38개의 사업	

▣ 표 57 ▣ 문화생활

문화충전 (Morning Start, After 7)· 스펙업·동아리	Morning Start(오전)
	After 7(오후)
	스펙업(오전, 오후)
	동아리(오전,오후)
총 4개의 사업	

▣ 표 58 ▣ 생활지원

유소년 프로그램	해피키즈클럽
	청소년 경제교육 21세기 경제리더는 바로 나
	유소년 발로차추구교실
	유소년 종합체육교실
헬스, 골프, 에어로빅	
총 7개의 사업	

▣ 표 59 ▣ 상담실

상담실	심리검사, 개인상담	개인상담
		심리검사
		미술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교연계집단상담
		또래상담동아리
		희망만들기(청소년수련활동인증 제827호)
		드림스쿨
		꿈틀꿈틀
		꿈너머꿈
		비상(飛上)계단
		굿잡! 굿네이버스
		커리어 체인지
		빅토리 인생
	한울타리 프로젝트	
	교육프로그 램	청소년 상담 봉사자 양성 교육
		행복한 가정 만들기
		솔리언또래상담지도자과정
		내일을 잡(job)아라
		청춘공감, 힐링-유(U)
		달성!타임캡슐
		공개상담사례발표
	상담특별활 동	톡!톡! 365(청소년수련활동인증 제1655호)
		자신만만(청소년수련활동인증 제1354호)
		핸즈프리 캠프
총 24개의 사업		



2.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현황¹⁰⁾

1) 연혁

- 1983. 09.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1-4동) 및 구관장 건립 기공
- 1986. 11.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1차 준공
- 1988. 09.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2차 준공
- 2012. 10 여성임대아파트 명칭 보람채로 변경

2) 시설 현황

- 명 칭 : 보람채 (의미 : 일의 가치를 알아 보람을 찾는 여성근로자의 보금자리)
- 현 황 : 1동~4동 42.9m²(13평형) 200세대 / 5동~9동 49.5m²(15평형) 250세대
- 거주형태 : 1세대 2명 공동생활(1인 1실), 총9개동 449세대 898명 입주
- 시설구성 : 방2개, 주방, 욕실, 도시가스, 개별난방, 싱크대, 가스렌지

3) 입주 자격 및 선정 기준

- 대 상: 서울시 소재 업체에 근무하는 만 26세 이하의 미혼여성

【 표 60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항목	내용	기타
나이	만 26세 이하 미혼 근로여성	생년월일 기준
지역	서울소재 사업장 근무자	공무원, 교원연금법 적용대상자 제외
급여	월 150만 원이하	급여는 세금 공제 후 실 수령액 기준
학력	대학교 졸업자 이하	대학원 제외

10)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內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내부자료 (2012년 기준)

○ 입주자 선정 순위

- 입주 자격 기준(연령, 소득, 학력)을 충족한 대상자 중 연령이 낮은 생산직 근무자 우선 입주. 단, 자격이 동일한 신청자의 경우 아래 입주선정순위 적용

【 표 61 】 입주자 선정 순위

순위	대상
1순위	1 국가유공대상자와 그 유족
	2 기초생활수급권자
	3 장애인 (단, 공동생활 가능자)
2순위	제조, 생산직 현장근로(중소기업체)근로청소년
3순위	저임금 근로청소년, 기타
동일점수일 경우	1. 모범사원추천 받은 자 2. 선순위 신청자

4) 입주자 생활 현황

○ 임대아파트 자치회 구성 및 운영

- 임원구성 : 회장, 총무, 각동(9개동)대표 (총 11명)
- 자치회 활동: 아파트 환경미화, 시설 및 안전교육, 입주자 의견 수렴, 세대 방문을 통한 외부 무단 숙박자 및 무단 퇴거자 확인 작업

5) 입주자 프로그램

○ 2012년 현재 총 19개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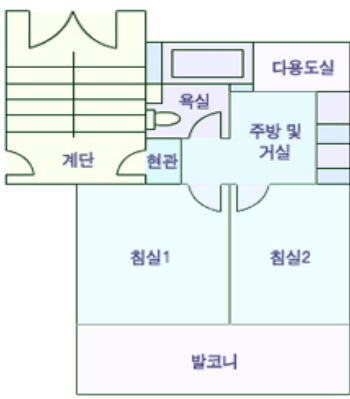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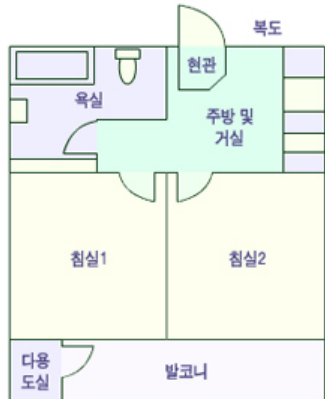


표 62 입주자 프로그램 현황

기존 프로그램 (8개)	2012년 신규프로그램 (11개)
Youngworker교양강좌	YoungworkerCultureFestival
입청제(오픈하우스)	다(多)문화탐방
청년문화제작소(동아리)	입주자굿모닝캠페인
광장 "TheShow"	엄마딸이라서행복해요
벼루기장터 "FreeMarket"	한지봉한마음
아파트 서포터즈	고(古)고(Go)투어(1+1)
아파트 입주자심사위원회	아파트 아침건강교실
신규입주자오리엔테이션	아파트자치회임원워크샵
	신규입주점검서비스
	멀티룸운영
	아파트 세대대표 총회

6) 건물 현황

- 2012년 입주정원 - 449세대 898명

구분	42.9㎡ 평형(1동~4동)	49.5㎡ (5동~9동)
평면도		
세대	4개동 200세대	5개동 250세대
보증금/임대료	1,639,000원/ 월 64,000원	1,835,000원/ 월 70,000원
기타사항	도시가스, 개별난방, 싱크대, 가스렌지, 1세대 2명 공동생활 거주 (1인1실)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 경험 및 진로·직업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으로 여성 및 가족, 아동 및 청소년 관련하여 다양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용 경험을 조사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서비스 개선 및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진솔한 의견은 향후 근로청소년 및 일반청소년 진로·직업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성심껏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 6

조사 주관 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19	조사협력 기관	시립근로청소년 복지관
ID		조사일	2013년 6 월 일
면접원		코딩	



A.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 경험

A1. 귀하는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언제부터 이용해 오셨습니까?

(_____) 년 부터

A2. 귀하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매주 ② 매달 ③ 매분기(3개월마다)
- ④ 1년에 1~2회 ⑤ 비정기적·일회적 이용

A3. 귀하는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인지 경로 선택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직접 홍보(소식지, 전화, 방문 등)를 통해	
2	TV, 라디오, 신문(지역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3	자발적인 인터넷 탐색(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4	학교, 청소년단체 등 조직 및 단체를 통해	
5	지역사회 내 행정기관(구청, 동사무소)를 통해	
6	기타 (_____)	

A4. 귀하는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자발적으로 이용하셨습니까?

- ① 자신의 의지로 이용함 ② 학교에서 단체로 가게 되어 이용함
- ③ 부모나 교사의 권유로 이용함 ④ 친구가 이용하고 있어 함께 이용함
- ⑤ 기타 (_____)

A5. 귀하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진학·진로
- ② 취업·창업
- ③ 청소년 활동(동아리, 봉사, 자치회 등)
- ④ 문화생활·체력단련
- ⑤ 기타 (_____)

A6. 귀하가 지난 1년간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지불한 총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만원

A7. 다음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귀하가 다음의 각 문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난 1년 간 아래 표에 제시된 프로그램별로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 표 해주십시오.

A7-1. 참여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1년 간 몇 회 참여하셨습니다? 총 참여횟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A7-2. 참여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하신 시간은 대략 총 몇 시간이었습니까? 참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A7-3. 참여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귀하께서는 얼마나 만족하셨는지요?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문항		A7. 참여 여부	A7-1. 참여 횟수	A7-2. 참여시간	A7-3. 만족도
		참여 시 √ 표	OO회	① 2시간 이내 ② 4시간 이내 ③ 8시간 이내 ④ 단기 기숙형 (2박 3일 등) ⑤ 장기형 (4주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어느 정도 만족 ④ 매우 만족
근로 청소년 지원 사업	1	근로청소년테마기행			
	2	힘내라 새내기 직장인			
	3	힐링! 마음의 독해 인문학			
	4	함께하는 문화유회			
	5	근로청소년 의식 조사			
비진학 청소년 지원 사업	6	비비의 꿈			
	7	Re-road Plan B			
	8	동량지재			
	9	재능나래			
	10	Make a wish			
창업 취업 지원 프로 그램	11	알아봐! 알바			
	12	창비어천가			
	13	진로의 사고전환 뉴턴 프로젝트			
	14	심마니(가상 CEO체협)			
	15	스마트 창업 캠프			
	16	예비 직장인 캠프			
	17	청소년 직업인성 캠프			
	18	발달장애청소년 자립 및 취업 프로그램			
학교 연계 프로 그램	19	공감지대			
	20	HAPPY START(인성교육)			
	21	행복한 부자 만들기(경제교육)			
	22	노빈손, 경제대륙을 가다(경제교육)			
	23	오 마이 잡(진로교육)			
	24	잡(Job) 스(School)(진로교육)			
	25	청소년 특기적성 개발 활동			
	26	창의·리더십캠프			
	27	미래가꿈 캠프			

	문항	A7. 참여부	A7-1. 참여횟수	A7-2. 참여시간	A7-3. 만족도
		참여시 V 표	OO회	① 2시간 이내 ② 4시간 이내 ③ 8시간 이내 ④ 단기 기숙형(2박 3일 등) ⑤ 장기형(4주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어느정도 만족 ④ 매우 만족
놀토·주말 활동 프로 그램	28	청소년 문화감성 연수			
	29	전통문화직업캠프			
	30	창의·인성캠프			
	31	청소년 단기특강			
	32	이색직업체험			
	33	행복한 주말 만들기			
	34	스키캠프			
청소년 자치활동	35	하계가족캠프			
	36	오감만족 상상+			
	37	청소년운영위원회 “드림미”			
자원봉사	38	청소년 동아리			
	39	착한 발걸음			
교육문화 프로그램	40	Morning Start			
	41	After 7			
	42	스펙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43	동아리			
	44	해피키즈클럽			
심리검사 개인상담	45	헬스·골프·에어로빅			
	46	개인상담			
	47	심리검사			
집단상담	48	미술치료			
	49	학교연계집단상담			
	50	또래상담동아리			
	51	꿈틀꿈틀			
	52	꿈너머꿈			
	53	비상(飛上)계단			
	54	굿잡!굿네이버스			
	55	커리어 체인지			
교육 프로그램	56	빅토리 인생			
	57	한울타리 프로젝트			
	58	내 일을 잡(job)아래!			
상담 특별활동	59	청춘공감, 힐링-유(U)			
	60	달성!타임캡슐			
	61	톡!톡!365			
	62	자신만만			
	63	핸즈프리 캠프			



A8. 다음은 귀하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느끼실 수 있는 사항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현대적인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항상 청결하고 정리가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3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안내판, 게시판, 자료 전시 등이 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4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건물 모습은 보기에 좋다	①	②	③	④
5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홈페이지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6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청소년에 맞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하는 절차는 쉽고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8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편의시설(강의실, 식당, 강당, 휴게실, 화장실, 상담실 등)들이 잘 구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9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다	①	②	③	④
10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화재나 비상 상황을 대비한 안전 관리를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교통편이나 찾아가는 방법이 쉽다	①	②	③	④

A9. 다음은 귀하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이용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관의 대응 태도와 관련하여 느끼실 수 있는 사항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번호에 V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직원들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진심으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가 바쁘더라도 내가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응해준다	①	②	③	④
4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직원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직원들은 항상 기꺼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6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직원들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세심한 관심을 표한다	①	②	③	④
7	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음을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직원이 알게 되는 경우 함께 공감해 주고 위안을 준다	①	②	③	④



A10. 다음은 귀하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신뢰성과 관련하여 느끼실 수 있는 사항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번호에 V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직원들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내가 신청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3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직원들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5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직원들의 일 처리나 프로그램 진행은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6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7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청소년의 근로, 직업, 진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8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청소년의 근로, 직업, 진로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9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청소년의 근로, 직업, 진로 등과 관련한 질문 사항에 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프로그램 일정, 특별행사 일정, 프로그램시간 등을 미리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1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영수증 발급, 접수, 프로그램 등록 등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1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A11. 다음은 귀하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만족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즐겁게 이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 믿음이 간다	①	②	③	④
5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정직한 기관이다	①	②	③	④
7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청소년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8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9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이용이 내 삶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10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내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었다	①	②	③	④



A12. 귀하는 앞으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이용할 의향 없음 ② 이용할 의향 있음 ③ 모르겠음

B. 진로·직업 프로그램 경험 및 만족도

B1.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유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귀하는 지난 1년 간 어느 프로그램 유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래 표에 제시된 프로그램 유형별로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 표 해주십시오.

B1-1. 참여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유형의 경우, 참여하신 시간은 대략 총 몇 시간이었습니까? 참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B1-2. 참여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유형의 경우, 참여하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B1-3. 참여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유형의 경우, 귀하의 관심 진로·직업 분야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B1-4. 참여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유형의 경우, 귀하의 관심 진로·직업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문항	B1. 참여부	B1-1. 참여시간	B1-2. 참여장소	B1-3. 관심 진로·직업 분야와의 관련 정도	B1-4. 관심 진로·직업 개발에의 도움 정도
	참여 시 √ 표	① 2시간 이내 ② 4시간 이내 ③ 8시간 이내 ④ 가숙형 (2박3일 등) ⑤ 장형 (4주 등)	① 학교 ② 시립근로청소년 복지관 ③ 기타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 ④ 기업 등 산업체 ⑤ 대학 ⑥ 공공기관 ⑦ 기타 (직접 기입)	① 전혀 관련 없음 ② 별로 관련 없음 ③ 어느정도 관련됨 ④ 매우 관련됨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별로 도움 안됨 ③ 어느정도 도움됨 ④ 매우 도움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B2. 귀하는 참여하신 진로·직업 프로그램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대해 동의되는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V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래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①	②	③	④
2 진학 준비를 위한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됨	①	②	③	④
3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기회가 됨	①	②	③	④
4 교과 교육이 장래 진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이해하게 됨	①	②	③	④
5 관심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됨	①	②	③	④
6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됨	①	②	③	④
7 진로 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시야(관점)를 갖게 됨	①	②	③	④
8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9 흥미와 목표의식을 갖게 됨	①	②	③	④
10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가 고취됨	①	②	③	④
11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C. 진로·직업 관련 수요

C1. 귀하는 진로·직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합리적인 의사결정
- ②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
- ③ 진로계획 및 목표설정
- ④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 ⑤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 ⑥ 학교 및 학과정보의 제공
- ⑦ 다양한 교육방법(이론, 견학, 체험 등)의 적절한 결합
- ⑦ 기타 (_____)

D. 응답자의 개인적 사항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D2. 귀하의 현재 나이는 몇 세입니까?

() 세

D3.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중학교 ② 일반계고 ③ 전문계고 (특성화고 포함)
④ 특목고 ⑤ 기타 ()

D4. 귀하의 학년은 어떠합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중퇴
⑤ 기타 ()

D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시 ② 광명시
③ 기타 () 시

D5-1. 시 단위 이하 거주 지역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 군/구 () 동/읍/면

※ 예: (동작) 군/구 (대방) 동/읍/면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람채 입주자 온라인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투·출현기관으로서 여성 및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그동안 서울시 정책지원체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젊은 여성층의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정책개선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거관련 경험과 욕구 및 임대아파트 지원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응답자 개인 및 해당시설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정책 수립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본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 7

연구기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19
------	--

I. 주거경험 일반

1. 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주거지역

___① 서울 ___② 경기 ___③ 경기도외 지역

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기 전 주거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3		4		5			
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주거형태		→ 거주기간		→ 월세 비용			
___①	부모님과생활	___①	임대아파트	___①	3개월 이하	___①	0 원
___②	친구·친인과생활	___②	다세대주택	___②	4~6개월	___②	1~10만원 미만
___③	형제·자매와 생활	___③	고시원	___③	7~12개월	___③	10~20만원 미만
___④	홀로 독립생활	___④	오피스텔	___④	13개월~36개월	___④	20~30만원 미만
___⑤	기타 ()	___⑤	단독주택	___⑤	37개월~60개월	___⑤	30~40만원 미만
		___⑥	기숙사	___⑥	60개월 초과	___⑥	40만원 이상
		___⑦	기타()				

6. 다음의 유형 중에서 귀하가 거주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곳에 모두 (V) 표시 하시고, 몇 개월 살았었는지 기입해주시요

유형	개월 수	유형	개월 수	유형	개월 수
___ 임대아파트	___ 개월	___ 기숙사 (학교·직장 등)	___ 개월	___ 여성시설	___ 개월
___ 다세대주택	___ 개월	___ 오피스텔	___ 개월	___ 청소년시설	___ 개월
___ 고시원	___ 개월	___ 여관	___ 개월	___ 기타 ()	___ 개월



7. 귀하는 최근 3년간 이사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___① 한 번도 안함 ___② 1회 ___③ 2회 ___④ 3회 ___⑤ 3회 이상

8. 입주 전 거주지에서 안전 및 치안 관련 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___① 있다 ___② 없다

9. 거주지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① 월 임대료 ___② 주거환경의 안전성 ___③ 주변 편의시설
 ___④ 대중교통이 용이함 ___⑤ 룸메이트와 공동생활여부
 ___⑥ 기타 ()

II. 이동 편리성

현 직장과의 접근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10		11		12		13	
현 직장의 위치		출퇴근 시 이용 교통수단		출퇴근 시 왕복 소요시간		한 달 교통비용	
___①	서울	___①	버스	___①	1시간 미만	___①	1만원 미만
___②	경기	___②	지하철	___②	1시간~2시간 미만	___②	1만원~5만원 미만
___③	잠시 일하고 있지 않음	___③	도보	___③	2시간~3시간 미만	___③	5만원~7만원 미만
		___④	자가용	___④	3시간~4시간 미만	___④	7만원~10만원 미만
				___⑤	4시간 이상	___⑤	10만원 이상

14. 출퇴근 시 이동의 편리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 용	평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1.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4-2. 보람채는 출퇴근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3. 출퇴근 소요시간은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14-4. 출퇴근에 드는 교통비가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보람채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 용	평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5-1. 서울 시내로의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15-2. 지하철 이용하기에 가까운 곳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3. 버스정류장 이용하기에 가까운 곳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4. 대형할인점 또는 편의점이 가까운 곳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5. 의료 및 문화서비스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6. 보람채는 지리적으로 살기 편리한 위치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I. 보람채 이용현황 및 경험

16. 귀하는 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___① 월 임대료 가격이 저렴해서
 ___② 주거지역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___③ 회사, 친구, 주변의 권유
 ___④ 직장과의 거리 등 출퇴근 편리성 때문에
 ___⑤ 임대아파트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___⑥ 기타 ()

17. 다음은 현 임대아파트의 입주기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입주자격	평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17-1. 만26세 이하 연령제한	①	②	③	④	⑤
17-2. 150만원이하 월 소득 제한	①	②	③	④	⑤
17-3. 기혼자 입주 제한	①	②	③	④	⑤
17-4. 남성 이용 제한	①	②	③	④	⑤
17-5. 대학교 졸업자 이용가능	①	②	③	④	⑤
17-6. 직장 근로자만 입주가능	①	②	③	④	⑤
17-7. 생산직 근무자 우선입주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는 임대아파트 세대 당 입주인원으로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1명 ___② 2명 ___③ 3명

19. 귀하는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___① 매우만족 ___② 만족 ___③ 보통 ___④ 불만족 ___⑤ 매우불만족

20. 귀하는 향후에도 계속 현 임대아파트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___① 매우그렇다 ___② 그렇다 ___③ 아니다
⇒20-1번으로 가기

___④ 매우 아니다 ___⑤ 잘모르겠다
⇒20-1번 가기

20-1. 이용하실 의향이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시설의 노후 및 관리의 부실 함
- ___② 출입통제로 인한 불편함 (통금시간 등)
- ___③ 룸메이트와 생활하기 힘들
- ___④ 편의시설 부족
- ___⑤ 교통 불편
- ___⑥ 기타 ()

21. 보람채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___① 친구·지인소개 ___② 인터넷 서치 ___③ 언론매체 ___④ 회사 홍보
- ___⑤ 기타 ()



IV. 주거환경

22. 주거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 용	평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2-1. 늦은 저녁시간 보람채 주변 치안상태가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22-2. 단지 내 치안 및 경비체제가 잘 갖춰있다	①	②	③	④	⑤
22-3. 아파트 내부 시설상태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2-4. 위 요인들을 고려했을때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주거시설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용	평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23-1. 아파트 실내구조 및 설비수준	①	②	③	④	⑤
23-2. 아파트 실내환경(환기/통풍/채광)	①	②	③	④	⑤
23-3. 단지 내 편의시설(관리사무소, 쓰레기 처리 시설, 세탁실 등)	①	②	③	④	⑤
23-4. 녹지/조경시설 (잔디, 나무, 화단 등)	①	②	③	④	⑤
23-5 위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V. 지역사회와 주거자립

24. 단지 내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 용	평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4-1. 현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자주 참여	①	②	③	④	⑤
24-2. 아파트 동호회 등 입주자 활동 적극 참여	①	②	③	④	⑤
24-3.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①	②	③	④	⑤
24-4. 지역사회 내 보람채에 대한 인식 및 이미 지 개선 필요	①	②	③	④	⑤

25.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모두체크)

- ① 문화학습프로그램 ② 진로프로그램 ③ 취업창업프로그램
 ④ 교양강좌프로그램 ⑤ 취미여가프로그램 ⑥ 생활체육프로그램
 ⑦ 없음

26. 최대 4년 거주 이후 독립된 주거지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① 하고 있다 ⇒25-1번 응답 ② 하고 있지 않다 ⇒25-2번 응답

26-1.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26-2. 하고 있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VII. 일반적 특성

33. 귀하는 몇 년 생이십니까? (19__ 년)
34. 귀하의 현 임대아파트 거주 개월 수는 몇 개월이십니까? (_____개월)
35. 귀하는 현재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__① 사무직 __② 의료 __③ 서비스직 __④ 전문직 __⑤ 교육
__⑥ 판매직 __⑦ 생산.제조업 __⑧ 잠시 다니고 있지 않음
36. 그 밖에 임대아파트 경험에 비추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nalysis and Strategy for Improvement of the Young Worker's Welfare Center

Aely Park, Angie Byun
(Policy Research Department
Research Fellow)

The Young Worker's Welfare Center (YWWC) is built by the City of Seoul in 1982 in an effort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s working in the Guro Industrial Complex. The YWWC also includes rental apartment housing for low-income female adolescents. Several issues are reported to serve the target population. It is located in Gwangmyeong City, Gyeonggi-do, which may cause very limited access by adolescents visiting from Seoul. Furthermore, the programs and projects the YWWC has launched seem to rarely match its mission aiming to improve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who work. This study thus makes suggestions for a strategic planning for the YWWC and the rental apartment housing for female workers, including consideration of the center relocation and more effective services.

Various research methods have been used. First, we conducted surveys with both those who ever visited the YWWC and those who never di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career aspirations and their employment-related needs. Second, a focus group interview and an online survey were conducted in order to measure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 rental apartments and identify their housing-related needs. Third, the internal data and records on the YWWC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users and programs.

Th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at the current location and the program services of the YWWC hold significant disadvantages. First, teens and young workers from Seoul seldom visit and use the YWWC. Second, the recent



establishment of a new youth training center in downtown Gwangmyeong also competes with YWWC in program delivery. Third, the absence of programs catering specifically to young workers has corroded the institutional identity of the YWWC, while the passive approach to their employment-related issues and other needs has led the function of the YWWC to overlap with that of other youth training centers and counseling centers.

In terms of the rental apartment housing, it is located in an area where commuting between Seoul and Gwangmyeong is easy. Surrounded by various amenities and secure facilities, the housing is also in a safe neighborhood. However, the apartment buildings are 30 years old and obsolete, and lack of amenities in the apartments causes some inconvenience. The management office consistently disregards the diversity of the residents' lifestyles, and the housing is also held in low regard in general.

Reviewing these condition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 YWWC might need to be relocated to Seoul, especially to such areas as Gangseo and Yangcheon districts, in order to better meet employment-related needs of adolescents. Second, the facility needs to be rebranded as the Youth Employment Support Center, providing a comprehensive range of services for adolescents who need to find a job. Third, as the apartments are in a safe and accessible area, it may be kept in the current location, on the condition that it is remodeled and renovated to provide a more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proposes three possible plans reflecting the suggestions we made above. The first plan envisions the separation of the YWWC and the apartments, with only the YWWC being relocated in Seoul. The second plan recommends the relocation of both the YWWC and the apartments in Seoul. The third plan posits keeping both facilities in the current location. This study detail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plan also.

Key Words: The Young Worker's Welfare Center, housing and employment-related needs of adolescents, center relocation, rebranding its programs and services

2013-정책개발-004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개선방안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및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기능 적합성』을 중심으로 -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박애리, 변은지, 전효관, 김령희
발행일 2013년 9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간등록번호 51-B552561-000004-01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